南濟州郡 大靜邑 加波里

調査經緯/481
社會背景/482
家族・家屋/496
方　　言/510
地　　名/521
說　　話/532
信　　仰/555
海　　女/568

調査經緯

世界的으로 珍重한 이 地域의 國語國文學 내지 民俗學의 學術資料에 대한 調査의 必要性을 절감하여 年次 調査를 계획하고 實行한 게 이번이 세번째이다. 1次는 典型的 農村인 倉川里(南濟州郡 安德面)를 택했었고 2次는 典型的 漁村이요, 섬인 牛島(北濟州郡 舊左邑 演坪里)를 對象으로 했었는데, 이번은 韓國의 最南端 馬羅島와 가까운 加波島를 골랐다. 牛島와 비슷한 附屬島嶼를 調査함으로써 對比研究의 利點을 노린 것이다.

1974年 8月 23日에서 8月 26日까지 불과 3泊4日의 짧은 日程으로써 바람직한 收穫을 바란다는 것은 무리에 가까운 줄 잘 알면서도 敎授와 學生 모두 調査에 심혈을 기울였다. 姜根保(方言), 沈汝澤(地名), 梁重海(說話), 金洪植(方言), 金榮敦(社會背景, 海女), 玄容駿(家族·家屋·信仰), 金時泰(說話), 金永和(信仰) 등 일곱 분의 敎授와 29名의 學生이 大擧 參與했음은 해가 거듭될수록 關心과 熱意가 뜨거워가는 希望짙은 證據이다. 調査에 參與한 學生 名單을 調査班別로 보면 다음과 같다. (()안은 재학년이다).

社會背景 : 姜泰日(2), 金宗植(1), 康順香(1)
家族·家屋 : 姜榮鍾(3), 金斗善(2), 張源澤(2)
方　　言 : 鄭榮培(4), 玄殷子(2), 梁生昊(2), 金世弘(1)
地　　名 : 左東烈(2), 高碩希(1)
說　　話 : 張寧玉(3), 高尙球(3), 高權一(2), 姜文皓(1), 吳海喆(1)
信　　仰 : 高貞姬(3), 金鍾錫(2), 金奉均(1), 玄哲鍾(1), 安相根(1)
海　　女 : 金昌集(4), 姜漢浩(4), 姜聖贊(4), 梁順烈(3), 玄庸植(1), 鄭貞植(1)

加波國民學校에서 宿食하며 이루어진 이 調査는 그 日程이 너무 促急하여 未洽한 점이 많을 줄 알지만, 이 만큼의 報告書라도 내게된 것은 모두 現地 各 機關 및 住民들의 全幅的인 協助의 德이었다. 특히 加波國民學校 金斗行 校長과 金大鍾 加波里長의 따뜻한 보살핌에 깊이 感謝한다.

社 會 背 景

목 차

1. 自 然 環 境
2. 史 的 背 景
3. 人 文 概 況
4. 産 業 構 造

1. 自 然 環 境

加波島는 濟州本島의 西南端 摹瑟浦에서 東南方 5.5㎞ 海上에 놓인 면적 0.84㎢의 附屬島嶼다. 濟州道의 부속도서중 牛島 다음 가는 크기를 가진 有人島지만 그 差는 크다. (牛島 面積 6,646㎢).

行政上으로는 南濟州郡 大靜邑 加波里인데 大韓民國의 最南端인 馬羅島(면적 0.3㎢)는 加波島의 부속도서로서 섬 全体가 加波里 16班, 571番地로 되어 있고 加波里에서 5.5㎞ 떨어진 南方海上에 위치하고 있다.

北緯 33°10′ 東經 126°17′에 위치한 加波島는 蓋島·蓋波島·加乙波知島·더위섬·더푸섬이란 古名이 있듯이 덮개 모양을 하고 있다.

이 섬은 山도 斷崖도 없다. 평평하면서 中央部가 약간 높은 이 섬은 〈섯다밧ㅁㄹ〉와 〈동다밧ㅁㄹ〉라 불리우는 〈ㅁㄹ〉 (너브죽한 동산)만 있을 뿐 峰은 없다. 또한 馬羅島의 경우, 海岸線이 주욱 가파른 斷崖로 되어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그렇다할 벼랑도 없다.

海岸線은 單調로운 편이며 海岸가에 모래사장은 없다. 섬이 조금씩 沈降하고 있다고들 몇몇 古老들은 말하지만 그 근거는 아리숭하다. 東西의 길이가 南北의 길이보다 긴 加波島는 河川은 없고 해안가를 따라서 몇 군데 湧泉水가 흐르며 섬 어느 곳을 막론하고 5 m만 파면 물이 솟기 때문에 全 家戶의 약 3분의2가 家垈內에 물통을 所有하고 있어서 물이 마른 때가 아니면 湧泉水는 別로 利用하지 않는다. 또한 加波里의 上洞과 下洞에 공동우물이 各各 1개소씩 있어서 家庭물통을 갖추지 못한 집에서나 큰 빨래를 할 때 利用하는 실정이다.

聚落은 上·下洞 海岸가에 밀집되어 있고 東西쪽 해안가에는 없으며 중앙부는 지금에야 自然部落이 形成 中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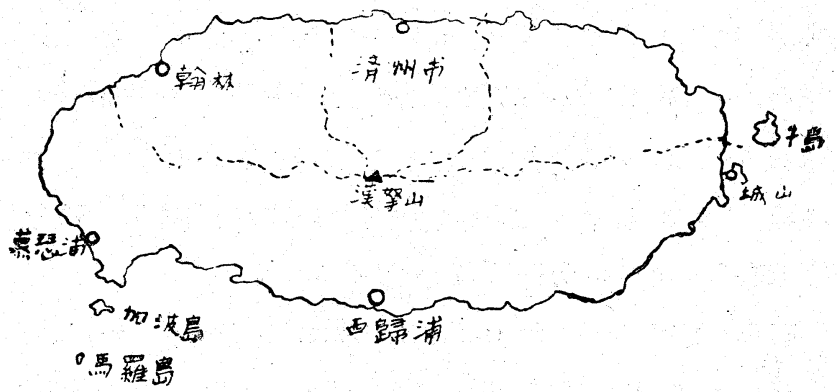
農耕地는 섬의 大部分을 차지하며 牧野地라고 할 만한 草地는 없다. 森林을 별로 찾아 볼 수 없음도 特記할만 하다. 濟州本島에 흔한 소나무·팽나무·멀구슬나무·동백나무·대나무등의 樹木조차 없음도 特異한 일이다.

動物로는 뱀(馬羅島에는 없음)이나 까마귀는 있지만 꿩·족제비등은 없다.

섬 둘레에는 黃金漁場을 이루어 성게·미역·톳·전복·소라·선어·해삼등 海藻類, 貝類가 많으며 加波島産 자리는 古來로 有名하다.

섬 부근에는 暗礁가 많고 潮流가 급하여 船舶往來가 불편하다. 加波島 동쪽 近海에는 물이 밑에서 솟구는 것처럼 보이는 곳이 있는데 이는 시속

〈圖 I〉 加波島의 위치



6마일이나 되는 물결이 急流하기 때문이라 한다.

下洞 浦口 곁에 〈아끈여왕돌〉 (一名 폭풍바위)이 있는데 여기에 사람이 올라가면 〈서낭〉이 怒해서 暴風雨를 일으킨다고 口傳되어 사람이 올라감을 禁하고 있다 한다.

土質은 비교적 肥沃한 편이며 氣候는 四面이 바다에 둘러싸인 絶海孤島여서 海岸에서 불어오는 거센 바람의 영향으로 寒暑의 差가 極甚한 海洋性 氣候를 나타낸다.

2. 史 的 背 景

加波島 出身 史學家 故 金 泰能氏의 考證이라 前提하는 古老들의 口述에 따르면 加波島史의 槪要는 다음과 같다.

加波島는 國有馬場地로 오랫동안 지정되어 一般人의 入住가 금지되고 牧養關係者 몇몇만이 居住했던 것 같다.

李朝 成宗時에도 御乘馬가 産出되었다고 전해진다. 英祖 26年(AD 1750年)부터 犧牲進貢用 黑牛 50頭를 이 섬에 방목하였으나 憲宗 6年 (AD 1840年) 12月에 英國船 2隻이 來侵하여 방목 중인 黑牛를 총살, 박탈해 갔으므로 牧場을 폐지하고 남은 黑牛를 毛洞場(現 武陵 一, 二里)에 移牧하고 一時 空島로 두었다가 憲宗 8年(AD 1842年)에 開墾, 入耕이 許可되었다. 처음 개간, 입경한 사람은 농번기에만 來往하면서 10여년 동안 營農하던 차 高宗 2年(AD 1865年) 大靜地方에 큰 흉년이 있은 후부터 定住해 살았으니 지금부터 약 110年前 일이다.

西紀 1886年 日本 潛水器漁業者 일행이 定着하여 潛水器業을 했으므로 이때 潛水技術이 傳播되었다. 아울러 감자 재배도 이때부터 시작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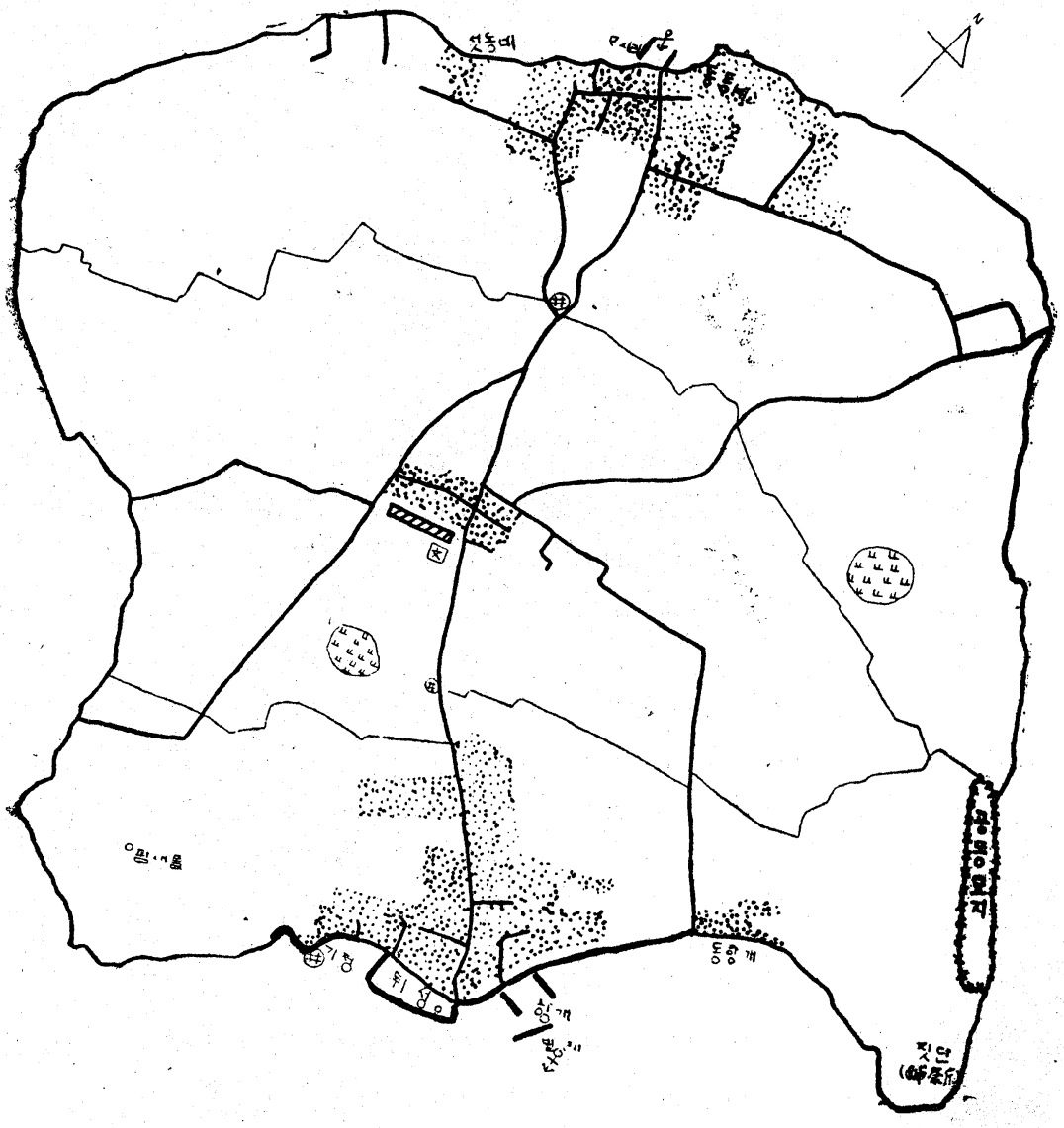
처음 개간 입경한 사람은 上幕·下幕里 居住 慶州金氏·晋州姜氏·濟州梁氏·羅州羅氏·金海金氏等 33名이었다.

1653年(孝宗 4年)에 하멜(Hendrik Hamel) 一行이 제주도에 漂着하여 서울까지 왔다가 脫出하여 돌아간 일이 있었는데 그는 漂流記("蘭船 濟州

島 難破記" 및 그 附錄인 "朝鮮國記")를 지어 처음으로 韓國을 西洋에 소개했다. (初刊 AD 1668年) 하멜이 漂着했던 곳이 加波島라고 하는 學說은 史學家 故 金 泰能氏의 다음과 같은 考證에 依하면 誤說인 듯하나 宿題로 남겨 둘 수밖에 없다.

"破船直前 加波島에 上陸한 사람이 一人 있었는데, 그는 발레바지(양복)를 입고 있었으며 보리쌀을 조금 얻고 歸鄕했을 뿐이다. 그리고 하멜 표류기에도 전혀 渡海事實이 없으므로 오히려 번네(現 安德面 和順里)로 볼 수 있다."

〈圖 II〉 加 波 島 全 島



풍부한 水產資源과 농토개간의 餘裕가 移民을 促進시켜 내려오던 중 1914年, 下摹里 소관이었던 加波島가 下摹里에서 이탈하여 加波里로 昇格되었다.

1947年 加波國民學校가 創設된 것을 비롯하여 現在는 數個의 機關이 들어섰으며 204戶에 912人을 保有하고 있다.

聚落形成은 上洞(뎡시리)과 下洞(항개)의 두 自然部落이 있으며 中洞은 자연부락 형성 중이다. 加波島는 四面環海이면서도 他地出他의 경험을 가진 이가 많아 住民들이 대체로 進取的, 開放的이었으며 民間遺習·巫俗信仰·通過儀禮 등에서도 반드시 閉鎖的, 保守的인 편은 아니다.

加波島民들이 島史에 對한 關心은 他地方에 비해 越等한 듯 보이니, 말하자면 里事務所 뜰에는 "加波島 開耕 一百 二十周年 紀念碑"가 異例的으로 서 있다.

1962年 里民들에 依해 建立된 이 碑의 後面, 側面에는 故 金 泰能氏 考證의 前記 史實이 集約, 記錄돼 있다.

그 原文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沿革, 本島古稱蓋島蓋波島加波島加乙波知島더위섬더푸섬本是國畜馬牧地李朝成宗時御乘良驥產出英祖二十六年犧牲進貢用黑牛五十頭放牧以來憲宗六年庚子英國船來泊畜牛砲殺却去後廢牛場同八年壬寅開耕許可李光廉主管上下摹瑟里民往來開墾耕耘入耕稅納司僕寺自哲宗末頃入耕民定住西紀一八八六年乙酉日本人潛水器漁業者吉村與三郎一行定着入漁是我國潛水器漁業創始地且翌丙戌年頃吉村甘藷栽培法傳授于有志金龍興此亦近世濟州甘藷栽培之嚆矢也一九一四年下摹里所管離脫加波里號稱教育高宗初漢文訓學以來人才輩出辛酉年金成淑創設里立辛酉義塾一九四七年加波國民學校創立引繼一九二三年항개西防波堤築成一九三六年沿海漁業鰯漁撈法導入傳播屬島馬羅島火田開墾一八八三年癸未本里戶數乙酉年四十戶現在戶數二百十二戶人口千三十六人"

여기 덧붙이고 싶은 바는 加波島는 有史以來 오늘날까지 줄곧 國內外의 潛水器漁業者에 依한 橫暴때문 말할 수 없이 시달려 왔다는 사실이다.

19世紀末 日本(主로 長崎縣) 潛水器業者들은 加波島民, 特히 海女들에게는 참으로 大敵이 아닐 수 없었다. 日本에서는 日本漁民들의 濟州島 出漁는 당분간 中止하도록 하는 措置를 취했었음에도 불구하고 日本의 潛水器業者들은 如前히 密漁하는가 하면 殺人掠奪行爲까지 敢行했었다.

朝鮮總督府 朝鮮史編修會 "朝鮮史" 高宗 24年 4月 17日條에는 이 事例를 다음과 같이 記錄하고 있다.

> "高宗 24年(AD. 1887年) 加波島(摹瑟浦 南方)에서 전복을 採取하던 日本 漁船 六隻이 모슬포에 來漁하여 任意로 下陸하여 닭, 돼지를 掠奪하고 浦民 李晩松을 殺害한 事件이 發生하자 議政府의 啓言으로 總理交涉通商事務衙門에 命하여 日本代理公使에게 抗議하고 賠償도 要求케 한 일이 있었던 것은 그 一例다."

3. 人 文 槪 況

加波島는 2개 自然部落이 各各 洞을 이루고 있으며 하나의 行政里에 속한다.

聚落形成은 원래 〈ᄆᆞ시리〉 곧 上洞에서부터 비롯되었으며 〈ᄆᆞ시리〉 포구가 摹瑟浦와 出入하는 唯一無二한 이 섬의 窓口였다. 約 60年前 下洞 곧 〈항개〉에 포구가 이루어지면서 갑자기 이 동네가 번창하여 오늘날엔 오히려 下洞의 經濟權이 우세하며 加波島의 主軸格으로 변했다. 〈항개〉는 〈동항개〉·〈기정〉·〈뒤성〉·〈항개〉로 나누어지며, 〈ᄆᆞ시리〉에는 〈섯동네〉·〈동동네〉·〈ᄆᆞ시리〉가 있다.

이 마을은 總 16班으로 이루어지는데 1班에서 6班까지가 〈ᄆᆞ시리〉(上洞)이고 7班이 中洞이며 8班에서 15班까지가 〈항개〉(下洞), 16班이 馬羅島다.

加波島의 戶數 및 人口數는 〈表1〉과 같다.

〈表1〉에서 보면 2년전이나 別差는 없는데 特異한 事實은 여자의 急減現象이다. 이는 제주도의 男女 姓比(1971년, 92(男) : 100(女))와는 그 양

〈表1〉 **加波里의 戶數 및 人口數**

年 月 日	戶數	人口數			戶當平均人口	姓比 (女子 100名)
		男	女	計		
1972년 12월 1일 현재	193	435	515	950	4.92	84.7
1974年 4월 1일 현재	204	455	457	912	4.46	99.56

資料 : 加波里事務所

상을 달리하며, 같은 島嶼인 牛島와 비교해도 큰 差가 생긴다. (牛島 1973년 男女 姓比, 71.5 : 100) 이처럼 特異한 加波島의 男女 姓比는 通婚圈의 問題와 결부시켜 分析해 볼 일이다.

加波島에는 一切 지붕을 일 새(띠)가 나지 않으므로 새의 구입이나 運送이 어려워서 지붕개량이 잘 되어 있다.

그러나 牛島等에서와 같이 빗물 저장 탱크를 갖추지 않음은 用水事情이 좋기 때문이다.

〈表2〉 **加波里의 지붕改良 實態**

區 分	草 家	기 와	스레트	함석 양철	스라브	計
家屋數(棟)	98	2	89	13	2	204
百分比(%)	48.2	0.8	44.1	6.1	0.8	100

資料 : 加波國校 1974年 教育計劃

住民의 姓氏構造는 姜·金·李·羅氏 等 처음 定住한 姓氏가 과반수를 차지하며 나머지는 雜姓으로 모두 36姓氏가 있다.

오늘날의 人士로는 國會議員을 지낸 金成淑氏, 氏의 조카이며 史學家인 故 金 泰弼氏, 大靜邑 統一主体 國民會議 代議員 金 正孝氏 등이다.

電氣架設은 지금 構想中인데 벌써 10家戶가 充電螢光燈을 暫定的으로 마련해 놓았으며 이 중에 8家戶가 같은 방법으로 TV를 시청하고 있다.

無醫村인 이 마을은 559番地의 4호에 약방이 있는데 이는 1966년 당시

제주도지사가 落島의 實情을 참작하여 大學卒業者에 한하여 약을 판매할 수 있도록 特別許可를 주어서 생긴 것이라 한다. 잘 팔리는 약은 감기약과 설사약등 가정상비약들이며 멀미약은 없다.

牛島에서처럼 注射할 줄 아는 住民들도 많은데 이들은 거의가 군의관을 지냈던 사람들이라고 한다.

加波里內의 機關은 里事務所(282번지)·加波國民學校(464번지)·西歸浦警察署 大靜支署 加波哨所(59번지)·摹瑟浦郵遞局 加波電信電話分室(275번지)·加波里 漁村契 등이 있는데 초소를 제외하면 모두 中洞에 밀집되어 있다. 1972년 8월 1일에 創設된 가파전신전화분실은 無線通信方法으로 1일 3회 通話할 수 있게 하여 落島住民들의 편리를 도모함은 물론, 초소무전이 非常時 代用役割도 하고 있다.

우편관계는 전신전화분실에서 취급하지 않는다. 이 섬 出身 集配員이 每日 모슬포에 드나들면서 우편물을 처리하고 있으며 下洞 浦口에 우체통이 設置되어 있다.

마라도와의 사이에는 近來까지 봉화로써 通話했다 하나 지금은 無線通信이 있어서 별로 利用하지 않는다.

1971년에 設置된 해안감시초소는 하동에 위치해 있고 전투경찰대가 부정기적으로 파견된다.

1922년 私設 辛酉義塾이 金成淑氏에 依하여 建議, 創設되어 李應信·李時華·李玉千·金漢貞·李道一 等 諸氏의 功勞로 유지 발전되어 오면서 人材의 輩出과 文化의 向上을 꽤해오던 중, 1947년 加波國民學校가 開校되자 引受했다.

1958년 馬羅分校가 設立되었고 現在는 6名의 教師와 6學級 172명(分校生 包含)의 학생을 保有하고 있다.

어촌계와 잠수회(海女會)는 不可分의 關係를 맺어 相互協助하여 사무를 처리하고 있다. 1961년에 조직된 漁村契는 里와 같은 事務所를 쓰고 있다.

1974년 3월에 設置된 西歸漁協移動預金巡回取扱所는 어촌계에 사무를

依託하고 있다.

靑年會·婦人會·海女會·開發委員會등이 있는 것은 他部落과 유사한데 4H俱樂部·農村生活改善俱樂部·農事改良俱樂部가 없음은 特異하다.

쌀계·그릇계·면화계·화장대계·의리형제계 等의 協扶契는 가까운 이웃끼리 組織되어 있다. 또 10~15人이 一組를 이루어 日收契도 하고 있다.

加波里에는 理髮舘(1)·卓球場(1)·빵집(1)·정미소(1)·구멍가게(8)가 있는데 구멍가게에서는 주로 소비성 物品만을 販賣한다. 1974년 3月以來 下宿屋이 房 9室을 갖고 運營되고 있다.

住民의 文化施設 保有狀況을 〈表3〉에 依해서 살펴보면 落後한 편은 아닌 듯하다.

〈表3〉 加波國校 兒童의 家庭文化施設

區 分	아동수	라디오	전 축	시계	전기	리어카	T·V	신문	재봉틀
數 (名)	154	125	12	109	10	93	8	13	111
百分比(%)	100%	82.6	7.9	72.2	6.6	61.8	5.3	8.6	73.5

資料 : 加波國校 1974年 敎育計劃

濟州本島와의 交易은 摹瑟浦를 往來하면서 행해지는데 모슬포와 가파도 사이에는 渡船(승진호·11.5t)이 하루 한번 드나든다. 이 渡船은 出港時에만 요금을 받고 入港時에는 요금을 안 받는데 오전 10시에 出港하여 오후 2시에 入港하므로 外地民이 加波島에 入港했다가 그날 돌아오는데는 불편하다.

加波里民들은 1일과 6일에 서는 모슬포 五日市場과, 每日市場에서 日用品을 구입한다.

通婚圈은 島內와 島外의 比率이 거의 비슷한데 상모리·하모리와 가장 많이 通婚하고 안덕·중문등지와도 많은 편이며 馬羅島와는 별로 사돈관계가 없다.

結婚때 〈이바지〉 풍습은 사라졌으며 紗帽冠帶를 쓰는 舊式結婚禮式은 4·3事件때 없어졌다고 한다. 島內結婚은 대체로 걸어서 하고 사돈잔치는 결혼당일에 치루는 게 常例다. 葬禮組는 洞單位로 즉 상동(1), 하동(1)으로 이루어졌고 보통 3일장을 지내며 소비절약운동은 잘 되어가는 편이다.

墓地는 6년전에 〈동바위〉라는 바닷가에 設置했는데 그 후는 이 共同墓地에만 葬地를 定한다. 그 이전엔 自己 所有의 田地에 매장했다 한다.

寺院이나 教會는 없고 따라서 信者도 많지 않으며 약간의 信者들은 摹瑟浦를 往來하면서 信仰生活을 하고 있다.

出他移住한 住民도 많은데 그들의 出他理由는 여러가지겠지만 子女教育問題가 우선한다는 것이다. 出他住民은 멀리는 日本에 나가며 國內各處에도 散在하는데 大靜邑 下摹里에 가장 많이 산다.

年平均 4~5세대가 出他한다고 하는데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인구의 큰 변천이 없는 것은 過去부터 계속 出他해 왔음을 立證하고 있다.

里民總會에서의 決議에 따라 他地域住民은 第一種共同漁場에서 물질 못하게 하며 本里 處女도 島外出嫁하면 即刻 이 섬에서 入漁權이 박탈된다. 또 海浦監 四人을 두어 暗採者를 적발, 처벌한다.

또 部落民들의 決議에 依하여 5년전부터 禁酒를 실시하고 있음은 特記할 만한 일이며 가게에서는 일체 酒類販賣를 않는다.

음력 정월 13일경에 春酺祭를 지내는데 제관은 開發委員中에서 뽑으며 里長은 献官이 되고 선출된 祭官들은 3일전부터 沐浴精誠하여 祭廳에 留宿했다가 그날 祭를 맞는다. 約 30년전까지는 6月에 農酺祭도 치렀었다고 한다.

里事務所에 앰프시설은 안 되었으나 部落民들이 바다에서 共同作業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各種 情報 交換은 용이한 편이다.

오늘날 加波島가 안고 있는 當面課題는 防風과 綠化를 爲한 적정한 나무의 식재, 새로운 水產技術의 보급 및 선착장 확장과 潛水器船 단속, 公醫 배치 및 通信連絡施設의 改善과 電氣架設, 그리고 장학선이 加波島를

경유하여 馬羅島 來往을 週 2~3回 정도 運用하는 것 등인데 이 몇 가지는 예전부터 住民들이 한결같이 熱望하는 宿題인 것이다.

4. 産 業 構 造

加波島의 農土는 비교적 肥沃한 편이나 耕地面積이 狹小한데 反해 水産資源이 풍부하므로 水産業이 主가 되고 農業은 부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畓과 林野가 없는 가파도는 全 面積의 82%인 68.2ha가 田이다.

耕作規模別 農家戶數는 〈表4〉와 같다.

〈表4〉 加波里 耕作規模別 農家戶數

區 分	3반보 미만	3~5반보	5~10반보	10반보 이상	농가호수(計)
戶 數	51	49	56	3	159
百分比〔%〕	32.1	30.8	35.2	1.9	100

資料 : 加波里事務所 1974年 統計

牛島의 경우 1반보 미만의 耕作地를 가진 農家가 全 農家의 4.8%인데



〈加波島의 마을거리〉

가파도의 경우는 全無하며, 또 牛島에는 15반보 이상의 耕作地를 가진 農家가 全 農家의 17%나 되는데 가파도의 경우는 전혀 없다. 가파도의 戶當 平均耕地面積은 3.92반보밖에 안 되어 全 濟州道 평균 경지면적 8.5반보에 比하면 엄청나게 적다. 따라서 住民들의 식량 자급자족은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

主要 耕作穀物은 겨울 농사로 보리, 여름 농사로 고구마이고 유채·콩·조는 약간 정도이며 過去에 꽤 有名했던 참외는 지금은 거의 栽培하지 않는다. 고구마는 換金作物로서의 가치가 클 뿐만 아니라 사료가 생산되지 않는 이 地域에서 고구마넝쿨은 소먹이의 大部分을 차지하고 있어 一擧兩得的이다.

濟州本島에 盛行되는 감귤재배는 지리적, 기후적 조건 때문에 조금도 재배하지 않는다.

다음 〈表5〉를 參照하여 家畜保有狀況을 보면 特異한 事實을 發見할 수 있다. 즉 原來 馬場地였음에도 불구하고 말은 하나도 찾아 볼 수조차 없다는 것이다. 또 소도 적음은 水產業에 主力하여 役畜利用을 별로 않기 때문이다.



〈加波島 下洞浦口〉

〈表5〉 **加波里 家畜保有狀況**

區分	소	돼지	닭	개	오리	고양이	*戶數
頭數	67	156	20	25	60	15	198
百分比〔%〕	32.3	78.8	10.1	15.6	30.3	7.1	100

資料：加波里事務所 1974年 統計
*는 家畜頭數의 合計가 아니며, 百分比의 合計도 아님

〈表6〉 **加波里의 漁業從事者數**

區分	조합원			준조합원			計		
	男	女	計	男	女	計	男	女	計
人口數〔名〕	40	58	98	70	80	150	110	138	248
百分比〔%〕	40.8	59.2	100	46.7	53.3	100	*24.4	*30.2	*27.3

*는 全男·全女·全住民에 對한 百分比

위의 〈表6〉에서 보면 全 住民에 對한 漁業從事者數는 27.3%나 되어 他地域(牛島 17.7%)에 비해 많은 편이다. (물론 漁村契에서 統計한 漁業從事者數가 그대로 漁業從事者 實態일 수는 없다. 왜냐하면 어디서나 그렇지만 漁民 모두가 漁村契에 가입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또 1974년 大靜邑 事務所 統計에 따르면 農漁兼家와 漁家를 合한 水產業家戶는 167戶로서 全体戶數의 84.3%가 된다. 濟州道內의 많은 海岸部落과 마찬가지로 가파도의 漁業도 一船漁業과 裸潛漁業으로 二分되는데 婦女들은 물론 어린 處女들도 裸潛漁業에 極盛스러워서 家庭經濟를 윤택하게 하고 있다. 牛島와 더불어 가파도는 全 濟州道 海岸部落中에서도 海女作業이 古來로 참 盛行되는 곳임을 再强調해야 한다.

〈表7〉 **加波里의 水產物 收益實態**

區分	미역	해삼	톳	전복	소라	선어	자리	감태·해초류	성게	計
生産量〔kg〕	6,000	3,000	30,000	9,375	80,000	30,000	—	1,000	1,000	160,375
收益金〔만원〕	120	180	600	1,500	2,400	360	800	300	1,000	9,760

資料：加波國校 1974年 統計

加波國民學校가 集計한 위의 〈表7〉에서 보면 어느 漁村에 比해서도 별 어지지 않는 많은 漁獲高를 올리고 있음을 알 것이다. 이들 水産物中 자리는 全 濟州道的으로 有名하다. 이는 맛이 좋기는 물론이요, 제일 먼저 자리를 뜨기 시작하고 5月 中·下旬頃 盛時에는 자리잡이배 百餘隻이 한꺼번에 몰릴 정도라니 과연 壯觀이 아닐 수 없다.

그렇게 많은 漁船이 몰려도 배에 따라서는 1일 4~5만원의 수익을 올린다니 그 漁獲量을 이내 짐작할 만하다.

加波島內의 漁船은 모두 15隻인데 動力船 12隻(72.5t)과 無動力船 3隻(3t)이 있어 大部分 沿岸漁業을 주로 한다. 여느 어촌과 같이 特異한 낚싯거루인 〈싸움판배〉는 없다. (城山面 吾照里에는 〈싸움판배〉가 있음)

他漁村에 比해 海女들이 古來로 出稼를 거의 하지 않음은 加波島內에서도 수입이 좋기 때문이라고 풀이된다.

家　　族
家　　屋

1. 家　　族

目　　次

Ⅰ 序
Ⅱ 形態와 크가
1. 槪　　況
2. 家族의　類型
1〉類　　型
2〉演坪島와의 比較

Ⅰ 序

家族은 社會를 이루는 基本單位이다. 이러한 社會의 基本單位를 調査함으로써 그 社會를 더욱 正確히 把握할 수 있을 것이다. 加波島는 濟州本島와 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의 南端에 位置해 있어 거의 모든 生活을 바다에 依存하고 있다. 이에 따라 本島와는 特異한 것이 있지 않을까 해서 調査하게 되었다.

加波島에는 上洞(무시리)과 下洞(항개)의 두 개의 自然部落이 있는데, 調査對象地域은 먼저 形成된 上洞을 擇하였다. 그것은 家屋構造도 겸해서 調査하기 위함이었다. 上洞은 80戶의 部落이어서 그 全体를 調査하기는 힘겹겠으므로 이를 더욱 좁혀 人家가 密集된 곳一數가 많고 調査하기 쉬

운 곳一을 擇하였다. 이렇게 하여 擇한 곳이 2·3·4·5班의 四個班이었다.

이 地域을 調査함에 있어서는 먼저 里의 住民登錄臺帳을 옮겨적고 이것을 가지고 調査班員이 各 戶口를 訪問調査하였다. 可能한 한 正確한 調査를 하기 위하여 直接調査를 많이 하였으나, 그렇지 못한 곳은 間接調査를 하였다.

Ⅱ 形態와 크기

1. 概 況

調査對象區域은 2班이 11戶, 3班이 11戶, 4班이 9戶, 5班이 11戶, 計 42戶로 이루어져 있어 이 戶數가 標本調査對象이 되었다. 그중에 1戶는 廢家되어 있었다. 四個班의 總人口는 220名(男 125名, 女 95名)이며, 世帶當 平均家族數는 5,16人인데 그 性別, 年令別 分布는 〈表1〉과 같다.

〈표1〉 性別 年令別 分布

年令	2班		3班		4班		5班		計		性比
	남	녀	남	녀	남	녀	남	녀	남	녀	
1~5	3	5	4	2	1	1	3	2	11	10	110
6~10	5		6	4	2	2	2	7	15	13	115
11~15	5	2	7	3	3	2	3	3	18	10	180
16~20	3	3	8	2	8	1	1		20	6	333
21~25	3	2	1	2	6	2	3	1	13	7	185
26~30	5	3	1	1	5	1	5	3	16	8	200
31~35	3	2	2	4	1	1	2	3	6	10	80
36~40	1	1	2	2			3	2	8	5	120
41~45	1	1	2		2	3		1	5	5	100
46~50	1	1	1	1	1	1		3	3	6	50
51~55		1					2		2	1	200
56~60	2		1	1				2	3	3	100
61이상	3	4		3		2	2	2	5	11	45
計	35	25	35	25	29	16	26	29	125	95	131

여기에서 特異하게 나타나는 것은 他地域에서는 女子가 男子보다 많은데 比하여 여기에서는 그 反對現象이 나타나고 있다는 点이다. 가파도 總人口의 性比는 99.56(男 455名, 女 457名)이며, 濟州道의 性比는 91.5(73년도 濟州道 統計年報)이다. 그리고 濟州本島의 東端에 있는 演坪里(牛島)의 경우는 71.5(國文學報 5輯 p.61)이다.

그런데, 가파도의 경우 사내아이 낳는 것보다 여자아이 낳는 것을 더 좋아한다고 귀띔해 주기도 한다. 그것은 남자는 밭갈이 뿐 하며, 배에 종사하는 것 밖에는 하지 않고, 여자는 밭농사를 도맡아 하며 바다에서 潛水作業을 하여 돈을 벌어 들일 수 있기 때문이라 한다. 即 男子는 女子보다 한가한 生活을 하고 있다는 말이기도 하다.

또 幼年層에서 老年層으로 갈수록 男子數가 줄고 있는 現象을 알 수 있다. 이것은 普遍的인 것일 수도 있겠으나, 여기서는 海難事故로 因한 死亡과 他島, 他地域으로 出他가 많이 行해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學業을 위하여 出他하고, 事業資本을 마련해지면 墓瑟浦 等地로 많이 移住하고 있다.

다음에 家族의 크기를 알아본다. 〈表2〉에서 보는바와 같이 4人, 5

〈표2〉 家族의 크기

家族數	世帶數	%
1 人 家 族	1	2.33
2 〃	2	4.65
3 〃	9	20.93
4 〃	7	16.28
5 〃	6	13.95
6 〃	6	13.95
7 〃	3	6.98
8 〃	6	13.95
9 〃	3	6.98
計	43	100

人, 6人家族이 大部分이다. 이는 世帶當 平均家族數 5.16人이 됨을 傍證한다. 牛島의 경우 平均 6.0人에 比하면 적은 편이나, 濟州道 全体의 平均家族數 4.63(72年度 統計)에 比하면 越等히 많은 편이다. 世帶當 平均家族數가 5.16人, 4人·5人·6人 家族이 大部分이라는 点은 그 家族形態가 核家族임을 暗示하여 준다. 이것을 世帶別로 보면 더 자세히 알 수 있다. 〈表3〉에서 보면 2世代 家族이 그 大部分이다.

이것은 大部分이 核家族이면서도 그 子女가 많다는 것을 말하여 주는 것이다. 그 子女는 물론 未婚子女이다.

〈표3〉 世 代 別 家 族 數

	世 帶 數	%
1 世 帶 家 族	2	4.65
2 〃	32	74.42
3 〃	9	20.93
計	43	100

以上에서 加波島의 家族은 그 規模가 다소 크기는 하나, 大部分이 核家族이라는 点을 推定하게 되었다.

다음은 住民들의 學歷 및 職業을 살피기로 한다.

〈표4〉 學 歷 別 統 計 表

연령 / 학력	1~10	11~20	21~30	31~40	41~50	51~60	61이상	計
未就學	27							
國 在	23	16						
國 卒		19	23	23	17	7	2	
中 在		10						
中 退		1						
中 卒		5	13	3	2			222名
高 在		1						
高 卒		1	8	1				
大 卒				1	1	1		
한글解讀				1	1	2	4	
無 學			1				9	

〈表4〉에서 본 바와 같이 그 大部分이 國卒이다. 이것은 加波國民學校가 일찍 생겨 大部分의 住民이 學校를 다닌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다. 대체로 學歷은 높은 편이다. 國民學校를 加波島에서 마친 後 집안 사정이 조금만이라도 許하면 摹瑟浦 等地로 中學 進出을 하고 있다. 中學 進出이 많다는 것은 그 만큼 加波島 住民의 生活이 나아지고 있다는 말이 되겠다.

住民들의 生業을 世帶主 職業別로 보면 다음과 같다.

〈표5〉 **世 帶 主 職 業**

	2반		3반		4반		5반		計
	남	녀	남	녀	남	녀	남	녀	
漁業	7		9	2	6	1	9	1	35
農業	3						1		4
無	1					2		1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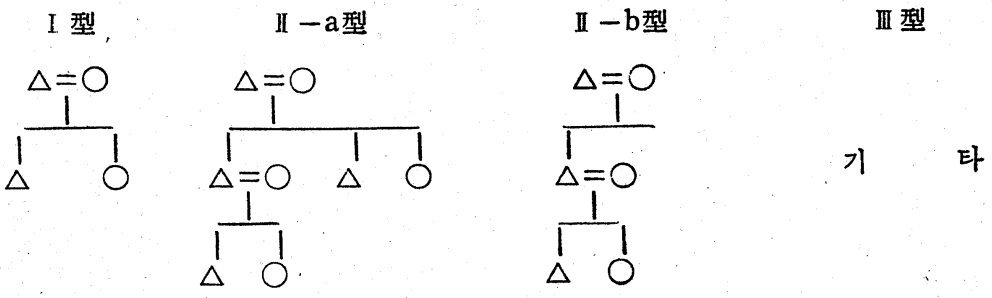
〈表5〉에서 보면 主로 漁業에 依存하고 있으며, 그 中 몇몇 家口는 自給自足은 되지 않지만 조금씩은 밭농사를 짓는 집도 있다.

他地로의 進學도 主로 漁業에 종사하는 집에 많다고 할 수 있다. 即 水産業에 종사하는 家庭이 조금이라도 나은 生活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2. 家族의 類型

1) 類 型

다음에는 그 家族의 類型을 살펴보기로 한다. 편이상 家族類型은 다음과 같이 나눈다.



※ △：男, ○：女, ＝：結婚, －：出自

Ⅰ型은 夫婦와 그의 未婚子女로 이루어진 이른바 核家族이고, Ⅱ—a型은 三世代의 直系家族인데, 이 家族類型은 方位家族과 生殖家族이 서로 합하여진 形態의 家族이다. Ⅱ—b型은 直系家族이면서도 未婚子女가 없이 夫婦·旣婚子·子婦 그리고 未婚孫子女로 構成된 家族을 말한다. 이처럼 直系家族을 細分하는 것은 濟州島 一般的인 家族慣習에서 Ⅱ—a型과 Ⅱ—b型이 各各 方位家族과 生殖家族의 分離樣相이 다르기 때문이다.

Ⅲ型의 경우는 以上의 것에 들지 아니하는 特殊한 경우이며, 非正常的인 家族이다.

以上의 分類에 依해서 加波島의 家族을 分類해 보면 〈表6〉과 같다.

〈표6〉 **加波島 家族의 類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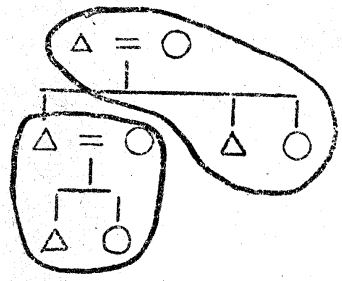
	Ⅰ型	Ⅱ—a型	Ⅱ—b型	Ⅲ型	計
	△=○ | △ ○ 完 24 父缺 5 母缺 1 父만 1 夫婦만 1	△=○ | △=○ △ ○ | △ ○ 完 1 祖母缺 1	△=○ | △=○ | △ ○ 祖父缺 4 祖父·母缺 1 夫婦·母만 1	기타	
計	32	2	6	3	43
%	74.41%	4.67%	13.92%	7%	100

※ 마지막 世代를 ego로 함.

여기에서 보면 核家族이 그 中心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濟州에서 흔히 볼 수 있는 現象의 하나인 것이다. 即 子女들이 出嫁하면 즉시 分家시켜 하나의 새로운 家族을 形成시키고 있기 때문에 많이 分布되어 있는 것이다. 스스로 獨立, 自立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現代에 들어 오면서 이러한 現象은 더욱 더 顯著하게 나타나고 있다. Ⅱ型이 경우는 濟州島에서 흔히 볼 수 없는 類型이다. 그중 Ⅱ—a型은 長男이 結

婚하여도 分家하지 않고 그 집안에 같이 사는 形態이고, Ⅱ—b型은 Ⅱ—a型에서 동생들이 結婚하여 分家하여 버린 形態이다.

<그림 1>



그런데 Ⅱ—a型의 경우는 <그림 1>과 같이 分離되는 것이 濟州島의 一般的인 家族慣習이다. 即 A의 家族이 經濟的으로 獨立하지 못할 경우는 한데 뭉쳐서 經濟·食生活을 같이 하는데 A의子女들이 成長하여 그들 스스로가 經濟生活을 營爲할 수 있게 되면 A·B 두 家族으로 分離되는 것이다. 또 Ⅱ—b型도 老夫婦가 獨立生計를 維持할 能力이 있는 限, 아들의 家族과 分離하여 獨立하려 함이 一般的인 慣習이다. 따라서 두 쌍의 夫婦가 具存할 경우는 대개 家族이 分離되게 마련이고, 어느 一方이 缺할 경우는 한 家族으로 합쳐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Ⅱ—a型의 경우 完型의 家族이면 <그림 1>과 같이 慣習上 分離됨이 當然하고, Ⅱ—b型의 경우도 完型家族이면 Ⅱ—a型 보다는 稀薄하지만 分離될 可能性이 짙은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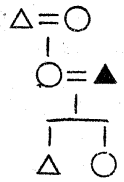
<表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Ⅱ—a型의 家族은 4.67% 밖에 되지 않으며, 그것도 完型家族은 하나밖에 없다. Ⅱ—b型의 家族은 13.92%가 되지만, 그것은 모두 完型家族이 아니어서, 實은 한 쌍의 夫婦밖에 없는 家族이다.

이를 보면, 濟州島의 家族의 特性, 即 두 쌍의 夫婦를 忌避하고, 核家族이 本質的이라는 一般的 傾向과 一致한다.

Ⅲ型의 경우를 보자. Ⅲ型의 家族은 셋이 있는데 그중 한 家族은 夫婦, 그의 未婚子女, 婦의弟 即 夫를 ego라 했을 때 妻弟들이 한 家族을 이루고 있는 경우이다. 이 경우는 婦의 親庭家族이 死亡하여 그의 동생이 갈 곳이 없으므로 같이 데리고 사는 것이다.

또 하나의 家族은 <그림 2>와 같다. 이 경우는 데릴사위의 경우와 같은

〈그림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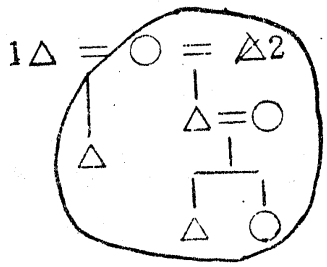


▲ : ego

形式으로 보이나 그 動機는 다르다. 即 ego가 結婚하여 生活하던 中 丈人이 死亡하고 丈母만 남게 되니 妻家에 와서 같이 生活하며 丈母를 돌보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動機面에서 보면 데릴사위制와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다른 家族의 경우를 본다. 이 경우는 첫 남편은 生死不明이 되어 再嫁하였으나 둘째 남편도 死亡한 것이다. 現在 둘째 남편의 집에서 그와의 사이에 태어난 아들의 家族과 同居하면서 前 남편의 아들도 같이 데리고 있는 것이다. 報告者는 前 남편의 아들이라고 말했지만 둘째 남편의 아들의 年令보다 밑인 것을 보면 第三의 男子와의 아들을 羞恥心에서 거짓 報告한 것인지 모른다. 調査未盡으로 確實치가 않다.

〈그림 3〉



以上을 보면 加波島의 家族은 濟州島의 一般的인 家族形態와 別差 없음을 알 수 있고, 同時에 核家族이 많은데도 世帶當 平均家族數가 많은 것은 多産 또는 出他者가 적은데 原因이 있지 않나 생각된다.

2) 演坪島와의 比較

다음은 濟州本島를 中心으로 하여 西端에 位置한 加波島와 東端에 位置한 演坪里(牛島)의 家族을 比較해 보기로 한다. (牛島의 것은 73年度 本科의 現地調査에 依據한다.) 이 兩島의 比較는 같은 濟州道의 屬島이면서 家族形態의 差異가 顯著함을 實感하게 할 것이다.

〈表 7〉의 比較表가 보이는 바와 같이,

첫째, 兩島가 모두 核家族이 많다는 것은 같다. 그러나 加波島가 牛島

〈표7〉 加波島와 牛島와의 家族類型 比較

	Ⅰ 型	Ⅱ-a型	Ⅱ-b型	Ⅲ 型
類型	△=○ △ ○	△=○ △=○ △ ○ △ ○	△=○ △=○ △ ○	기 타
加波島	32(74.41%)	2(4.67%)	6(13.92%)	3(7%)
		8(18.59%)		
牛島	51(57.3%)	12(13.4%)	23(25.9%)	3(3.4%)
		35(39.3%)		

※ 가파도의 경우는 2·3·4·5반 43世帶, 연평도의 경우는 上·下牛目洞의 89世帶를 標本으로 함. (國文學報 5輯 參考)

에 比해서 17.1%나 越等하게 核家族이 많다는 点이다.

둘째, 加波島는 核家族이 越等히 많은 反面, 直系家族이 牛島보다 20.7%나 越等하게 적다는 点이다.

다시말하면 加波島는 直系家族이 18.59% 밖에 안 되는데 牛島는 39.3%나 있어, 牛島가 直系家族이 越等히 많다는 것이다. 이는 世帶當 平均家族數가 傍證해 준다. 加波島의 平均家族數는 5.16人이고 牛島는 6.0人이다.

셋째, 牛島는 非血緣의 養子·養女를 데리고 戶籍에 入籍시키는 慣習이 있는데, 加波島에는 이런 慣習이 없는 点이다.

넷째, 加波島의 性比는 99.56로서 男女가 比等한데, 牛島의 性比는 71.5로 越等히 女子가 많다. 따라서 牛島는 妻妾關係의 家族이 많은데 加波島는 이런 家族이 적은 点이다.

같은 濟州道의 屬島이고 生業이 類似한 섬인데, 이러한 差異가 무엇 때문에 생긴 것일까? 앞으로 細密한 調査·分析을 해야할 課題이다.

2. 家　屋

目　次

Ⅰ 序
Ⅱ 家屋의 類型
Ⅲ 家屋의 形態

Ⅰ 序

섬 중의 섬인 加波島는 濟州本島에 속해 있으면서도, 유달리 오름이나 溪谷이 없는 比較的 平平한 곳으로 두 개의 自然部落으로 이루어진 海村이다.

두 개의 部落은 섬가에 마주보며 位置한 자그마한 部落이었다.

濟州本島의 경우는 部落形成이 해변에 많은 分布를 나타내고 있으면서도 單純히 아무 곳에나 位置한 것이 아니라 그 地形과 地勢에 따라 調和를 이루고 있는데, 加波島의 경우는 平坦하며 屈曲이 없어서인지 部落이 다소 海村生活의 便宜에 맞게 形成되어진 部落들이 아닌가 한다.

家屋調査 역시 家族調査와 竝行하여 上·下 두 部落 중에서 比較的 먼저 形成되어진 上洞을 對象으로 하였다. 원래는 上洞 全体를 對象으로 하려 했으나 주어진 여건들이 如意치 않아 上洞에서도 2·3·4·5班 42戶만을 對象으로 直接調査하였음을 먼저 밝혀 둔다.

家屋이라면 部落을 形成하는 요소이며, 사람들이 生活하는 主된 生活空間이라 하겠다. 이러한 家屋을 한 울타리내에서의 形態的인 面을 調査한 資料를 中心으로 記述함으로서 加波島의 家屋을 理解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Ⅱ 家屋의 類型

加波島는 앞에서 말했듯이 屈曲이 없는 平坦한 곳으로 우리 나라에서는 最南端에 位置하고 있는 섬마을이다. 行政單位上으로는 馬羅島와 합쳐서 1개 里로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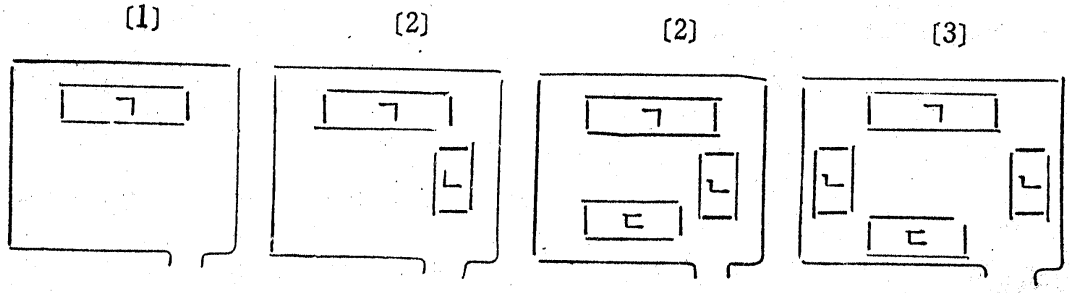
이러한 地形的인 條件은 家屋 形成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중에서 濟州島의 特徵인 바람의 영향이 크다는 점을 더욱 實感케 하여 준다.

그 점은 端的으로 〈안거리〉를 基準으로 한 家屋의 坐向을 볼 때 濟州本島의 경우에는 海風의 影響을 덜 받게 하기 위하여 南東向으로 지어진 가옥들이 殆半인데 비하여 加波島에서는 거의가 南向을 取하고 있었다. 그리고 家屋들이 稠密하게 들어서 있으면서도 바다쪽으로는 높은 담을 두툼하게 쌓아올린 울타리가 있어 防風을 意圖한 것임을 쉬 알 수 있었다.

濟州本島에는 家屋이 한 울타리내에 1채, 2채, 3채, 4채까지 配置해 있는 事例가 있다. 그런데 1채만 있거나 4채가 함께 있는 경우는 드물고,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것은 2~3채가 울타리 내에 포근히 둘러 싸여 있는 것이다. 이것이 濟州島 民家의 典型的인 모습이 아닌가 한다.

이러한, 한 울타리 안의 家屋의 配置를 圖示하면 〈圖Ⅰ〉과 같다.

〈圖 Ⅰ〉 家 屋 配 置 圖



〈圖 1〉에서와 같이 長方形의 울타리내에 家屋들이 配置되어 있는데, 濟州本島에서는 "ㄱ"을 안거리, "ㄱ"을 中心으로 前面 左右에 位置한 "ㄴ"을 〈모커리〉, 前面에 마주보며 位置한 "ㄷ"을 대개 〈박거리〉라 부른다.

(1)은 〈안거리〉 한 채만 있는 型으로, 濟州本島에서는 家族의 構成上 核家族인 경우 흔히 住居하는 形態다.

(2)는 〈안거리〉와 〈모커리〉 두 채가 있는 型으로, 〈모커리〉는 〈안거리〉에서 左나 右便에 놓이는 게 보통이나, 兩便에 다 位置하는 경우도 있다.

(3)은 〈안거리〉, 〈모커리〉, 〈박거리〉 세 채가 있는 型이다. (2)와 (3)의 경우는 家族의 構成上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直系家族(3世代로 構成된)이 住居하는 形態다. 이 경우 박거리나 〈모커리〉에는 한 世代가 따로 獨立된 生活을 하는 事例가 흔하다.

(4)는 〈안거리〉, 〈모커리〉 두 채, 〈박거리〉가 자리 한 型으로, 이 경우 모커리가 東西로 마주보고 있으면 〈동녁거리〉 〈서녁거리〉라 하여 區分하기도 한다. 그런데 濟州本島에서는 家屋이 3~4채가 함께 있을 적에는 적어도 한 채 정도는 〈헛간〉(창고) 또는 〈쇠막〉(마굿간)으로 使用하는 게 一般이다.

이러한 家屋配置는 加波島의 경우도 例外는 아니었지만, 加波島에는 (1)과 (2)인 形態가 大部分이었으며, (2)인 경우라 해도 〈모커리〉는 住居空間으로 活用하기 보다는 〈헛간〉으로 代用하고 있다. 이는 家族의 構成上 2世代인 家族이 많다는 점과 家族 중에 島外로 出他하여 生活하는 사람 수가 많아 가고 있는 때문이 아닌가 한다.

그리고 加波島의 경우 〈안거리〉의 間數의 크기가 7 : 3으로 四間집이 많다는 것은, 牛島의 경우나 마찬가지였다.

〈모커리〉인 경우는 住居用이 아니어선지 二間 정도의 크기로 되어 있었다.

濟州本島에는 海村인 경우라도 소나 말을 기르는 二間 정도의 〈쇠막〉이 흔한데, 加波島의 경우는 漁業에만 從事하고 있어서인지 〈쇠막〉을 구경하기가 힘들 정도였다.

Ⅲ 家屋의 形態

이곳 역시 家屋의 構造나 形態面으로 볼 때 濟州本島와 다른 점은 거의 찾아 볼 수 없었으며, 단지 地域的인 取弱性으로 인해 家屋形態가 다소 變貌되어 가고 있지 않나 생각되었다.

調査해 본 바 42戶의 民家가 21 : 21로 草家와 스레트집이 半半의 比率로 나타났다.

이러한 數値는 〈表1〉에서 보는 바와 같이 加波島 全 戶數를 對象으로 하여도 大差 없는 것이다.

〈表1〉 **波波島의 家屋現況**

〈1974年 3月 1日 현재〉

區 分	초 가	기 와	스레트	양 철	스라브	計
數	98	2	89	13	2	204

資料 : 加波國民學校 敎育計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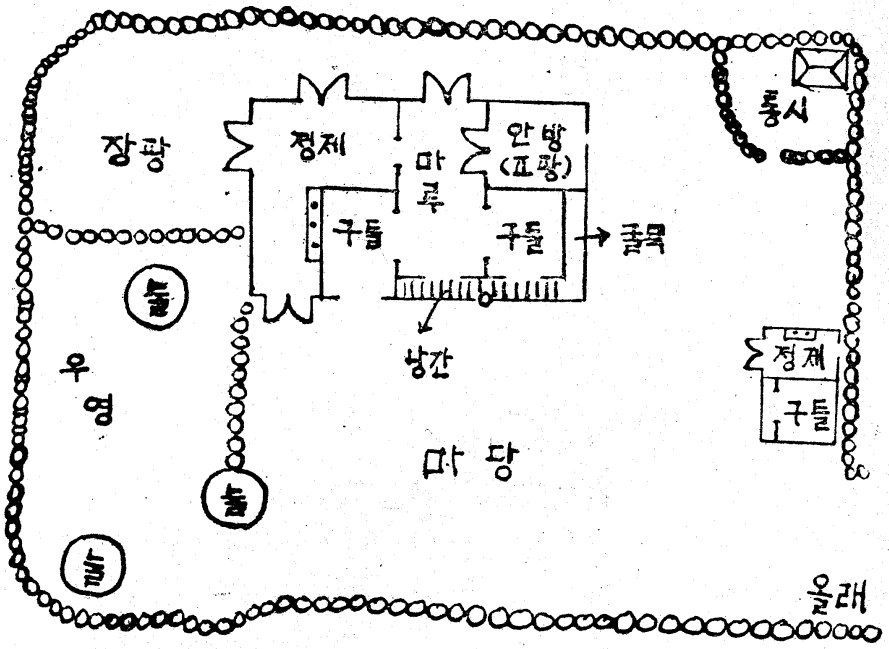
이 같이 차츰 草家에서 스레트로 되어 가고 있는 것은 牛島의 경우나 마찬가지로 草家일 경우 家屋管理의 不便性이라든가, 대개 지붕을 덮을 材料를 他地에서 購入해야 하는 取弱性 때문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는 實情이다.

그외에도 加波島 住民들은 子女敎育 問題라든가 섬 생활의 불편한 점들을 解消하기 위해 摹瑟浦 方面으로 移住하는 世帶數가 날로 늘어가므로 因해서 近來에 와서는 새로 집을 짓는 事例가 거의 없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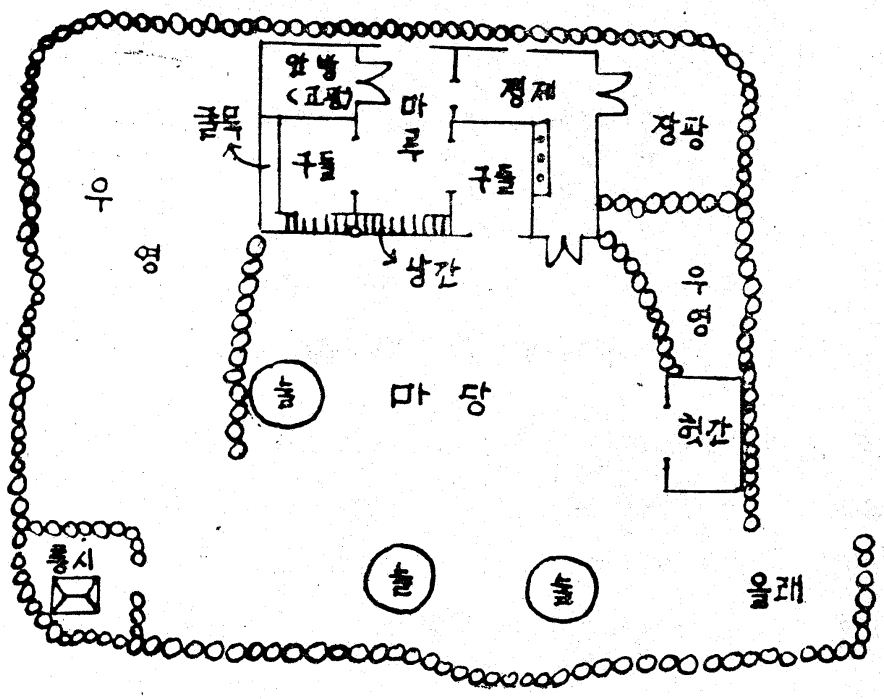
그러면 以上 記述한 加波島의 家屋에 關하여 좀 더 알 수 있겠금, 그 實例를 들기로 한다.

〈圖表2〉에서 보다 싶이 長方形의 울타리내에 住居空間 및 生活空間構成이 濟州本島와 類似함을 알 수 있다.

〈圖表 Ⅱ〉 **家屋空間 및 生活空間圖**



(Ⅰ) 강 도길氏宅(대정읍 가파리 5반)



(Ⅱ) 강 사규氏宅(대정읍 가파리 3반)

方　　言

調査對象者

南濟州郡 大靜邑 加波里

李　貞　活(男：39才)　李　英　秀(男：26才)
許　云　富(男：64才)　이　혜　양(女：23才)
李　仁　春(男：53才)

目　　次

Ⅰ 漁 業 語 彙
Ⅱ 潮水 및 干滿語彙
Ⅲ 風　　名
Ⅳ 飮食物〈떡類〉名
Ⅴ 昆虫名 및 其他

Ⅰ 漁 業 語 彙

濟州島의 餘他 附屬島嶼와 마찬가지로 加波島의 住民들은 거의가 漁業에 從事하고 있으며 海産物로써 生計를 維持하고 있다. 따라서 生業上 獨自的이고 特異한 漁業語彙가 散在할 것으로 豫見했으나 이러한 特徵보다는 天惠的인 漁場인 탓인지 海魚의 種類가 많아 100余種의 魚名이 特異하다.

그리고 漁業器具, 漁撈, 操業 等의 名稱에서 日本語의 借用이 적지 않게

나타나는데 이는 1886年에 벌써 日本人 漁業者가 定着한 事實과 이곳 漁民들이 日本과 來往이 特히 빈번한데도 있지 않은가 한다.

漁業의 分野에서도 潛水器 漁業이 創始된 곳이라 現在에도 操業하는 人員이 不少하나 作業 器具 等 日本語 名稱이 그대로 使用되고 있다. 그래서 調査項目으로 우리말이 各名稱에 많이 使用되고 漁獲高가 上位에 속할 뿐 아니라 當地 漁民이 누구나가 操業하는 漁種인 「자리 잡이」 「멸치 잡이」 「三중망」에 對한 語彙를 다음에 記述한다.

자리 뜬다 : 자리를 그물로 잡다.

자릿배 : 자리를 잡을 때 使用하는 배

「자릿배」에는 「요수(요쓰)바리」와 「마루바리」의 두 種類가 있다.

요수(요쓰)바리 : 7~8t 가량의 動力漁船이 2척의 小船을 가지고 그물을 치어 자리를 잡는 것. 이 名稱에 對한 由來로 漁民들에 依하면 南濟州郡 大靜邑 下摹里 金수발 (호적명 金묘생)이라는 사람이 日本에서 使用하고 있던 漁網 操業法 等을 보고 고향에 와서 새로이 考案한 方法이라 하여, 그 이름 「수발」에서 引用된 것으로 傳한다. 그러나 其實 人名이 아니라 漁場에서 치어지는 그물이 母船 1척과 이에 따른 작은 배 2척에 依하여 옆으로 넓게 퍼지도록 잡아당겨지므로 이 形狀에 따라 지어진 日本語 「橫張」 〈요꼬바리〉에서 由來한 명칭이 아닌가 한다.

마루바리 : 옛부터 내려오는 자리잡이 그물로서 3~4t의 어선에 依하여 치어지는데 그물에 달려 있는 「어음」이 圓形으로 그물을 잡아당기므로해서 日本語 「圓張」 〈마루바리〉를 그대로 받아드려 使用하는 듯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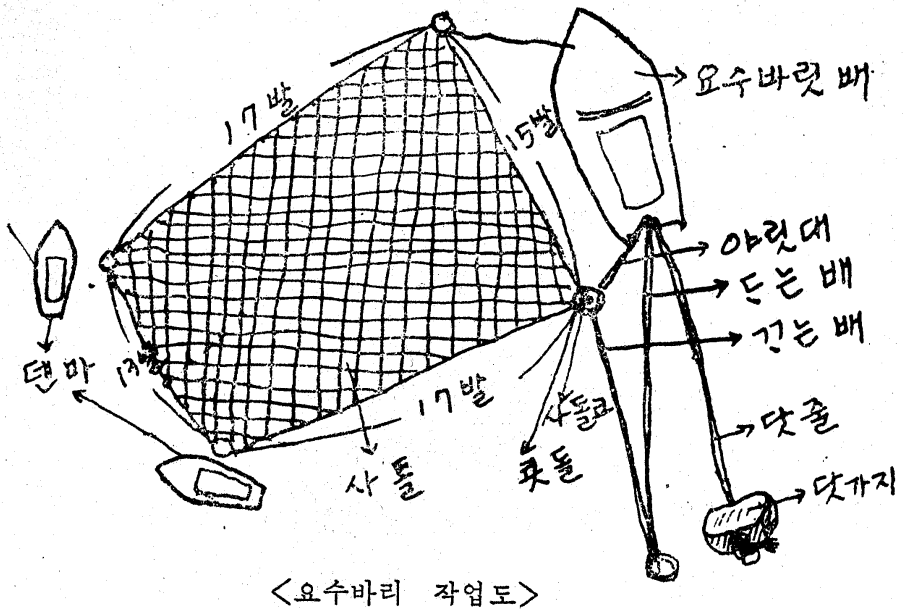
요수바릿배에 달린 기구명

사돌 : 자리를 잡는 그물. 길이가 40m~50m, 절수는 10절~11절 그물이고 펴지면 양쪽이 길고 가운데는 물속 깊이 잠겨져 그 모양이

「산태기」形으로 됨.

다까지 : 배의 「이물」과 「도모」에 各各 하나씩 있는 닻에 달린 갈고리. 닻가지.

도로웨(루롯꾸) : 그물을 끌어 올리기도 하고 바닷속으로 가라앉게 하는 기구. 호차.



<요수바리 작업도>

사돌 낸다 : 바다에 치었던 그물을 잡아당기다.

덴마 : 노의 힘으로 움직이게 하는 木造의 가장 작은 배. 母船에 曳引되어 操業場에 닿으면 2人씩 타서 그물을 끌고 가서 바다에 친다.

들었다 : 잡아당긴 그물을 「덴마」로부터 「자릿배」로 옮긴다.

야릿대(야롯대) : 길이 5 m 정도의 왕대로서 배의 앞뒤에 세워 그물을 잡아당길 때 소용되는 연장의 하나.

앞베리 : 「자릿배」와 「덴마」 사이를 있는 베리줄.

뒷베리 : 「덴마」와 「덴마」 사이를 있는 베리줄.

굿돌 : 바닷속에 그물이 가라앉게 베리줄에 달아맨 돌.

부롯꾸줄 : 그물이 가라앉게 잡아다리는 「ㄲ는배」 〈까는 배〉와 가라 앉은 그물을 잡아다리는 「ㄷ는배」 〈다는 배〉가 있음.

마루바리에 달린 기구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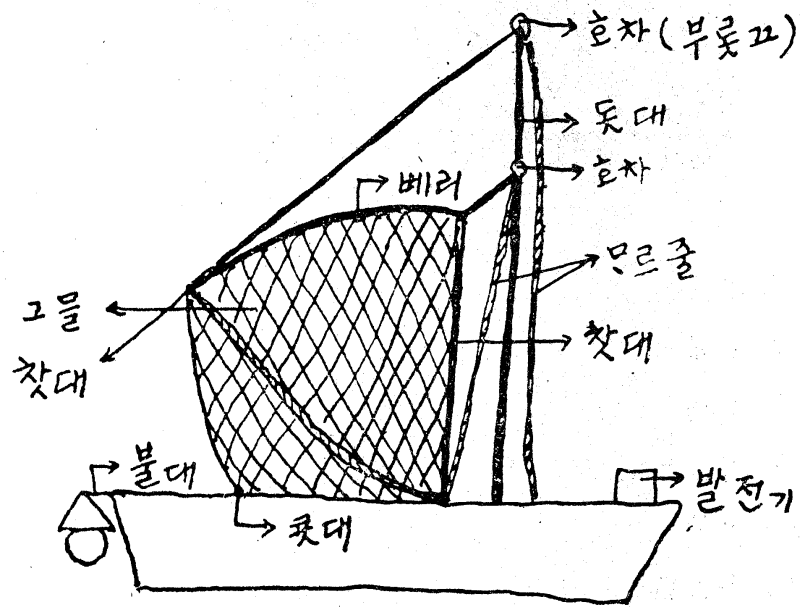
사돌 : 12절網. 종래 17발 길이의 그물을 使用하다가 現在는 거의 20발 길이를 쓰는데 바닷속에 치면 圓形으로 펴진다.

어음 : 왕대를 連結하고 굽혀서 둥글게 만들어 그물의 베리에 끼여진 것.

앞어음 : 앞에 있는 어음으로 길이가 2m~3m가 되며 쇠로 만든다.

뒷어음 : 뒷 부분에 있는 어음으로 왕대로 만든다.

콧돌 : 「요수바리」 기구의 「콧돌」과 같음.



<멸치잡이 배>

멸치 잡이의 기구명

멜(멜치) : 멸치.

멜배(멜치배) : 멸치를 잡는데 使用하는 3t~4t의 動力漁船.

불대 : 멸치가 빛을 보아 모이게끔 船体에 켠 등불.

찻대 : 대(竹)나 쇠로 만들고 길이는 6발~7발 가량 됨.

콧대 : 그물을 가라앉게 하는 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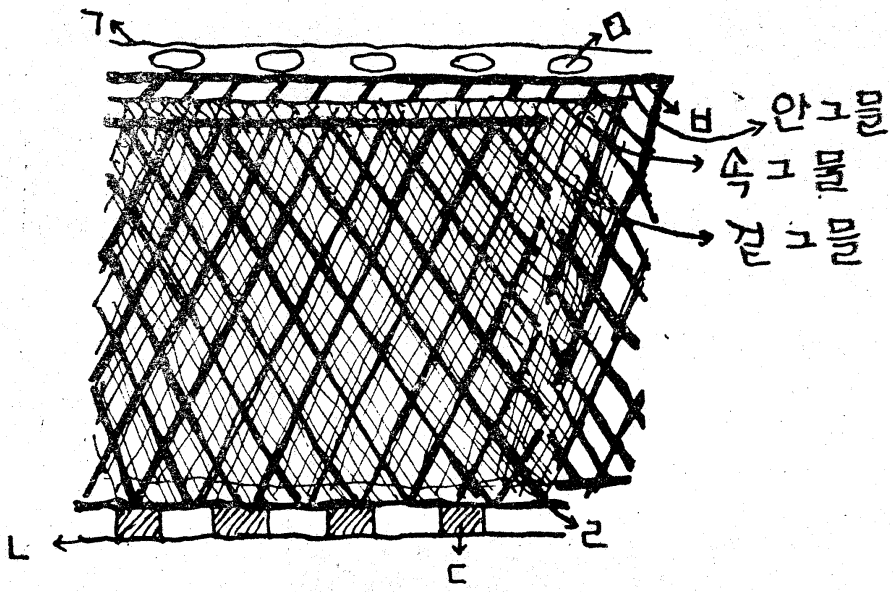
사돌 : 그물.

부롯꾸 : 호차.

삼중어망의 부속명

속구물 : 속에 있는 그물.

겉구물 : 그물 구멍이 속 그물보다 3~4배 크며 안과 바깥으로 겹쳐진다.



<삼 중 어 망>

① 웃베리
② 알베리
③ 툴쎄
④ 알오동노
⑤ 버구
⑥ 웃오동노

魚　　名

1) 북바리　　2) 다금바리　　3) 메누리돔
4) 구문쟁이　　5) 쿠리치　　6) 병치
7) 딴치　　8) 복쟁이　　9) 책감복쟁이
10) 똥복쟁이　　11) 눈갱이　　12) 어랭이
13) 심술어랭이　　14) 신착어랭이　　15) ᄀᆞ멩이
16) 술멩이　　17) 석쉬　　18) 조럭
19) 우럭　　20) 본지우럭　　21) 멜우럭
22) 방장우럭　　23) 아랏새미　　24) 돌우럭
25) 패감쟁이　　26) 서치　　27) 광어

28) 황조기　29) 백조기　30) 놀부
31) 장글래기　32) 물피기　33) 맹망탱이
34) 즈찐다리　35) 불락　36) 새랭이
37) 누루시　38) 메고드리　39) 가쓰
40) 시비　41) 멍챙이　42) 벤자리
43) 망치　44) 갓돔　45) 빗게
46) 도랭이　47) 개오리　48) 사위(사오)
49) 다꼬　50) 웽이　51) 감장웽이
52) 왕웽이　53) 아지　54) 막장모도리
55) 우금상어　56) 지름저위　57) 백서위
58) 죽　59) 가다리　60) 살치
61) 콥저리　62) 콥쭉주리　63) 손치
64) 놀치　65) 아고　66) 물치
67) 비근다리　68) 돔바리치　69) 남송애기
70) 물모도리　71) 소용치　72) 부리
73) 히라스　74) 야스　75) 고동베기
76) 방어　77) 물패기　78) 멕쉬
79) 구르치　80) 장걸래기　81) 짱어
82) 민치　83) 존다니　84) 물꾸럭
85) 돔　86) 가문돔　87) 갓돔
88) 옥돔　89) 미꾸레기　90) 붕장이
91) 돈물장이　92) 고등에　93) 잇까
94) 숭에　95) 멜　96) 자리
97) 갈치　98) 베드래기　99) 각제기
100) 코생이

貝　類　名

어금 : 조개

대어금 : 작은 조개

홍악뿌리 : 대합

고넹이방석 : 불가사리

구살 : 보라성게

솜 : 말똥성게

갈게수리 : 집갯지렁이

물게수리 : 갯지렁이

굴 : 굴

구제기 : 소라

보말 : 고동

수두리 : 고동의 一種으로 껍데기가 三角形으로 넓음

과메기 : 보통 크기의 고동

먹보말 : 둘레가 크고 길이가 짧은 고동

메옹이 : 껍데기가 울툭불툭하고 알맹이가 매운 고동

문데기 : 껍데기가 단단하고 소라 비슷한 고동

기들레기 : 껍데기 속에 빨간 게가 비슷한 알맹이가 있는 고동

맹지보말 : 솔방울고동

베말 : 바위에 붙어 사는데 모양은 원추형으로 검은 껍데기에 가운데가 나온 조개의 一種

춤베말 : 食用으로 하는 「베말」

베또롱베말 : 藥用으로 하는 「베말」

군벗 : 모양은 타원형으로 가운데는 단단한 껍질이 붙어 있고 바위나 돌에 붙어 산다.

물군번 : 살이 물렁물렁한 「군벗」

쉐군번 : 살이 단단한 「군벗」

말메주지 : 말미잘

Ⅱ 潮水 및 干滿語彙

陰 1日 일곱물	陰 2日 ᄋᆞ돕물
〃 3日 아홉물	〃 4日 열물
〃 5日 열ᄒᆞᆫ물	〃 6日 막물
〃 7日 아끈조금	〃 8日 한조금
〃 9日 분할	〃10日 ᄒᆞᆫ물
〃11日 두물	〃12日 세물
〃13日 네물	〃14日 다섯물
〃15日 ᄋᆞ섯물	〃16日 일곱물
〃17日 ᄋᆞ덥물	〃18日 아홉물
〃19日 열물	〃20日 열ᄒᆞᆫ물
〃21日 막물	〃22日 아끈조금(조근조금)
〃23日 한조금	〃24日 분할
〃25日 ᄒᆞᆫ물	〃26日 두물
〃27日 세물	〃28日 네물
〃29日 다섯물	〃30日 ᄋᆞ섯물

※ 보름과 그믐을 ᄋᆞ섯물로 정하고 29日인 경우는 다섯물은 빼고 「ᄋᆞ섯물」이라 한다.

ᄌᆞᆺ쌔기 : 바닷물이 아주 나가버린 때.

반물쌔기 : 바닷물이 반쯤 나갔을 때.

춤들이 : 滿潮時를 일컬음.

초ᄉᆞᆯ물 : 바닷물이 나가기 시작할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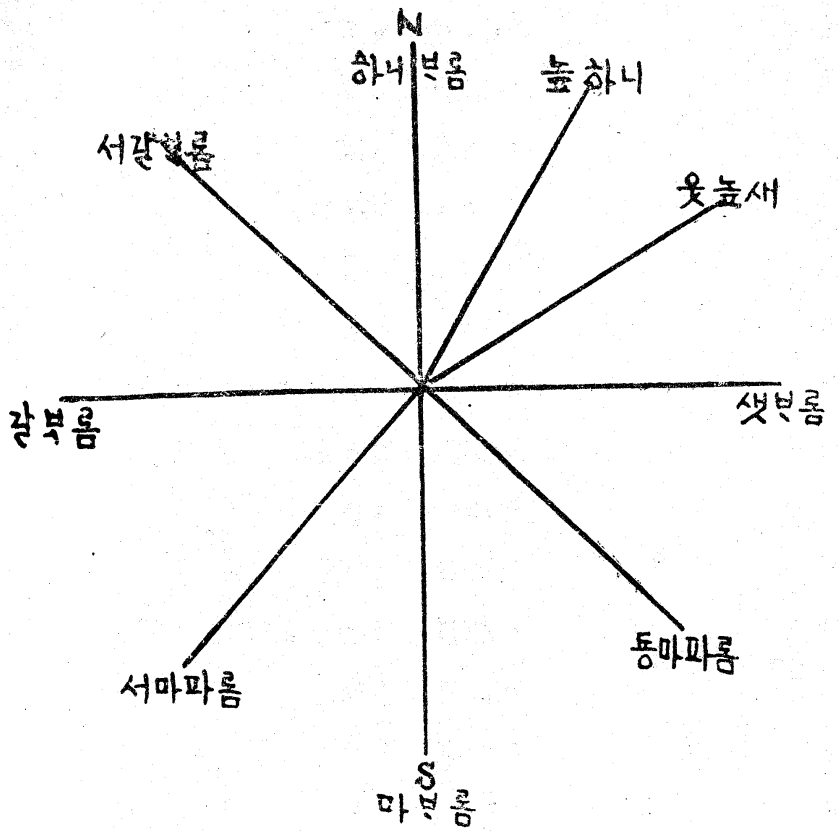
초들물 : 바닷물이 들어오기 시작할 때.

처시 : 밀물과 썰물이 交叉되는 곳.

물이 싸다. : 바닷물이 나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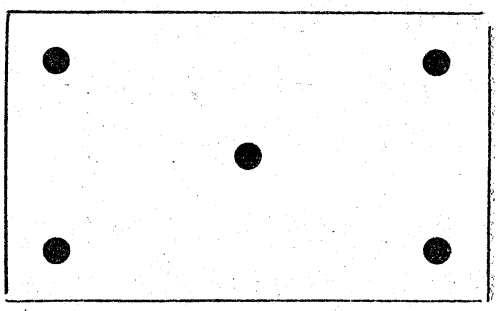
물이 들다 : 바닷물이 밀어 들어 오다.

Ⅲ 風 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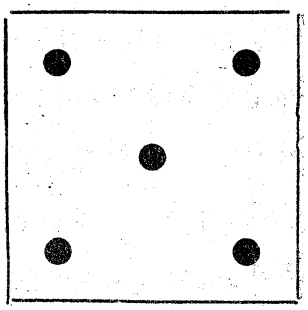
Ⅳ 飮食物(떡類)名

중괘 : 좁쌀가루나 메밀가루로 반죽을 하여 얄팍하게 밀어 가로 5 cm 세로 9cm의 長方形으로 잘라 기름에 튀기거나 그대로 삶은 떡. 기름이 떡에 잘 스며들게끔 다섯개의 구멍이 뚫여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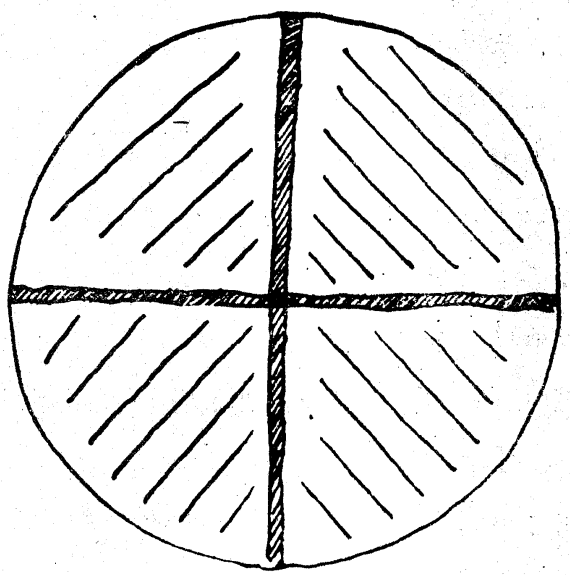
〈중 괘〉

양괘 : 좁쌀가루나 메밀가루를 材料로 하여 만들어진 떡으로 중괘와 비슷하나 正方形이다. 大小祥, 祭祀 等 모실 때에 만들어지는 떡으로 괴는 法은 중괘와 약괘를 各各 다른 기물에 7層~9層으로 괴되네모꼴 되게 한다.



〈약 괘〉

절밴 : 쌀가루의 반죽을 두툼하게 밀고 나무로 만든 圓形의 틀(型)로 눌러 삶은 떡.



<절 밴>

솔밴 : 쌀가루의 반죽을 두툼하게 밀고 半圓形의 나뭇틀(型)로 눌러 삶은 떡

새미떡 : 메밀가루의 반죽을 얄팍하게 밀고 보시기 따위를 엎어서 누르고 원형으로 잘라 낸 다음 「쉬」를 넣어 접어 삶은 떡

우찍 : 쌀가루나 메밀가루에 달걀을 까아 넣어 반죽하여 지진 떡

침떡 : 시루떡

조침떡 : 좁쌀가루를 시루에 담고 찐 떡

곤침떡(흰침떡) : 쌀가루를 시루에 담고 찐 떡

부름빵 : 빵, 大小祥 祭祀時 親知들이 扶助로 사가는 빵의 俗稱.

V 昆虫 및 其他

박주리 : 잠자리

왕박주리 : 잠자리의 一種

낭박주리 : 〃

쉐파리 : 하루사리

만축 : 메뚜기

심방만축 : 방가까비

주꾸리만축 : 메뚜기의 一種

큰만축 : 〃

담베곡제기 : 범아자비

박게 : 노리게

불란디 : 반디

쒸 : 서캐

주넹이 : 지네

밥도독 : 바퀴벌레

맹지바당 : 잔잔한 바다

ᄆᆞ시 간다 : 뭍에 가다. 加波里 사람들이 對岸인 摹瑟浦로 가는 것을 일컫는 말

그정 : 바위

숭개비 : 마늘

중실이 : 덩굴풀이나 칡줄기로 둥글게 엮어 만든 자잘한 雜物을 나르는 기구

돗통 : 돼지우리

돗통걸름 : 돼지우리에서 썩힌 거름

쉐앙 : 외양간

다강이 : 머리

마리섭 : 마라도

진것 : 蛇

地　　名

調査對象者
南濟州郡 大靜邑 加波里
최 덕 환 (女77才)　金 昌 福 (男47才)
이 전 택 (男35才)　金 昌 化 (男65才)

目　　次

Ⅰ 序
Ⅱ 海岸, 地名圖와 名稱分類
A. 地　　名
1) 接尾辭의 特徵
2) 解說 및 接尾辭의 分布
B. 地名 및 海岸圖
C. 海　岸　名
1) 接尾辭의 特徵
2) 解說과 接尾辭의 分布
Ⅲ 地名調査의 目的과 特性
Ⅳ 結

Ⅰ 序

地名이 땅이름이란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宇宙를 구성하고 있는 것들 하나 하나에 마다 그 나름대로의 이름들을 갖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땅이란 넓은 意味의 땅을 말하는 것으로써 海岸, 河川, 山岳 등의 地球의 地形을 통틀어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地形에 붙여진 이름들은 본래부터 어떤 이름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생활을 시작한 후에야 비로소 이름을 갖게 되는데

대개는 地形의 性質, 內容, 形態 등에 의해서 붙여지며, 그것은 位置나 所有 등을 나타내기 위해 필요한 때에 적당한 이름이 붙여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地名硏究에 의해 지난날의 住民들의 生活과 言語, 그 밖의 사회사건 등을 밝힐 수 있게 된다.

그러면 이런 이름들이 붙여지게 되는 몇 가지 조건들을 고려해 보기로 한다.

첫째는 形態面에서 나눌 수 있고,

둘째는 細部的인 內容面으로 나눠 볼 수 있다.

形態面이란 넓게 불리어 지고 있는, 즉 山, 海岸, 밭 등으로 되며, 內容面이란 주로 固有名詞로서 쓰이는 것으로서 地域性을 나타낸다.

여기서 밝히고자 하는 것은 지역성에 속하는 加波島의 地名에 대한 것들이다.

이 섬은 그리 크지 않은 面積을 所有하고 있기 때문에 範圍를 넓게 調査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土地名, 海岸名, 傳說에 쓰인 地名 등을 밝히는 것이다.

面積이 좁고 平坦한 이 섬에서는 河川이나 山岳 등이 없으므로 調査範圍가 적어질 수 밖에 없었다는 難点이 있었다.

Ⅱ 海岸, 地名圖와 名稱分類

A. 地 名

1) 接尾辭의 特徵

調査資料의 貧弱 때문에 뚜렷하게 나타낼 수 있는 特徵을 찾아 볼 수 없었다. 地名에 나타난 接尾辭의 種類는 8가지 있었고, 그 接尾辭 中에는 普通名詞인 것들이 大部分인 点으로 보아서 住民들의 思想面에서나 思考面에서 얼마나 純粹하고 素朴한가를 느끼게 했다. 그러면 接尾辭 중에서 몇 가지만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① "~깍" : 이 말은 元來가 "邊(가)"를 意味하는 말이다. 方言으로는 "ㅁ"

라고 하는데 이 말이 그 이름의 語根과 함께 불리워질 때에는 **硬音化** 現象이 일어나서 「까」라고 發音이 된다.

그러나 이 말은 순간적이나마 길게 發音이 되므로 그런 시간의 **浪費**를 막고, 또 듣는 사람의 負擔을 덜기 위해서 「깍」으로 發音하여 불리워진 듯하다.

② "~빌레" : 이 말은 純粹한 方言으로서 主로 農事를 짓지 못하는 곳을 말하는데 地形은 평탄하고 흙이 덮혀 있지만 밑에는 岩盤으로 깔려 있는 땅을 말한다.

2) 地名의 解說 및 接尾辭의 數

① 갬주리왕돌 : "갬주리"는 "개염주리"의 준말로 개미의 方言이다. 그 돌의 형태가 개미처럼 생긴 큰 돌이란 뜻이다.

② 큰통깍 : 큰 우물이 있는 곳을 말하는데 여기에 「통」도 우물을 말하는 것이다.

③ 물잡은목 : 말을 放牧했을 때 그 말들을 잡기 위해 몰았던 곳을 말한다. 여기에서(~목)이란 골목이란 말의 接尾辭와 마찬가지로 쓰인 것으로서 넓은 곳에서 차차 좁아지는 형태를 말한다.

④ 고냉이돌 : "고냉이"는 고양이의 方言으로 그 돌의 형태가 고양이를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⑤ 돈물깍 : "돈물"은 甘水를 나타내는 말로 사람이나 짐승들의 음료수로 사용할 수 있는 물을 말한다.

⑥ 물동산 : 물이 나는 곳의 주위 부분이 높기 때문이다.

⑦ 황개창 : 항개 서쪽에 있는 해안가이름인데, (~창)이란 方言에서 바닥을 나타내는 말로, 그 바닥이 누런흙으로 되어 있는 포구라는 뜻이다.

⑧ 짓단집밭 : 짓단이란 「제단」을 말하는 것으로 소박한 지역주민들이 자주 사용함에 있어 부르기 쉽게 변한 것이다. 또 그 밭에 집이 있어 마을祭를 지내는데, 그 집을 「짓단집」이라 하고 있다.

⑨ 메부리돌 : 그 돌 모양이 매(독수리의 일종)의 부리를 닮았다고 붙여진

이름이다.

⑩ 잉개구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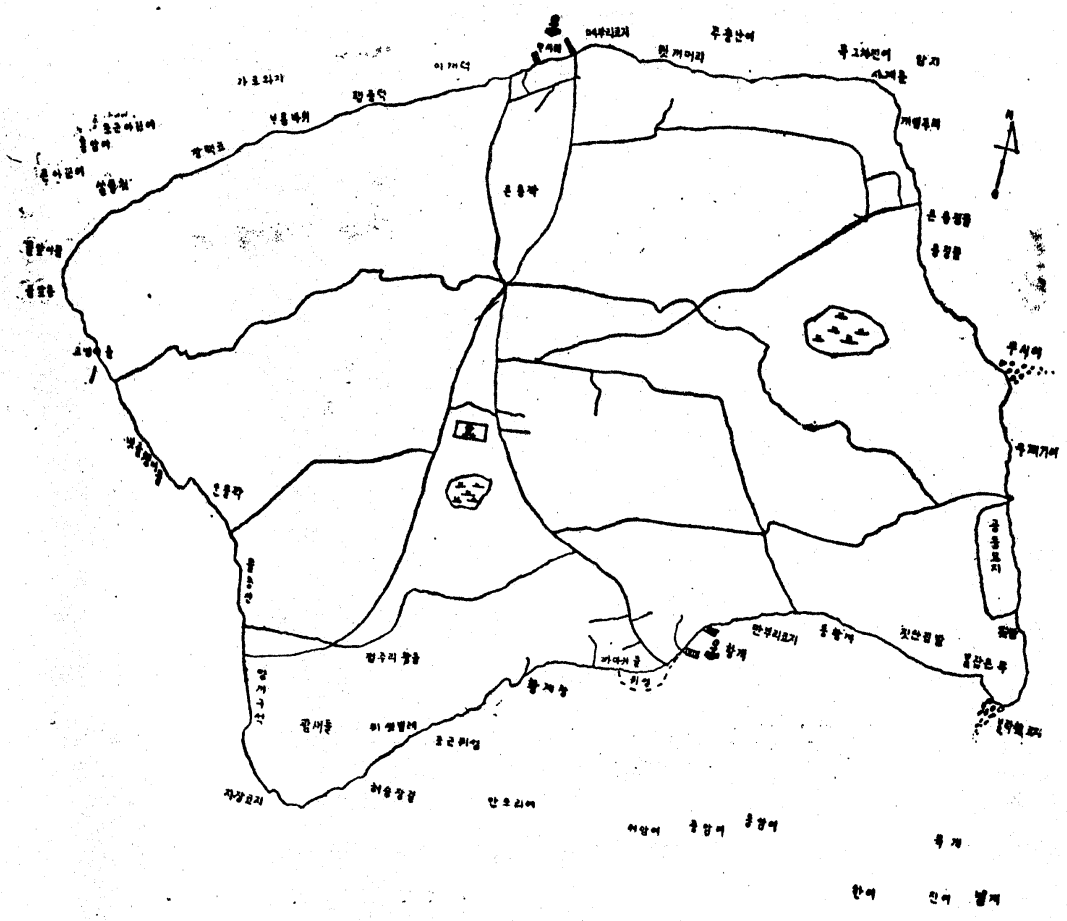
⑪ 뒤샛빌레 :

⑫ 뒤성 :

〈표 1〉 地名에서의 接尾辭의 分布

語尾種類	~돌	~깍	~성	~동산	~밭	~창	~구석	~빌레
數〔단위:개〕	3	2	1	1	1	1	1	1

B. 地名 및 海岸圖



C. 海 岸 名

1) 接尾辭의 特徵

海岸名이 (陸)地名보다 越等하게 많았으므로 自然히 接尾辭의 種類도 많았고 特別하게 쓰이고 있는 接尾辭들도 많았다.

海岸名에 나타난 接尾辭의 種類는 18가지가 있었고 分析하여 밝힐 수 있는 것들도 많았으나 不明確한 것들도 더러 있었다. 그러면 몇 가지의 特徵으로 될 수 있는 것을 들어 본다.

① —코지 : 陸地와 連結되어서 바다쪽으로 길게 뻗어 나간 곳을 이르는 말인데 바위들이 물 위에 나타나 있다.

② —여 : 이것은 "코지"와 비슷하긴 하지만 바닷물 속에 岩盤이 깔려 있는 곳을 말한다. 밀물일 때는 물속에 잠겨 있지만 썰물일 때는 물 위에 나타나기도 한다.

③ —덕 : 地名에서 밝혔던 "~깍"과 비슷한 意味를 갖고 있는 말이다. 이 말은 둘다 邊을 뜻하지만 "깍"은 이 쪽에서 저 쪽 끝을 나타내어,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거리감을 느끼게 하지만 「덕」은 주로 海岸에서 使用하는 말로서 陸地와 바닷물이 맞닿는 곳을 意味하는 것으로 一種의 境界感을 느끼게 한다. 그래서 海女들이 "뭍" 가까이서 潛水를 하는 것을 "ᄀᆞ물질"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ᄀᆞ"이라는 말과 거의 같은 뜻으로 쓰이고 있는 말이다.

2) 海岸名의 解說과 接尾辭의 分布

1. 불락첫코지 : "불락"이라면 고기名의 一種인 方言名으로 이런 고기가 많이 잡히는 코지이다.

2. 짓단앞 : "짓단"은 地名에서도 밝혔던 것처럼 祭壇을 말하는데 이것의 앞(前)쪽에 있는 海岸을 이르는 말이다.

3. 구재기여 : "구재기"는 "소라"의 方言인데 소라가 많이 잡히는 곳이라고 해서 이러한 이름이 붙여졌다.

4. 두시여

5. 웅징물

6. 큰웅징물 : "웅징"이란 "웅징이"이의 준말인데 이 말은 조그만 "바가지"를 뜻하는 方言이다. 그래서 海岸가에 "바가지"처럼 움푹 패인 곳에서 물이 나온다고 해서 이 처럼 불려진다. 위에서 두 개로 나눈 것은 크고 작은 것을 區分한 것이다.

7. 개염주리코지 : 地名에서 밝혔던 곳에서 바로 앞쪽에있는 海岸이다.

8. 사계돌 : 이 말은 다른 말로 "어멍 아방돌"이라고 불리워지고 있고, 돌의 형태가 一種의 夫婦를 聯想케 한다고 해서 이 처럼 불려진다.

9. 목그차진여 : "그차지다"란 말은 "끊어지다" 또는 "斷切되다"는 뜻의 方言인데 "여"가 길게 뻗어나가다가 마치 목이 끊어진 것처럼 됐다고 해서 지워진 이름이다.

10. 암지

11. 주충난여 : "주충"이란 海草류의 一種인데 海女들이 이것을 採取해서 거름을 만들기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海草類가 많이 나는 "여"를 가리키는 말이다.

12. 뒷개머리 : 글자 그대로 뒤쪽에 있는 포구의 머리(앞) 부분을 가리키는 말이다.

13. ᄆᆞ시리 : 옛날 이 섬에서 길렀던 말(馬)을 이 浦口에서 배로 실어 날랐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한다.

14. 이개덕 : 加波島의 上洞 포구 근처에 있는 곳이다. 옛날에 이(李)씨가 所有하고 있던 해안가라고 하는데서 붙여진 이름이다.

15. 매부리코지 : 地名에서 밝혔던 "매부리돌"이 있는 코지를 말함이다.

16. 팽풍덕 : 海岸가에 있는 바위가 마치 "평풍"처럼 펼쳐 있는 것 같이 보였기 때문에 이 처럼 불려지고 있고, 다른 說로는 이 곳에서 바다에 대한 祭를 지냈다고 한다. (祭는 6月에 지냈다고 한다.)

17. 가로와지

18. ᄇᆞ롬바위 : 이 바위는 이 地域住民들이 神聖하게 여기는 곳인데, 이 바위에 올라가거나 걸터 앉기만 해도 暴風이 일고 날씨가 나빠진다고 해서 이런 이름이 붙여졌다.

19. 장택코

20. 큰 아끈여

21. 조근 아끈여 : "아끈"이란 "한"의 반대 意味로 "한"은 큰 것을 나타내고 "아끈"은 작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 처럼 작은 것에서도 서로 區別하기 위해 이렇게 불리고 있다.

22. 홍암여

23. 쏠물첫

24. 물앞이물 : 물이 나는 곳에서 바로 앞쪽에 位置한 海岸을 말한다.

25. 물앞토

26. 냇골챙이물 : "골챙이"라면 길 양쪽에 下水溝처럼 조그맣게 패어져 있는 도랑을 意味하는 方言인데 이런 도랑물이 해안가로 흘러가서 닿는 곳을 말하는 것이다.

27. 자장코지 : "진코지"라고도 한다. 이것은 진코지 보다도 더 길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28. 허승장걸

29. 안도리여

30. 까마귀돌 : 이것 역시 神聖하게 여기는 바위로서 "ᄇᆞ롬바위" 처럼 暴風을 일으킨다고 하며 생김새도 까마귀가 앉아 있는 것 같다.

31. 뒤성빌레 : 뒤성 옆쪽에 있는 곳으로 주위에 있는 땅이 "빌레"로 되어있다.

32. 서암여

33. 중암여

34. 동암여 : "암여"는 마을 앞쪽에 있는 "여"이다. 이 말을 소리나는 데로 표기 했기 때문에 "암여"로 발음되고 東쪽, 中央部近. 西쪽 部近의 方

向을 나타낸 것이다.

35. 한여 : "한"이라면 方言으로 "크다"는 뜻이다. 그래서 名稱 그대로 "큰 여"를 가리켜 이른 말이다.

36. 넙개 : "개"는 갯벌이라는 뜻인데 이 밀은 넓은 갯벌이 있는 곳이다.

37. 독개 :

38. 진여 : "진"이라면 "길다"의 뜻이다. 진은 "긴"의 口蓋音化現象이고, 또 "친여"는 말 그대로 "긴여"를 뜻하는 말이다.

39. 서우여 : 서우는 "새우"를 뜻한다. 그래서 "여"의 形態가 새우처럼 꾸부러져 있다고 해서 이 처럼 불리워지고 있다.

40. 항개 : 加波島의 現在 使用되는 부두(포구)를 가리켜 이르는 말이다. 여기서 "항"은 "한"의 發音上의 變化라고도 할 수 있을 듯하다. "한"은 크다는 뜻이므로 "큰 포구"라는 뜻이다. "한개"라고 하는 것보다 "항개"라고 하는 것이 發音上 自由스럽기 때문이다.

41. 만부리코지

42. 동항개 : 現在의 부두(포구)에서 東쪽에 있는 海岸이다.

〈표2〉 **海岸名에서의 接尾辭의 分布**

接尾辭種類	~와지	~여	~코지	~물	~덕	~앞	~돌	~(암)지	~줄이
數	17	14	3	4	2	2	2	1	1

接尾辭種類	~(개)머리	~시리	~바위	~코	~첫	~토	~(장)걸	~빌레	~개
數	1	1	1	1	1	1	1	1	1

Ⅲ 地名調査의 目的과 特性

어떠한 學問이든지 그 學問을 研究하고 調査하는데는 어떠한 目的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정해진 目的下에 調査를 하고 分類를 하여 研究해

보면 그것에 對한 特性도 알 수 있는 것이다.

우선 이런 地名을 調査하는 目的을 2가지로 나눠 본다.

첫째, 語學的인 面을 들 수 있다.

이것은 이름을 붙이는데 使用된 語根과 接尾辭를 分析하고 統計를 내보며 그 接尾辭가 어떠한 형태로 使用되었는가를 語學的인 面에서 研究하는 것이다.

둘째, 民俗學的인 面을 들 수 있다.

이것 역시 接尾辭가 어떤 形態로 붙여졌는가를 研究하되 그 붙여진 接尾辭가 어떠한 事物이나 事件을 基準으로 하여 識別하고 있는가를 調査研究하며 또 이렇게 하여 붙여진 이름들이 그 地域 住民들의 生活과 어떤 關係가 있는지를 民俗學的으로 研究하는 것이다.

이 처럼 앞에서 分類한 名稱을 通해서 島民들이 地名이나 海岸名을 붙이는 方式과 또 分類할 때 무엇에 關心을 두고 識別基準을 삼고 있는 가를 알아본다.

海岸名에서만 보더라도 42개의 名稱 중에서 18개의 接尾辭의 종류가 있는 것을 보면 海岸名稱 種類가 多樣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名稱에는 普通名詞를 그대로 複合시켜 이름을 만들었기 때문에 原語 그대로의 의미가 뚜렷한 것이 많다. 그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구재기여", "주충난여". "ᄇᆞᄅᆞᆷ바위". "괭풍덕". "매부리코지". "고냉이돌". "서우여". "냇골챙이물". 등이 이에 該當하는 것들이다. 이런 이름들은 自然物, 動物 또는 그들의 生産物 여부에 따라서 이름이 붙여졌던 것이다.

〈表 3〉 海岸名이 붙게된 動機에 의한 分類

名稱對象	自然物	生産物	傳說	其他
數(단위 : 개)	32	3	6	7

〔단, 傳說은 自然物과 혼합되는 것도 있음〕

이처럼 아무 꺼리낌 없이 이름을 붙였다는 것과 어떤 것에도 구속받지 않고 單純하게 그러한 이름을 使用했다는 것은 住民들의 性格이 素朴했던 때문이고,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自然物에 對한 이름이 많았다는 것은 住民들의 生産手段이 海岸을 주로 利用했다는 점을 엿볼 수가 있다. 그러기 때문에 바다의 自然的인 影響에 두려움을 느끼기도 했을 것이고 警戒心을 불러 일으키기 위해서 自然物에 의한 이름이 많았으리라고 생각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自然物에 대한 이름도 大部分이 海岸가를 爲主로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특이하다고 하는 점은 즉, 地域的인 特色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名稱에 使用된 語根과 接尾辭가 주로 純粹한 우리말로 되어 있다는 것이다. 아주 극히 漢字말이 없지는 않았지만 주로 方言으로 使用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 밖에도 正確하게 語形分析이나 그 元來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자세하게 調査할 수 있는 것도 있었지만 그런데로 調査研究할 價値는 있다고 본다. 앞에서도 밝혔듯이 그 地域住民들이 開放的인 性格을 띄고 있다는 것인데 自然的 環境 때문에 警戒를 하긴 하지만 그들 生活이 그런 環境과 條件에 알맞게 對處를 할 수 있는 心情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다른 地域의 사람들에게는 그런 이름들이 理解되지 못할 것을 考慮해 보지도 않고 이름을 붙여서 그들만이 서로 通할 수 있게 했던 것이다. 이처럼 單純하기는 하지만 民俗學的으로는 研究對象이 될 수 있는 것들이 많은 것이다.

Ⅳ 結

以上을 通해서 加波島의 地名에 對한 調査內容을 밝혔다.

여기에는 微微한 点들이 많이 있기는 하겠으나 우리 地名 調査班은 최선을 다했다고 다짐하고 싶다. 앞에서도 밝힌 바와같이 名稱分類에 있어서 地名과 海岸名중에 海岸名이 훨씬 많았었는데 이 처럼 海岸名이 많은

理由와 特徵을 몇 가지로 나눠서 단적으로 들어본다.

첫째, 그들 生産手段이 陸地보다 바다에 의존하는 實情이다.

둘째, 바다에 의한 自然的인 災害가 많기 때문에 언제나 바다를 警戒하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 交通手段이 海上을 利用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처럼 地名에 對한 調査分析만 해보더라도 그 名稱을 使用하는 住民들의 生活方式이나 性格등을 알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地域의 本質的인 性格과 住民의 生活史 등을 究明하기 위해서도 地名調査研究가 必要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說　　話

目　　次

Ⅰ 加波島傳說의 槪觀과 特色
Ⅱ 加波島 開耕入住
Ⅲ 人物에 관한 傳說
1〉 金遇石 2〉 金漢貞
3〉 金成文 4〉 金成淑
5〉 風雲兒 羅升大
Ⅳ 地名에 關한 傳說
1〉 무시리
2〉 물 잡은 목
3〉 가마귀돌과 큰돌
4〉 성제섬과 쌍둥이
5〉 폐왓, 임조왓, 조배기왓
6〉 짓단집
7〉 갬주리리왓
Ⅴ 外國船漂着記
Ⅵ 처녀본향당
Ⅶ 江南鬼神이야기
Ⅸ 이태보와 등불 든 鬼神
Ⅸ 烽　　火
Ⅹ 動, 植物에 關한 傳說
1〉 꿩이 없는 馬羅島
2〉 나무 없는 馬羅島

Ⅰ 加波島 傳說의 槪觀과 特色

「加波島」라 하면 그 事實的 關係는 있던 없던 「하멜漂流記」로 通稱되는 「蘭船濟州島難破記」를 聯想하지 않을 수 없다.

「하멜」(Hamel, Hendrik)은 네델란드의 船員으로서 1953年 1月, 네델란드를 出發하여 바타비아(Batavia) 臺灣을 거쳐 日本 나가사끼(長崎)로 航海中 暴風으로 破船되어 그 一行과 함께 濟州島에 漂着. 1654年

5月 서울로 압송되었고, 1665年 3月 全羅南道 鵲川兵營에 감금되었다가 1666年 9月「하멜」이하 8명이 脫出하여 1668年 7月 歸國하였던 것이다.

뒤에 그는 억류기간 14年의 기록인「蘭船濟州島難破記」(Narrative of Hollandes Wrecked at Quelpart)를 쓴 것인데, 그 難破된 섬의 이름을 Quelpart라고 하였으니 이 Quelpart란「加波島」를 뜻하는 것이요, 이래서「하멜」은 加波島에서 難破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음도 首肯할 수 있는 일이다.

金錫翼編「耽羅紀年」에도 孝宗 4年條에 다음과 같은 記錄이 보인다.

是歲和蘭國人哈梅兒漂到州境至十二年乃還

여기 孝宗 4年이란 西紀 1653年이 되므로 前記「蘭船濟州島難破記」와 符合된다. 다만「耽羅紀年」의 記錄에도「漂到州境」이라고만 하였지 그「漂到州境」이「加波島」란 記錄은 없다.

그리고 그 難破記에 나오는 地形地勢도 加波島가 아님을 알 수 있다.

前年度 牛島學術調査를 한바 있거니와 이 섬 住民의 歷史도 牛島처럼 얕다.

「耽羅紀年」에는 다시 英祖 26年條에

"設黑牛場於加波島放牛五十首以備進貢"이라 記錄되어 있고, 淡水契編「耽羅誌」에도 防禦使 鄭彦儒 때에「黑牛場을 加波島에 設하야 牛五十을 放하야서 進貢에 備하다」하였으니, 이들 記錄으로 본다면 英祖 26年이 되는 1750年에 이 加波島가 비로소 進貢用黑牛 放牧場으로 濟州島의 歷史에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後 1840年 憲宗 6年 庚子秋 9月에는 英艦 1艘가 火砲로 위협하며 加波島에 來泊하고 牛畜을 掠去하여갔다는 記錄이 前揭「耽羅紀年」이나「耽羅誌」에 아울러 보이고,「耽羅紀年」에는 그 2年 後인 1842年인 憲宗 8年 壬寅條에

許民入耕于牛島及加波島先是放馬于牛島放牛加波島以備進貢至是啓請并

驅出之放于附近牧場令民入墾納稅于司僕寺」

라 記錄되어 있고, 淡水契編「耽羅誌」에도 同年

牛島와 加波島에 入耕을 許하고 稅金을 司僕寺에 納付케 하다.

라고 있으니 憲宗 8年 壬寅이란 1842年 이래서 이 해는 牛島와 加波島가 同時에 入耕이 許諾된 해가 된다.

前年 牛島學術調査를 해보고 그 섬은 住民의 歷史가 오래지 않기 때문에 傳承되어 내려오는 傳說도 그다지 많지 않고, 또 있다 하드라도 100年以內의 傳說들이었다고 結論하였거니와 加波島 亦是 牛島와 마찬가지로 傳說의 風土가 이룩되어 있지 않고, 이러한 風土에 씨앗 뿌려지고 成長해 온 傳說들이란 量으로도 퍽 적었을 뿐 아니라 大体로 斷片的임을 免치 못하고 있다.

그러나 加波島란 果然 韓國 最南端의 섬 濟州島에서도 다시 最南端으로 튀어나간 그야말로 섬의 섬이라, 섬 特有의 傳說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섬이었기에 「하멜漂流記」가 아니어도 外國船 漂到의 이야기가 많았고, 海岸가의 岩石에 對한 俗信的 傳說, 그리고 馬羅島「처녀본향당」에 얽혀 남아 있는 애절한 이야기들 그 大部分이 섬의 섬으로서 風波와 싸우면서 살아온 住民生活의 反映이 아닌 것이 없다.

外船 難破의 이야기가 많음에 反하여 倭寇와의 關係가 적었음은 牛島와는 對照的이다.

여기 發表하는 傳說 以外에도 採錄된 資料는 훨씬 많았으나 本島(濟州島)의 이야기와 큰 差를 發見할 수 없는 것은 割愛하기로 하였다. 최덕산(77세) 할머니가 들려주신 「조충비 이야기」는 그 줄거리가 本島의 「세경본풀이」와 大同小異하였으나 내용이 많이 부연되어 있어서 收錄하고 싶었음에도 分量 關係로 割愛하게 되었음을 附記하여 둔다.

Ⅱ 加波島 開耕入住

本是 이 섬에는 사람이 살지 않더니 英祖 26年(西紀 1751年)에 濟州牧使 鄭彦儒가 朝廷進上用 黑牛 50頭를 放牧하여 오다가 그 100年도 못가서 憲宗 6年(1840)에 英國艦船이 來襲하여 畜牛를 掠奪逃走以後로는 牧場은 廢場되고 이어 2年 뒤인 憲宗 8年에 朝廷의 許可를 받고 開耕入住할 때 上·下摹里居住者 姜氏, 梁氏, 羅氏, 金氏, 李氏, 鄭氏, 文氏 其他를 합쳐 33人이 入住하였다.

入住할 때 馬羅島에는 나무가 무성하였지만 牧場이었던 加波島에는 나무가 하나도 없었다.

開耕入住時 이 섬에는 소(牛)들이 있었는데 그 소들은 들소(野牛)가 되어 있어서 暴惡하여 사람에게 危害를 加하기 때문에 모두 없애버렸다고 한다.

〈傳承者 金昌化 (男·65)〉

Ⅲ 人物에 關한 傳說

1) 金 遇 石

金 遇石은 加波島 開拓에 功이 많은 사람이다.

그는 어려서 濟州市에서 漢學을 공부할 때 그 才能이 뛰어나 同僚들이 그를 잘 따랐으며 成長하여서는 風采가 좋고 人格이 出衆하였기 때문에 官家에서도 그를 늘 윗자리로 모셨다고 한다.

1886年(丙戌) 어느날 日本人 吉村與三郎이 壯丁들을 이끌고 이 섬에 入島하였다.

이 때 金 遇石은 加波島의 區長으로 있을 때였다.

이 때 加波島 島民들은 吉村一行의 入島를 反對하고 이에 對抗하려고 할 때 金 遇石은 單身 그들의 배에 들어가 그들 入島의 眞意를 알아내고 돌아와 島民들의 反對를 무릅쓰고 一部 加波島民들을 說得하여 그들의 入

島를 許諾하고 住民들의 쌀을 모아 그들의 食糧을 대어주는 등 친절히 도와주었다.

그들은 이 섬에 들어와 定着하게 되었는데 住民들에게 潛水器業을 처음 普及시켰다.

이것이 우리나라 最初의 潛水器業이 되었다.

이 때 日本人 吉村은 加波島住民들을 배에 태워 漁業을 하면서 日本을 구경시켜주기도 하였으며 日本 長崎縣에 가서 고구마씨(種甘)를 가져다가 加波島에 심으니 마을사람들이 이를 神奇하게 여겨 많이 栽培하게 되었다.

加波島民들은 金 遇石이 先見之明이 있음을 알고 그를 잘 따랐다. 그는 農民들이 일을 하는데도 適當한 休息이 必要함을 强調하면서 加波島民生活의 어려움을 精神的인 餘裕를 가지고 克服하도록 力說하였으며 住民들의 精神的 支柱가 되었던 人物이다.

〈傳承者 羅奉萬 (男·68)〉

2) 金 漢貞

金 漢貞의 本貫은 慶州이다.

그는 일찌기 漢文을 배워 學問이 깊었으며 新學問은 獨學으로 하여 一家를 이루었다.

加波島 初有의 教育機關이며 現在 加波國民學校의 母体인 辛酉義塾이 金 成淑등에 依하여 創設되자 教員으로 推戴되어 八年間을 加波島民의 訓學에 盡力하였다.

뜻을 세우면 初志一貫, 이를 貫徹하였으며 청렴결백하기로 有名하여 加波島民이 잘 따랐다고 한다.

加波島에서는 미역을 採取하는데는 時期를 定해서 採取하되 그 미역이 成長時에는 이를 保護하고 따지를 못한다.

이래도 暗採者가 있으므로 〈해포감〉을 두어 이를 監視하면서 保護하고 있었다.

그런데 하루는 金 漢貞이 朝飯床을 받고 보니 새 미역이 밥상위에 올라 있었다.

이 때는 解禁이 안된 때였다.

婦人에게 어디서 난 미역이냐고 물었더니 바닷가에 나갔다가 보이길래 조금 따온것이라고 하였다.

그러자 金 漢貞은 "온 마을이 禁하고 있는 이 때 어찌 이를 따온다는 말이냐"고 꾸짖고 밥상을 내던져 버렸다.

그의 婦人은 크게 뉘우치고 용서를 빌었는데 이 事實이 온 마을에 전해지자 그의 곧고 결백함을 더욱 일컫게 되고 住民들은 그의 말이라면 더욱 잘 따랐다고 한다.

그는 항상 率先垂範하였다.

하루는 葬事에 役軍으로 나갔다가 다른 일이 생겨 어디 갔다와 보니 일이 늦어지고 있는데 상두꾼들은 놀고 있었다.

이 때 金 漢貞이 지게를 지고 나서자 모두들 일어서서 순식간에 일을 마칠 수 있었다고 한다.

〈傳承者 金昌化 (男 · 65)〉

3) 金 成文

金 成文은 馬羅島 出身의 潛水夫로서 東洋第一의 머구리로 일컬어졌다고 한다.

潛水를 하게 되면 60여질 以上 또는 100미터 以上 잠수를 하였다고 한다.

露日戰爭이 끝나고 日本 對馬島 근처에는 戰爭때 沈沒된 軍艦들이 많이 있었다.

그것을 끌어내는 作業을 〈궁깡아게〉(軍艦上)라고 하였거니와 金 成文은 이 作業을 하는데 남의 몇 배의 능률을 올렸기 때문에 크게 환영을 받으면서 從事하였다.

그러다가 실수하여 죽었다고 한다. 〈傳承者 姜泰榮 (男 · 40)〉

4) 金 成淑

金 成淑氏는 現在 生存해 있는 人物이다.

加波島에서 태어나 이 섬의 文化的인 向上에 힘을 쏟아 이 섬 最初의 新教育機關을 創設하였고 政黨의 당수, 國會議員에까지 당선되었던 人物이다.

그는 이 나라 最南端인 섬의 섬 加波島에서 태어났지만 青雲의 뜻을 품고 徽文學校를 卒業하고 돌아와 鄕土의 開發을 爲하여 教育事業에 投身하였다.

그는 먼저 大靜普通學校附設學校를 摹瑟浦에 세운 바도 있지만 1921年 辛酉年에 加波島 人才를 養成함을 目的으로 現加波國民學校의 母体인 辛酉義塾을 創設하였다.

그는 辛酉義塾을 創設하여 스스로 교편을 잡아 3年동안 加波島民 訓學에 힘썼으며 큰 뜻을 품고 渡日 早稻田大學에 入學할 때까지 辛酉義塾을 不動의 土臺 위에 올려놓고 濟州市에서 훌륭한 教員을 초빙하여 義塾을 맡겨놓고 渡日한 것이다.

早稻田大學을 마친 다음에는 日帝에 抗拒하여 民族의 獨立運動에 힘을 쓰다가 解放이 되자 政界에 投身 당시의 野黨인 韓國社會黨의 黨首로도 活躍한 바 있으며 第五代 民議員選擧時에는 野黨으로 立候補하여 與黨立候補者를 물리치고 國會議員으로 당선되기도 하였었다.

選擧時 加波里民으로서는 4票를 除外하고는 全有權者가 그를 支持하였던 것으로 보아 加波島民들에게는 그가 얼마나 偉大한 存在였는가를 짐작케 해주는 좋은 例이다.

그의 조카인 故 金 泰能氏는 濟州島史研究의 第一人者로서 先史時代以來의 島史를 밝히는데 큰 功勳을 남긴 人物로서 竝記해둘만 하다.

〈傳承者 金昌化 (男 · 65)〉

5) 風雲兒 羅 升大

加波島住民 가운데는 濟州에서도 極히 稀姓인 羅氏들이 살고 있다.

이 羅氏는 이 섬 開耕當時 33人中에 끼어 入島한 것이니 이 섬의 居住가 벌써 3·4代가 되고 있다.

이 羅氏祖上 濟州落鄕의 歷史는 벌써 12代가 되었다고 한다.

濟州落鄕의 複雜한 裏面에는 風雲兒 羅 升大의 行蹟이 큰 比重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羅 升大의 兄은 朝廷에서 信任을 받고 戶籍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羅 升大만은 革命的 思想을 갖고 있다고 해서 朝廷에서는 危險人物로 指目하고 있었다.

羅 升大가 이렇듯 革命的 思想을 가지고 한 때 逆賊으로 몰리게 된 연유에는 여러가지 傳說的 에피소드가 따르고 있다.

羅 升大 할아버지가 집을 지을 때에 그 집터가 風水說에 따르면 龍의 머리에 해당되는 곳이었기 때문에 升大에 와서 그 영향이 나타나서 性格이 늘 발딱거려서 집에 가만히 앉지를 못하고 東西로 뛰어다녔다는 것이다.

그리고 升大가 逆賊으로 몰린 뒤에 그 祖上의 墓를 파 보았더니 그 할아버지의 身体가 큰 소가 되어 무릎을 꿇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 소가 무릎을 세웠으면 벌써 羅氏는 왕이 되었을 것이라는 말도 있다.

어쨋든 이와같은 이야기들은 羅氏家門이 無事太平한 것이 아니었다는 反證이기도 하다.

兄은 朝廷에서 戶籍을 차지하고 있는데 동생 升大는 浪人이었다.

그러면서도 升大는 소름이 끼치는 엉뚱한 생각을 갖고 있었다.

升大가 서울로 올라갈 때에는 까마귀들은 「나 逆賊 올라 간다. 나 逆賊 올라 간다」하며 울어대었다고 한다.

升大가 서울로 올라가면, 兄은 늘 내려가라고 타일렀다.

그러나 升大는 兄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兄을 괴롭혔다.

하루는 兄이 내려가라는 꾸지람을 못들은 체 짐짓 방으로 들어설 때에 兄은 방석을 마당으로 내던지면서 당장 내려가라고 꾸짖은 일도 있다.

兄이 내려가라고 간곡히 부탁하여 升大가 내려올 때에는 까마귀들은 「羅政丞 내려 온다. 羅政丞 내려 온다」하며 울어 대었다 한다.

朝政에서 벼슬을 받고 왕에게 忠誠을 다하고 있는 兄과 浪人生活을 하면서 氣高萬丈하여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는 동생 升大와의 사이는 和合될 수가 없었다.

兄은 동생에게 戶籍을 바꾸라고 꾸짖었다.

이래서 升大의 後孫은 〈門안 羅氏〉 그 兄의 後孫은 〈門밖 羅氏〉라고 하였다.

升大가 집을 지을 때 運數를 問占한 일이 있었는데 점장이 하는 말이 「옷고름을 길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한 일이 있었다고 한다. 升大가 逆賊으로 몰렸을 때 조정에서 升大를 잡으러 升大집을 찾았다.

그 때 升大는 天井으로 올라가 숨었는데 대들보 밑으로 옷고름이 내려왔기 때문에 發見되어 잡혔다는 것이다.

이러한 複雜한 事實들로 하여 兄 곧 「門밖 羅氏」의 子孫이 濟州島로 귀향을 왔는데 濟州島에 와서는 主로 大靜에 살았다.

이 大靜에 살던 羅氏 後孫이 加波島에 入島하여 現在까지 4代에 이르고 있다는 것이다.

〈傳承者 羅奉萬 (男·68)〉

Ⅳ 地名에 關한 傳說

1) ᄆᆞ 시 리

〈ᄆᆞ시리〉라고 하는 곳은 加波島 北方 海岸에 面한 浦口로서 加波島와 摹瑟浦를 잇는 最初의 浦口요, 最短距離의 浦口이다.

〈ᄆᆞ시리〉는 港口로서의 條件이 그다지 좋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은 加波島 남쪽 바닷가로 面한 下洞의 〈항개〉 浦口가 加波島의 關門으로 되어 있는 實情이다.

이 〈ᄆᆞ시리〉浦口를 一名 〈馬載浦〉라고도 한다.

〈ᄆᆞ시리〉를 〈말을 실은〉으로 解釋하여 이 뜻의 漢字를 갖다 놓은 것이다.

〈ᄆᆞ시리〉가 「馬載」라고 하면 이 浦口에서 말(馬)을 실어내었다고 하겠는데 歷史的으로 볼 때 加波島에서는 소를 친 일은 있어도 말을 친 일은 없었다고 한다.

그러므로 이 浦口에서 말을 실어내었기 때문에 馬載浦라고 하였다는 말에는 自信있게 말하는 사람이 없다.

한편 다음과 같은 이야기도 있다.

한 100餘年 前에 日本軍 輸送船이 近海를 지나다가 좌초하게 되니 배에 실었던 軍糧米와 軍馬들을 加波島에 퍼내렸다가 뒤에 本國에 連絡이 닿아 다른 배가 와서 그 軍馬를 이 浦口에서 실어내는 作業이 구경할만 했다고 하는데 이래서 이 浦口가 〈ᄆᆞ시리〉浦口로 불리우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 섬 出身인 史學家 金 泰能氏는 〈ᄆᆞ시리〉란 말이 蒙古語에서 온 名稱이 아니냐고 말하고 있다.

〈傳承者 趙才文(男·66)〉

2) 물잡은 목

〈물잡은 목〉은 加波島 東南바닷가에 있는데 入口만 除外하고는 四方으로 屛風巖이 둘려 있어서 특이한 風致를 이루고 있다.

이 〈물잡은 목〉이란 名稱은 〈말을 죽였던 곳〉이란 뜻에서 생긴 이름이라고 하고 있지만 歷史的으로 볼 때 加波島에서는 말을 飼育했다는 말이 없다.

이 〈물잡은 목〉이란 地名의 成立은 〈ᄆᆞ시리〉 浦口와 相關이 있다.

이 〈물잡은 목〉은 〈말을 잡았던(죽였던) 좁은 목〉으로 해석하지 않고 〈몰아다가 잡았던 좁은 목〉으로 해석하는 古老들이 있다는 것이다.

역시 軍糧米와 軍馬를 싣고 가던 輸送船이 近海를 지나다가 좌초되어 몇 달동안 이 섬에 있다가 本國에서 다른 배가 到着하여 말을 실어낼 때에 〈물잡은 목〉으로 몰아다가 잡아 실어내었다는 뜻으로 〈몰아잡은 목〉 즉

〈물잡은 목〉으로 되었다는 것이다.

〈傳承者 羅奉萬 (男 · 68) 〉

3) 「가마귀돌」과 「큰돌」

加波島 東南쪽 海岸에 〈가마귀돌〉이라는 큰 岩石이 있다.

이 바위위에 사람이 오르면 바다가 세어진다고 한다.

74年 8月에 濟州海運局에서 와서 이 海岸에 대하여 標識를 할 필요가 있어 四方 몇 군데에 하얀 페인트를 칠한 일이 있는데 이 때 海運局職員이 이 〈가마귀돌〉에 올라간 일이 있었다.

그로부터 3일 후에 颱風이 불었다. 海運局職員들은 떠난 뒤였기에 無事하였지만 加波島에서는 漁船이 뒤집히고 농작물이 海風에 말라 죽는 등 많은 被害를 주었다고 한다.

加波島 西北쪽 〈아끈여〉란 바닷가에 큰 바윗돌이 우뚝 서 있는데 이 바윗돌을 〈큰돌〉 (大石 一名 왕돌)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 돌도 〈가마귀돌〉과 마찬가지로 여기에 사람이 오르면 큰 바람이 분다고 한다.

오래 前에 陸地에서 이 섬을 찾아왔던 학생들이 이 〈왕돌〉위에 오른 일이 있는데 돌연히 날씨가 거칠어지고 파도가 일어 배가 뒤집힌 일이 있다고 한다.

그러기 때문에 加波島에서는 큰 바람이 불고 바다가 거칠어지면 〈가마귀돌〉이나 〈왕돌〉에 「누가 올라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고 한다.

4) 성제섬(兄弟島)과 쌍둥이

安德面의 성제섬의 보이는 곳에서는 쌍둥이가 많이 난다고 한다.

그 이유는 〈성제섬〉이 쌍둥이처럼 나란히 둘이 있기 때문에 항상 성제섬을 보면서 살아온 부인들은 쌍둥이를 낳게 된다고 한다.

〈傳承者 金昌化 (男 · 65) 〉

5) 폐왓, 임조왓, ᄌᆞ배기왓

倭政時代 前에 加波島에 큰 凶年이 들었다.

그들에게는 돈이 있어도 食糧을 살 수가 없었다.

住民들은 하는 수 없이 바다에서 나는 톳 비슷한 〈폐〉와, 밭에서 나는 〈물릇〉으로 죽을 쑤어 먹고 연명해 나갔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폐〉와 〈물릇〉마저 바닥이 나서 求할 수가 없게 되었다.

그래서 이 마을에 사는 한 住民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게 되자, 자기 土地 일곱말지기와 폐죽 한 사발과 바꾸어 먹고 죽음을 면했다고 한다.

지금도 加波島 住民들은 이 땅을 폐죽 한 사발과 바꾸었다고 해서 〈폐왓〉이라고 한다.

또한 〈임조왓〉이라는 밭이 있는데 이 밭은 깻묵과 바꾸었다고 해서 임조(깻묵)밭이라고 傳한다.

또한 摹瑟浦에서도 흉년이 들어 먹을 것이 없어 10마지기의 土地를 주고 〈ᄌᆞ배기〉 한 사발과 바꾸어 먹었다고 해서 지금도 이 밭을 「ᄌᆞ배기왓」이라고 한다.

〈傳承者 金昌化 (男 · 65) 〉

6) 짓 단 집

짓단집은 下洞浦口 東쪽에 있는데 農事와 漁業을 잘 되게 하고 住民들의 安寧을 爲해서 一年에 한 번 씩 部落祭를 지냈던 곳이라고 한다.

제사는 대개 正月에 있었다고 한다. 짓단집 윗쪽에는 둥그렇고 편편한 돌이 있는데 그 돌을 祭床으로 삼아 돼지와 닭을 통채로 잡아 올린 다음 祭를 지내는데 이 部落에서 第一 學問이 뛰어나고 유식한 사람이 漢文으로 축을 써서 朗讀한 다음, 巫覡들이 神에게 祝願하는 儀式을 다 끝내면 제사에 使用했던 飮食들을 住民들이 골고루 나누어 먹는다.

짓단집에서 제사에 使用할 음식을 제사전에 먹어버리면 神이 怒하여 그 사람에게 罰을 주었다고 한다.

數 十年 前에 加波里長이 짓단집에서 祭를 지낼려고 살찌고 큰 수탉 한 마리를 사가지고 왔다.

그런데 里長 아들이 아버지가 사온 수탉을 보니 자기집에 있는 닭보다 매우 커 보였다.

里長 아들은 아버지가 사온 수탉에 욕심이 생긴 나머지 제물로 쓸려고 사온 수탉은 잡아먹어 버리고 자기집에 있는 닭을 잡아 祭物로 올렸다.

제사가 끝나는 날 里長 아들은 온 몸이 아프기 시작하더니 한참 後에는 半身不髓가 되어 버렸다.

이 일을 당한 里長은 하도 겁이 나서 다음날 아침에는 돼지와 닭을 잡아서 다시 제사를 지냈더니 里長 아들의 病은 씻은 듯이 나았다고 한다.

〈傳承者 金昌福 (男·47)〉

7) 갬주리코지

갬주리코지는 加波島 동쪽에 있는데, 그 모양이 父母 앞에 아들이 꿇려 엎드려 人事하는 모양으로 생겼는데 절하는 아들모양이 孝子로 보였기 때문에 가파도 사람들은 이 갬주리코지에 와서 빌면 훌륭한 아들을 낳는다고 해서 지금도 아이 밴 女人들은 이 갬주리코지에 와서 빈다고 한다.

〈傳承者 金昌福 (男·47)〉

Ⅴ 外國船漂着

「하멜漂流記」에 보면 「하멜」이 航海中 風波를 만나 漂流해온 곳이 〈켈파트〉라고 되어 있으므로 그 곳이 加波島를 뜻하는 것이 아니냐는 問題와 더불어 濟州島民 가운데는 하멜이 漂流해온 곳이 加波島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도 하나 그 漂流記의 內容에 보이는 地理的 환경 人間의 生活등을 檢討해 볼 때 그 流記에 나오는 記錄은 加波島가 아니고 本道 安德面 大

坪里, 또는 和順里가 아니었던가 하는 推定을 可能케 한다.

그러면 加波島에는 外國船漂着이 없었는가?

調査한 結果「하멜漂流記」가 아니라도 外國船漂着의 이야기는 意外로 많다.

그것은 加波島, 馬羅島가 차지하는 地理的 환경의 特殊性에서 오는 것이겠지만 이러한 이야기들은 모두가 斷片的인 이야기여서 哀惜함을 禁할 수가 없다.

A. 지금으로부터 約 80年 前에 加波島의 東南쪽에 자그만 배(傳馬船)가 接近해 오다가 암초에 걸려 움직일 수가 없었다.

그들은 하는 수 없이 물로 뛰어들어 헤엄쳐 나왔는데 衣服은 전부〈발레바지〉를 입고 있었다.

〈발레바지〉라고 함은 洋服을 가리키는 말이다. 우리의 옷과는 달리 아래옷인 바지가 유다른 것이어서 당시 住民들은 이 바지를〈발레바지〉라고 불렀다.

加波島民은 그들을 部落에 오지 못하도록 하고 海岸가에 살도록 보리를 모아 갖다주었는데 몇 달이 지난 뒤에 本國에서 배가 와서 그들을 싣고 갔다고 한다.

〈傳承者 金大鍾 (男·)〉

B. 憲宗 6年(庚子 1840年) 12月에 英國船舶 2척이 來泊하여 畜牛를 多數 砲殺하여 싣고 달아나 버렸다.

1835年 英祖26年에 濟州牧使 鄭彦儒란 사람이 朝廷에 進上하기 爲하여 加波島에 牧場을 설치하고 黑牛 50頭를 放牧하여 왔는데 英國船舶에 依한 畜牛砲殺事件으로 牛牧場은 廢하고 그 二年後인 憲宗 8年 壬寅年에 開耕許可를 받고 入耕하였다는 記錄이 加波島沿革에도 보인다.

(加波島沿革記)

C. 淸日戰爭 당시 日本軍 輸送船이 加波島 앞 한여(암초)에 걸려 좌초가 되었는데 그 수송선에는 多量의 軍糧과 軍馬가 실려 있었고 군인도 1,000餘名이나 되었다.

이래서 모두 加波島에 上陸하게 되었다. 그 後 얼마 없어서 日本에서 軍艦이 와서 싣고 갔는데 그 군인들은 中國으로 가서 모두 다 죽었다고 한다.

加波島 歷史上 이 섬에 畜牛는 길러 왔지만 말을 飼育한 일이 있다는 記錄은 없는데 地名으로〈ᄆᆞ시리浦口〉(馬載浦) 〈ᄆᆞᆯ잡은 목〉등이 남아 있는 것은 그 〈ᄆᆞ시리〉나 〈ᄆᆞᆯ잡은 목〉이 다〈ᄆᆞᆯ〉곧 〈말(馬)〉을 뜻하는 것이라면 이 輸送船坐礁事件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解釋되어지고 있다.

〈傳承者 姜泰榮 (男 · 40) 〉

D. 加波島 南쪽에 〈뒤성〉이라는 곳이 있다.

바위로 둘러져 城처럼 생겼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約 50年 前에 〈뒤城〉에서 日本軍艦이 難破하여 船員은 거의다 죽다가 火夫 한 사람이 九死一生으로 살아났다.

몇 달 뒤에 日本에서 艦船을 보내어 難破된 배를 分解作業하여 실어 갔고 살아남은 火夫도 데리고 갔다.

〈傳承者 金昌化 (男 · 56) 〉

E. 西紀 1886年 日本人 潛水器業者 吉村與三郎一行이 入島 定着하였다.

이 吉村一行의 潛水器業者들은 各處를 돌아다니며 海產物이 豊富한 곳을 찾고 있었는데 加波島에 당도하고 보니, 이 섬에서는 전복을 따면 껍질은 바닷가에 던져두고 여물만 가져가니 그 전복껍질은 바닷가에 산더미를 이루고 있었다.

이렇게 전복이 豊富한 것을 본 吉村一行은 潛水器船 12척을 가지고 들어와 軍隊式으로 四方에 분배하여 전복을 잡으니 어떻게 많이 잡았는지

그들이 따서 버려진 전복똥이 썩어가는 냄새가 온 섬을 덮었다고 한다.

〈傳承者 金昌化 (男 65)〉

F. 가파도 동쪽에 물위로 솟아난 岩石이 하나 있는데 〈독개〉라고 불리운다.

섬사람이 하루는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다가 이 〈독개〉에 키가 크고 풋대가 큰 사람이 우뚝서있는 것을 發見하였다.

그 다음날 이 섬에 西洋사람들이 들어왔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는데 그 사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다.

이 이야기는 급기야 조정에까지 알려졌다.

「事實을 알아서 장개하여 올리라」 하는 지시가 조정에서 濟州牧使에게 내려왔다.

가파도에서는 이 事實을 누구가 가서 어떻게 답변을 하면 좋을지 몰라 야단법석이 났다.

마을 下人인 黃씨가 있다가 내가 나가서 답변을 하겠다고 나섰다.

濟州牧에 黃씨가 나가자 質問이 始作되었다.

濟州牧使가 「네 눈으로 그 키 크고 코 큰 사람을 보았느냐?」고 물으니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읍니다.」 이렇게 대답하였다.

그러자 다시 「그 사람은 지금 어디 있느냐?」고 물으니 그 물음에 대한 黃씨의 대답은 또렷또렷하면서도 奇想天外의 것이었다.

「그 놈 불잡고 메어다치자 했는데 그놈은 가마귀돌(가파도에 있는 岩石名)만 씩, 우리 큰 년 미역새 메어난 돌 만 씩 나가버립더이다.」

牧使가 가만히 이 말을 듣고 보니 묻는 말에 대한 시원한 대답은 못되나 黃씨의 담력있고 침착한 대답을 보고, 이 問題는 西洋人이 도주한 것으로 처리하여 조정에 보고를 하였다.

뒤에 이 黃씨에 대해서 그 담력을 칭찬하고 別監까지 내려주었다고 한다.

〈傳承者 姜泰榮 (男 · 40)〉

Ⅵ 처녀본향당

마라도의 北쪽 바닷가에 面해 있는 높은 언덕위에 본향당이 하나 있는데 이 곳에서는 이 당을 〈처녀본향단〉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 본향당에 모시고 있는 본향신은 이 섬에서 죽은 처녀라고 하는데 이 본향당에는 다음과 같은 애절한 연기설화가 깃들고 있다.

마라도에 아직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을 때는 바다가 어떻게 豊盛하였던지 점복과 소라가 無盡藏있었다.

이래서 가파도에서는 勿論, 멀리 摹瑟浦에서도 잠수들이 많이 다녔다.

오래 前에 初겨울 어느 날 모슬포에서 많은 잠수들이 배에다가 식량을 싣고 마라도에 들어 갔었는데, 날씨가 여러날 세어서 作業할 수 없었다.

게다가 식량도 다 떨어져서 큰 걱정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上潛嫂가 이상한 꿈을 꾸었는데 그 內容은 이 섬을 떠날 때에 다 떠나지 말고 애기업개를 떨어 놔두고 이 섬을 떠나야 한다는 것이다.

잠수들이 이 섬에 올 때, 애기업개 비바리를 하나 데리고 왔는데 그 애기업개를 섬에 버리고 떠나야 배는 無事히 건너갈 수 있으며,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는 배가 중도에서 破船되어 모두가 고기밥이 된다는 것이다.

이런 꿈을 꾼 上潛嫂는 꿈의 內容을 같이 온 여러 잠수에게 말하였다. (一說에는 뱃사공도 이런 꿈을 꾸었다고 한다.)

여러 잠수와 사공까지도 다 의견이 돌았다.

이 아이를 데리고 가다가는 우리가 다 죽으니 차라리 이 애기업개를 犧牲시키는 수 밖에 없다고 의견이 一致를 보았다.

갑자기 날씨가 좋았다.

모든 잠수들이 마라도를 떠나려고 바닷가로 몰려 왔다.

떠날 준비가 다 되어서 배에 올라 탔다.

배를 탈 때 보니까 높은 바위 위에 흰 헝겊이 하나 버려져 있음을 발견

하게 되었다.

모든 잠수들의 눈에도 똑똑히 볼 수 있는 바위 위에 흰 헝겊이 있는 것이다.

上潛嫂가 애기업개에게 「달려가서 저 기저귀를 가져오라!」 이렇게 말했다.

計略을 모르는 애기업개는 기저귀가 있는 바위를 향해 뛰어나가자 배는 닻을 걷어올리고 서서히 움직이기 始作했다.

애기업개 처녀가 달려왔을 때에는 배는 이미 멀리 떠난 이후였다.

배는 때마침 불어오는 東南風을 타고 멀리멀리 摹瑟浦쪽으로 사라져 가는 것이었다.

배에서 뒤를 돌아 보면 애기업개처녀는 그 섬에서 끝까지 손을 흔들며 울부짖고 발버둥치는 모습이 잠수들의 눈에 보였던 것이다.

거칠고 험악했던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되었다.

다시 摹瑟浦 잠수들이 作業하러 마라도에 가보니 애기업개 처녀가 울며 발버둥쳤던 자리에는 흰 뼈만 앙상하게 남아 있었다.

그래서 잠수들은 자기들 때문에 犧牲당한 애기업개 처녀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 처녀당을 짓고 1年에 한번씩 당제를 지낸다고 한다.

이 처녀본향당에서 빌면 어린아이들을 잘 保護해 준다고 한다.

〈傳承者 최덕환 (女·77)〉

Ⅶ 江南鬼神 이야기

數十年 前에 김 병오씨(生存) 父親은 里長과 함께 加波島 동쪽 바닷가에 〈불락〉을 낚으러 갔다.

里長은 한참동안 앉았으나 고기가 한 마리도 물리지 않는데 김씨 부친은 고기가 계속 잡힌다.

한 마리도 낚지 못한 里長은 화가 나서 김씨 부친에게 집에 돌아 가자고 권했으나 김씨 부친은 고기가 예상외로 잘 물려 재미있던 차라, 집에 돌아

갈 생각이 전혀 없었다.

할 수 없이 里長은 김씨 부친만 남겨 놓고 집에 돌아와 버렸다.

한편 김 병오씨 부친은 그 자리에서 계속 고기를 낚았다.

김씨의 낚시 技術이 좋아서 그런지 아니면 運數가 좋아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저녁 8시경이 되자 고기가 광주리에 가득 채워졌다.

그는「이럴줄 알았으면 광주리도 두서너개 더 가져 올걸」하는 후회도 있었으나 가져온 광주리가 찼기 때문에 더 낚아봐야 고기를 담을 그릇이 없으므로 미련을 남기면서 일어섰다.

바로 그 순간 바다물속에서 사람같이 생긴 시커먼 物体가 튀어 나오면서「나는 강남체시인데 짓단집에 와보니 내가 먹을 음식이 조금도 없어서 배가 고픈데 너를 잡아 먹어야겠다」고 말하면서 김씨에게 덤벼든다.

그 당시 김씨는 한창 젊은 나이였으나 하도 겁이 난지라 陸地로 달아나기 시작했다.

그러자 강남체시는 재빨리 김씨의 등을 잡고는 바다로 끌어 갈려고 했다.

김씨는 죽을 힘을 내어 강남체시를 뿌리치니 김씨의 옷이 찢어졌다.

이렇게 김씨는 陸地로 도망갈려고, 강남체시는 김씨를 바다로 끌어 갈려고 애쓰니 이들은 自然히 바닷가에서 쫓고 쫓기우는 그야말로 生과 死를 걸어놓고 처참한 난투극을 벌인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새벽닭이 울기까지 계속되니 도망칠 가망이 없다고 생각한 김씨는 도망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서 강남체시한테 덤벼들어 치고 받고 했다.

그야말로 고양이 앞에 쫓기던 쥐가 막다른 골목에 이르자 고양이 앞에 덤벼드는 格이다.

한편 이 마을에 사는 고 성학이라는 사람이 아침 일찍 일어나 便所에 갈려고 마당에 나와서 왕돌(가파도에 있는 大石)이 있는 쪽을 바라보니 어떤 사람이 高聲을 지르면서 왕돌에다가 주먹과 머리로 미친 사람처럼 치고 있었다. 高氏는 이상하다 생각하고는 격투하고 있는 곳을 찾아 갔더

니, 金氏가 혼신의 힘을 다 내고 왕돌에다가 주먹질하고 있었는데 온몸은 피투성이가 되어 유혈이 낭자했는데도 미친 사람처럼 날뛰고 있었다.

고씨는 좋은 말로 김씨를 달래서 김씨집으로 데려다 눕힌 다음, 메(밥)를 지어 놓고 門前에 祭를 지냈다.

제사가 끝나자 누웠던 김씨가 갑자기 일어서면서 주먹을 들어 자기의 얼굴을 때리니 눈이 움퍽 들어가고 七孔에서 피가 쏟아지면서 그 자리에서 그냥 죽어버렸다.

지금도 加波島民들은 강남체시가 김씨를 데려갔다고 말하고 있다.

〈傳承者 金昌福 (男·47)〉

Ⅷ 이 태보와 등불든 귀신

옛날 加波島上洞에 이태보란 사람이 살았는데 밤낚시를 매우 좋아 했다.

오늘도 그는 平常時와 마찬가지로 밤 3시 쯤에 일어나 낚시도구를 갖추고 바닷가로 가는데 앞에 어떤 사람이 등불을 들고 가는 것이 보였다.

그 등불든 사람은 이태보를 向해 돌아서면서 「당신이 가파도에서 기운이 가장 세다니 나와 씨름을 한판 해 보겠느냐?」 하고 말을 건넸다.

그 당시 이 태보는 한창 나이인 30세로 마을에서도 힘이 가장 세기로 이름이 나 있었다.

이 태보는 자기의 힘을 한번 보여주리라 생각하고 등불든 사람의 도전을 받아들였다.

둘은 바닷가 모래밭에서 서로 맞붙었다.

이 태보는 재빨리 등불든 사람을 넘어뜨린 후, 得意滿面하여 등불든 사람에게 「당신이 나에게 졌소」라고 말하자 그는 빙긋 웃고는 이 태보에게 다시 덤벼든다.

이 태보는 다시 등불든 사람을 넘어뜨렸다.

상대방은 또다시 일어나 빙긋 웃으며 덤벼든다

이런 상태가 여러번 반복되니 오히려 이 태보가 기진맥진해 버렸다.

이번에는 아까와는 달리 등불든 사람이 이태보를 잡아 매붙인다.

이 태보는 죽을 상이 되었다.

온 몸에 유혈이 낭자하고 氣力은 다 떨어져 죽음에 임한 그는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야겠다고 생각한 나머지 돌맹이를 집어 들고 상대방을 연속 때리고 치고 했으나 상대방은 맞지 않고 요리저리 피하기만 했다.

이렇게 2時間 餘를 등불든 사람과 싸우다 지친 이 태보는 그 자리에서 氣絶해 버리고 말았다.

잠시 後 이 태보가 깨어나자 새벽닭 우는 소리가 들렸다.

앞을 바라보니 등불든 사람은 보이지 않고 등불 하나만 보이는데 이 등불이 20여개로 分散되면서 「꽝」하고 폭발하는 소리와 함께 등불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다.

이 소리에 놀란 이 태보는 귀가 멀어지고 半身不髓가 되어 버렸다고 傳한다.

〈傳承者 金昌福 (男·47)〉

Ⅸ 烽　　火

우리나라 最南端에 位置한 마라도는 陸地와의 交通이 매우 不便해서 지금도 不定期船이 15日에 한번쯤 다녀가는 정도이다.

더구나 民家가 20餘戶 밖에 되지 않고 電話도 없어 住民들의 生活의 不便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그래서 옛날 交通手段이 없을 때 馬羅島 住民들은 急한 일이 發生했을 때는 가파도와의 連絡手段으로 烽火를 使用했다고 한다.

烽火는 주로 해질 무렵에 올렸다. 보릿대에 불을 붙여 煙氣로써 가파도에 알리는데 식량이나 물이 不足할 경우와 患者가 생겼을 때는 烽火를 하나 올리고, 식량이나 물이 다 떨어지고 患者가 危急한 때는 烽火를 두개 올리고, 사람이 죽었을 때는 셋을 올렸다.

가파도에서는 이 烽火를 보고 즉시 알았다는 信號로 烽火를 올린 다음 배를 마라도로 보낸다.

그런데 馬羅島에서 烽火올리는 場所가 家門마다 틀리기 때문에 가파도에서 볼 때 어느 집에서 烽火를 올리는지 알 수가 있어 그 가까운 친척이 배를 마라도로 보냈었다고 한다.

〈傳承者 金昌化 (男 · 65) 〉

X 動·植物에 關한 傳說

1) 꿩이 없는 가파도

가파도에는 꿩이 棲息하고 있지 않다.

꿩은 十里周圍가 되지 못하면 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렇게 좁은 地域에서는 곧 잡히기 때문이다.

가파도에는 숲이 없기 때문에 꿩은 물론 족제비도 살지 않는다고 한다.

〈傳承者 (金昌琪 男) 〉

2) 나무없는 馬羅島

馬羅島에는 現在 나무가 별로 없다.

그러니 땔감으로는 소(牛)의 똥을 말려두었다가 使用하고 있다.

소의 똥을 땔감으로 使用할 때는 쇠똥을 그대로 주어다가 말리는 것이 아니라 손바닥으로 만두를 만들듯이 뭉쳐다가 편편이 눌러 보기좋게 손질한 다음에 말린다.

이렇게 나무가 없는 마라도에서는 땔감이 큰 問題로 되어 있지만 開耕當時에는 아름드리 나무가 무성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이 섬에는 뱀(蛇)이 많아서 사람이 定着하기에 매우 곤란했었다고 한다.

하는 수 없이 뱀을 없애기 爲해서 불을 질렀다.

불꽃은 충천하여 온 섬을 덮었고 그 많은 뱀들은 불에 타 죽기도 하고 一部는 바다로 뛰어들었다.

바다로 뛰어든 뱀들은 東으로 東으로 헤엄쳐가고 海流에 따라 흘러 정의의 토산귀신이 되었다.

이래서 지금도 馬羅島에는 나무와 뱀이 없다고 傳한다.

〈傳承者 趙才文(男·66)〉

信　　仰

目　　次

Ⅰ 宗 教 概 觀
1) 村 落 背 景
2) 概　　況
Ⅱ 部 落 信 仰
1) 儒式 · 部落祭
2) 巫式 部落祭
Ⅲ 家庭信仰 및 祖上崇拜 其他
Ⅳ 結　　語

Ⅰ 宗 教 概 觀

1) 村 落 背 景

加波島는 모슬포에서 3.5마일, 馬羅島에서 3마일에 위치한 濟州島의 一屬島로 西紀 1844年(憲宗 8年)에 濟州本島民이 移住하였다. 그 期間이 얼마 안되었으니만치, 文化的으로 濟州本島와 큰 差가 없겠고, 따라서 信仰面에서도 큰 差가 없을 것임은 곧 생각할 수 있다.

加波島는 東西가 1.2*km* 南北이 0.8*km*로 東西가 길고, 南北이 짧은 타원형의 섬이다.

宗教現象을 살피는 데 있어 特記할 만한 것은 天主教와 佛教信徒가 몇 있을 뿐 住民大多數가 無宗教라는 点이다. 그 소수인인 宗教信徒는 教會나 寺刹에 가려면 모슬포로 나가야만 한다. 왜냐면 가파도내에서는 教會나 寺刹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所謂 無宗教라는 住民들의 信仰을 보면 男女別의 二重構造를 볼 수 있다. 男性들은 儒教的 崇祖思想에서 嚴肅한 祭禮의 擧行을 通하여 그들의 宗教心性을 依支하고, 女性들은 이들 祭禮의 準備를 차려 行祭를 지켜보면서도 이에 充足하지 못하고 巫俗的 行事를 따라 하여 依支하고 있는 것이다.

男性들은 이 巫俗行事를 半信半疑的 態度로 女性들의 信仰行爲라 하여 默認 傍觀하고, 女性들은 儒教的 崇祖祭禮를 하는 한편 巫俗行事를 하면서도 心的 龜裂이 없이 마치 同根源의 것처럼 信仰하여 儀禮한다.

2. 概　　況

現在 濟州道內에서 宗教로서 公認되어 있는 것은 佛教, 天主教, 基督教, 水雲教 其他 新興宗教들인 바, 가파도내에는 이들 公認 宗教의 教會나 寺刹이 없다. 따라서 公認 宗教의 信徒가 極히 적은 것은 當然하다. 그래서 現在 204家口 가운데 公認宗教 信仰 家口는 數世帶 있을 뿐 도민의 大部分이 無宗教이다. 이 無宗教라는 것은 곧 民間信仰層이 된다.

도민의 主要 儀禮 行事들을 分類하면 크게 세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部落信仰的 儀禮이니, 部落民 全体가 部落民 全体의 福利를 爲하여 行하는 것으로서, 男性들은 儒式儀禮, 女性들은 巫俗儀禮를 行하고 있다.

둘은 家庭信仰的 儀禮이니, 家庭單位로 집안의 福利를 爲하여 行하는 것이다.

셋은 祖上崇拜的 儀禮이니, 이는 親族單位로 行하는 崇祖祭이다.

이 三類型의 信仰行事를 좀더 詳細히 기술함으로써 도민의 信仰實態 把握에 資하고자 한다.

Ⅱ 部 落 信 仰

部落民들이 部落民 全体의 福利를 爲하여 行하는 部落祭는 濟州本島와 마찬가지로 儒教式 祭法에 따라 行하는 것과 巫式의 굿으로 하는 것 두 가지가 있다.

1. 儒式 部落祭

1) 酺 祭

가파도내에서의 포제는 農酺祭와 春酺祭(正酺祭) 2가지가 있다.

① 祭 名:農酺祭, 春酺祭라 한다. 도내 他部落에서는 무을제, 동넷제 酺祭, 거릿제(街祭), 致誠祭 등 이름으로 부르는데, 이 마을에서는 祭儀의 目的인 豊農이라는 面을 그 祭名에 反映시키고 있다.

그러나 現在에는 農酺祭는 소멸되었고 春酺祭만이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② 祭 神: 島酺之神位라 해오다가 現在는 里酺之神位라 한다. 他部落의 경우는 酺神, 里社之神, 洞社之神, 土地之神 등 村落守護神的 機能의 神을 主對象神으로 하고, 거기에 染疾之神, 牧畜之神, 諸首任之神, 諸神 등 여러가지 機能의 神格과 怨魂을 副對象神으로 儀禮하고 있는데, 이 마을엔 里酺之神位를 對象神으로 하고 있다.

③ 祭 日: 農酺祭는 陰 7月, 조(粟) 播種을 끝내고 吉辰을 擇日하여 子時에 行한다.

春酺祭는 陰 正月의 丁日이나 亥日을 擇하여 子時에 行한다. 그리고 丁日에서 上丁日에 무슨 일이 있을 時는 中丁日, 末丁日順으로 延期하여 行하며 亥日도 마찬가지다.

④ 祭 場: 마을 東쪽에 있는 〈물잡은 목〉이라는 곳에 있는 祭壇에서 행한다 여기에는 祭壇집이 있고 정성하는 곳이라 하여 出入이 禁止된다.

⑤ 目 的: 農漁의 豊饒와 한발이 없기를 祝願하는 것이다. 그 內容은 다음 祝文에서 보기로 하겠다.

⑥ 祭儀管理:陰 섣달 그믐이나 正初에 里長이 公告를 通하여 〈상회〉(鄕會)를 召集하고, 거기에서 祭儀에 所要될 豫算의 規模, 祭官의 選出, 새해의 운영방침을 決定한다. 여기서 〈상회〉라 하면 마을總會를 말한다.

⑦ 祭 官: 道內 他部落과 마찬가지로 12祭官이다. 그것은 鄕校式과 같으니 다음과 같다.

獻官~里長이 된다.

禮次~前 里長이나 部落長 또는 有志가 되며 典司官 有故時 補佐한다.

典司官~祭物을 準備하고 祭器를 단속하는 것이 임무다.

執禮~司會라고 생각하면 된다.

大祝~祝을 告하는 사람이다.

이 外로 贊者, 謁者, 奉香, 奉爐, 奉爵, 司樽등 小祭官과 掌犧監이 있다. 掌犧監은 동네하인으로서 심부름꾼인데, 이를 대우하여 부른 것이다.

그리고 祭官이 될 수 없는 사람은 忌中인 사람이다. 祭前日에 祭官아 祭壇 옆에 있는 깨끗한 물로 전신목욕을 해야 한다

⑧ 謹 身: 入祭日(祭日 3日前)에 祭官들은 祭壇집에 모여 合宿하여 齊戒한다. 禁忌는 별로 없으나 시체, 뱀등을 보지 말아야 한다. 3日間은 환담, 고담으로 時間을 보내나 과음은 안된다.

⑨ 祭 費: 범위를 定해 部落共金으로 充當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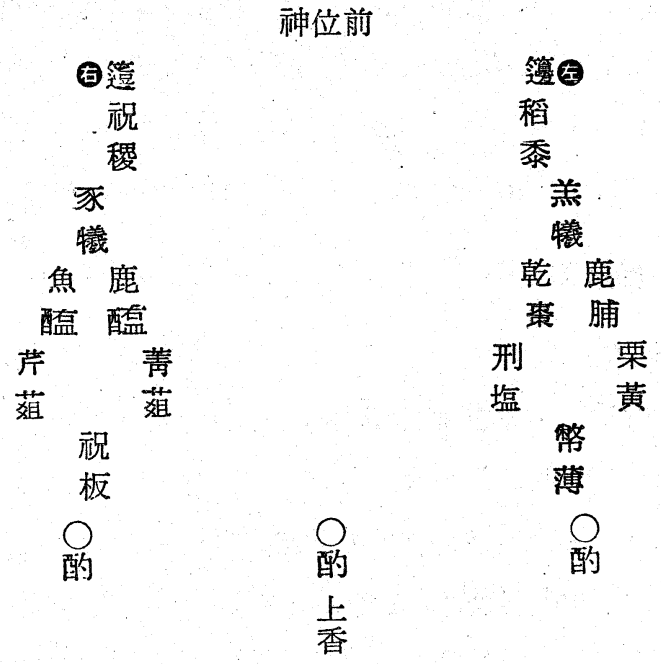
⑩ 祭 物: 豕犧(돼지 1마리), 羔犧이라 하여 염소나 그 대신 닭, 1마리(수컷이라야 함), 白米메 2器, 粟米메 2器, 幣帛(광목이나 무명 1필, 그리고 白紙 1권) 魚需(생선 1마리), 鹿醢(닭 내장으로 대용), 乾棗(대추, 밤), 刑塩(소금), 菁葅 1器, 芹葅 1器, 五果 1器, 醴酒, 祝板, 香, 毛血.

이들 祭物中 멧밥을 除外하면 모두 날 것으로 올린다.

⑪ 祭 次: 陳設(표1 참조)이 끝나고 祭時인 子時가 되면 祭官들이 拜位에 들어서 執禮가 부르는 笏記에 따라 鄕校의 釋奠祭 지내듯이 行祭한다. 笏記는 다음과 같다.

謁者引祝及諸執事 入就壇前拜位，西上北向立 四拜，祝以下皆四拜，興，平身，引詣盥洗位，各就位，謁者引獻官入就位，北上西向立，謁者進獻官之左．白，有司謹俱請行事． 四拜，獻官及在位者皆四拜．興 平身． 行奠幣禮，謁者引獻官 詣盥洗．北向立盥水洗手．引詣神位前．北向立 跪．三上香．執幣．獻幣． 俯伏興，平身． 引降復位，行初獻禮，謁者引獻官，詣樽所，西向立，執樽者擧冪酌酒．引詣神位前，北向立．跪，執酌，獻酌，俯伏興，平身．小退跪，讀祝，祝進獻官之左．讀祝，俯伏興，平身．引降復位．行亞獻禮．謁者引獻官，詣樽所．西向立，執樽者擧冪酌酒，引詣神位前．北向立．跪，執酌，獻酌，俯伏興，平身，引降復位．行終獻禮 詣者引獻官，詣樽所．西向立．執樽者．擧冪酌酒 引詣神位前．北向立．跪，執酌，獻酌．俯伏興 ，平身．引降復位．徹籩豆．祝進徹籩豆，四拜．獻官及在位者皆四拜．興，平身．望燎．謁者引獻官，詣望燎位．北向立．祝取祝板毛血於坎可燎．謁者進獻官之左，白．禮畢遂引獻官出．祝及諸執事俱伏拜位，四拜 祝以下皆四拜，興，平身，以此出．

〈표1〉 酺祭陳設圖



⑫ 祝　文: 春酺祭祝

維歲次……云云……敢昭告于 里酺之神伏以洋洋左上　盛矣其德 在帝之左驅厲之右 鎭玆疆場 司我禍福 迨令新正月寅日亥 敢竭微誠 柔疏獻奠 伏惟尊神 遂旋化柄 順陰調陽 除灾降祥 天無烈風 海不揚波 在於田野　稼穡豊登 在於沿海 漁採充實 畜產繁興 雜虫驅除 病疾之祟 駕風鞭遙　禍亂之憂 禍福無門 惟人召之 夭壽違世 由天佑之 進物之兆 原始及終　使我蒸民 庶望太平 告之即應 感而順通 玆奠菲薄 式陳菹豆　謹以淸酌脯醢祗薦歲事 尙 饗

이러한 祭儀 內容을 보면 儒式 祭儀지마는, 그 基盤에는 土俗的 信仰이 그대로 깔려져 있고, 그 祭儀形式이 儒式化했다는데 不過한 것임을 알게 된다.

2) 帝 釋 祭

春酺祭가 끝나면 春酺祭에 올렸던 犧牲 其他 祭物을 삶아서, 酺祭壇 옆 청결한 곳에 祭物을 陳設한다. 祭物은 메, 떡, 돼지고기, 닭고기, 果實등이다.

祭官은 春酺祭의 下祭官中 아무나 한 사람하고 執事 한 사람으로서 單獻單酌으로 行하는데, 祭가 끝나면 祭官이 口頭로 「雨順風調하고, 소도 농사밭에 들어 해치지 말게 하고, 잡충도 번지지 말게 하여 풍작이 되게 해주십서. 제석님께 빕니다.」는 內容의 祝願을 口辯에 따라 한다.

2. 巫式 部落祭

1)堂과 堂儀禮

加波島의 本鄕堂은 摹瑟浦(下摹里)의 堂을 갈라다가 모신 것으로, 上洞(ㅁ시리)에 매부리堂이 있고, 이 堂에서 다시 下洞에 갈라다 모신 황개당이 있다. 모두 浦口 곁 바닷가의 바위 위에 울타리를 둘러놓아 모셨으며 神体는 없고, 里民이 祝願時 걸어놓은 실, 백지, 물색들이 걸어져 있다. 이 堂의 祭儀目的은 主로 漁夫, 줌녀(海女)等의 漁業의 保護를 祈願하는

것이다.

祭日은 定해 있지 않아 正月, 六月, 八月에 한번씩 擇日하여 祝願하러 감이 原則인데, 이 外로도 배의 고사때나 家內에 不幸이 있을 때도 祝願하러 간다.

祭物은 메 3器, 돼지고기, 海魚 3개, 酒, 五果, 白紙와 실, 동전 等이며 그 中 메 1器는 祖上을 위한 것이라 한다.

現在는 里內에 심방(巫)이 없어 家庭主婦들만 감으로 正式 祝願의 祭次는 없다. 다만 祭物을 올리고 30分쯤 가만히 있다가, 실, 백지, 물색 等을 걸어놓고 祭物을 내린다.

그리고 巫가 없으니 現在 堂굿은 없다. 그러나 數年에 한번씩 영등굿, 좀수굿, 요왕제를 겸하며 行하는 일이 있었다.

以上과 같이 堂信仰의 性格은 男性들의 出入이 禁되고, 女性들간이 主管하여 儀禮하고 있으니 여성들의 部落信仰이라 할 수 있다.

2) 水 神 祭

前에는 漁業의 豊饒를 빌기 위하여 數年에 한번씩 行하였으나, 現在는 소멸되었다. 對象神은 龍王大神이며, 紙榜을 써 붙일 때는 「龍王大神之位」라 한다.

마을에 심방(巫)이 없어지면서 이 굿도 없어졌다.

Ⅲ 家庭信仰 및 祖上崇拜 其他

各 家庭別로 行하는 儀禮의 主要한 것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船王노리개

"船王노리개"란 一名 "연신"이라고 하는 巫俗儀禮다. 船王이란 배를 지켜주는 船神으로, 漁船을 新造하였을 때, 그 漁船에 船神을 모셔 앉히기 위하여, 또는 멀리 漁撈를 나갈 때, 豊漁를 빌기 위하여 이 儀禮를 한

다.

이 의례는 밤에 行하는데, 7~8時間 소요된다. 祭物은 돼지 1마리를 잡고, 그 外로 떡, 메, 海魚, 果實, 酒, 쌀 등이며, 이들 祭物을 배 甲板 위에 陳設하여 심방(巫) 數人이 북, 징, 설쇠, 장고 등 巫樂器를 울리며 굿으로서 한다.

이 굿의 特徵은 도채비(도깨비)를 청하여다가 船神인 船王으로 모셔 앉히는데 있다.

도채비는 도깨비의 方言으로, 이를 높혀 부를 때 "영감" 또는 "참봉"이라 한다. 이 "영감"은 본래 서울 南山에서 七兄弟가 태어났는데, 이들이 各各 全國의 有名한 山을 차지해 갔다 한다. 그중 일곱째 동생이 濟州島엘 들어왔는데, 이 神을 청해다가 船王으로 앉히는 것이다. 이 "영감"은 매우 헌 옷을 입고, 헌 갓을 쓰고, 짧은 곰광대를 물고, 헌 짚신을 신어 돌아다니는데, 돼지고기, 수수범벅 따위를 퍽 좋아한다고 한다.

"영감"의 이런 모습은 船王노리개 儀禮에서도 그대로 再現되어 實演된다. 노리개가 시작되려면 먼저 영감으로 분장한 사람이 멀리 나아가 기다린다. 小巫나, 마을 사람으로서 이 굿의 內容을 잘 알고, 놀이를 잘 하는 사람이 영감역을 맡는다. 그는 白紙로 假面처럼 얼굴을 가리고, 헌 옷에 헌 밀짚모자를 쓰고, 짧은 담뱃대를 물고 분장한다.

굿청인 배 위에선 갑자기 불을 끄고 수심방(首巫)이 밖으로 나와서 "영감! 영감!" 하고 부른다. 영감은 휘파람 소리로 자기 소재를 알리고, 수심방도 휘파람으로 신호를 하며, 이 영감을 찾아 청해들여 간다. 배에 가득 모인 굿 구경군들은 떠들면 영감이 들어오지 않는다 하여 캄캄한 속에서 말 한마디 없이 엄숙히 기다리고 있다. 불을 끄고, 말 한마디 없이 조용해 하는 것은 영감에게 배 위인 것을 모르게 속이고 살짝 유인해 오는 意味이다. 장난을 좋아하는 영감 배역쯤은 빨리 들어오지 않아 유인해 오는데 2~30分씩 걸린다고 한다.

그럭저럭 영감을 배 위까지 청해들이면 불을 키고, 영감과 수심방(首巫)이 對話로써 演劇的 場面을 벌인다. 영감은 「나는 서울 南山에서 솟아

난 七兄弟의 막내로서 제주 한라산 구경을 왔다가, 제주도 전역을 돌고 차귀 당산봉으로 하여 여기까지 왔는데, 속아서 잘못 들어왔다」는 內容의 말을 하고, 수심방은 여기 船王으로 모시려고 청했다는 사유를 말한다. 그러면 영감은 그가 좋아하는 음식—돼지머리, 간, 염통, 술 등등 이것 저것 내어놓으라고 호령을 하고 수심방이 젯상에 陳設한 것들을 가리키며 모두 당신을 위해 차린 것이니 맘껏 잡수시라 하면 먹는 시늉을 하고서는 一同이 한바탕 춤과 노래로써 즐거이 논다. 그리고는 수심방이 「영감을 청해들였으니 船王으로 모시자」 하여, 실, 백지, 물색(빨강, 파랑, 노랑색의 色布)을 상자 안에 묶어매어 甲板 안에 모신다. 이것이 바로 船神인 船王인 것이다.

2) 배 코 ᄉᆞ

배를 新造하여 進水式을 할 때나 每月, 초하루와 보름에 또는 집안에 제사나 명절 기타 結婚式 따위가 있을 때 한다.

메 3器, 海魚 3, 酒, 果實, 채소 등을 배의 이물, 고물, 한장에 陳設하여, 拜禮함이 없이, 술만 부어 올리고 메에 젓가락을 꽂은 후 4~5分 기다리다가 철변하는 것이다.

3) 育 兒 儀 禮

祈子儀禮는 전혀 없었고, 生後 3日, 7日, 百日, 돐등의 〈아기비념〉이 있으나 단순하게 상을 차려놓는 정도이다.

4) 土 神 祭

① 祭 神 : 土地之神位. 祭를 行할 때는 土地之神位라 紙榜을 써 붙여 한다.

② 祭 日 : 陰 正月 初旬에 各者가 擇日하여 子時에 行한다.

③ 祭 場 : 집 울타리 안 空地 깨끗한 데에 祭壇을 차려 한다.

④ 祭 物 : 白米메 2器, 粟米메 2器, 犧牲닭 1마리, 脯 1器, 魚需

1器, 靑菹, 芹菹各 1器, 五果 1器, 酒, 幣帛(무명) 1필이 原則이나 구비치 못하면 빼버린다.

⑤ 祭 官 : 男主人이 祝文을 쓰고, 告할 줄 알면 本人대로 하고, 할 줄 모르면 祝文을 쓰고 告할 줄 아는 里內 男子를 빌어 한다.

⑥ 禁 忌 : 祭日 3日前에 올래(집의 出入路)로 禁줄을 매어 不淨人의 出入을 禁하고, 祭日 밤이 되면 그 禁줄을 푼다. 禁줄을 계속 매어 두면 神이 못들어 온다고 한다.

⑦ 目 的 : 家內의 平安하기를 祝願하는 것이다.

⑧ 祭 次 : ㄱ. 분향~香을 피운다.

ㄴ. 初酌~첫 잔을 올린다.

ㄷ. 告祝~祝을 告한다.

ㄹ. 二酌, 三酌 後 拜禮~拜禮는 直拜를 한다.

ㅁ. 掇籩豆~陳設한 모든 祭物을 내린다.

ㅂ. 飮福

⑨ 性 格 : 儒敎式 祭法의 新年家祭로서, 男性의 家庭信仰이다.

5) 門 前 神

加波島內에서는 他里와는 特異하게 門前에 白紙, 물색(빨강, 파랑, 노랑색의 色布)를 실로 묶어 매어두고 있다. 이것을 "문전"이라 하며 門神의 神体로 간주하고 있다. 이 色布를 "문전옷"이라 하고, 심방(巫)을 빌어다 액막이를 할 때, 이를 갈아건다. 액막이를 못하면 男主人이 祭官이 되어 正月에 果實, 찬물을 그 앞에 올리고 香을 피워 절을 한 후, 이를 갈아건다. 이 갈아거는 것을 「문전 새옷 갈아 입힌다」고 한다

6) 액 막 이

一年間의 禍를 福으로 化하게 해달라고 祝願하는 新年家祭이다.

祭日은 陰 正月 15日 子時에 行하나 各者가 擇日하여 하기도 한다.

祭物을 幣帛(神의 옷감) 3자반, 돌래떡 3器, 메 3器, 五果, 쌀, 酒,

실, 돈, 닭(수탉) 1 마리, 물색헝겁 등이다.

祭場은 門前(마루방의 前面 門 앞)이며,

行祭는 심방(巫)에 依해서 巫式으로 하는 것과 祝文을 告하는 儒式의 것 두 가지가 있다. 行祭할 때 神에게 바치는 뜻으로 바깥쪽을 向해 수탉을 던지는 데, 그 닭이 올래를 向하여 앉으면 吉하다고 하고 집 안쪽을 향해 앉으면 不吉하다고 한다.

7) 祟 祖 祭

加波島內에서는 節祭로서 陽 1月 1日(정월멩질), 8月 15日(秋夕)이 있으며 忌祭는 長孫을 基準으로 하여 高祖父母까지 모심이 一般이나, 曾祖父母까지만 모시는 家門도 있다. 名節 때나 祭祀 때나〈문상〉〈몸상〉 둘을 차린다. 〈문상〉은 門神인 〈문전〉에 對한 祭床이고 〈몸상〉은 先祖에 對한 祭床이다.

加波島內 金氏家門의 祭祀를 例로 보기로 하자.

저녁이 되면 陳設(표2 참조)을 우선 해놓고, 12時가 되면 메를 올린 後 먼저 門前祭부터 지낸다. 문상을 상방(마루방)의 바깥문 쪽에 갖다 놓고 單獻單爵으로 지낸다. 분향은 執事가 외잔으로 祭官에게 주면, 祭官은 이를 받아 다시 執事에게 그 잔을 넘긴다. 執事는 분향대 위에서 그 잔을 시계 方向으로 3번, 시계반대 方向으로 3번 돌린다. 그 外 다른 것은 他里와 비슷하다. 雜食할 때에 祭物의 종류가 같아도 陳設한 數 全部를 조금씩 끊어 모아 지붕 위에 올린다. 그래서 그 상을 부엌으로 넘기면 아낙네들이 다시 雜食하여 〈조왕〉神에게 던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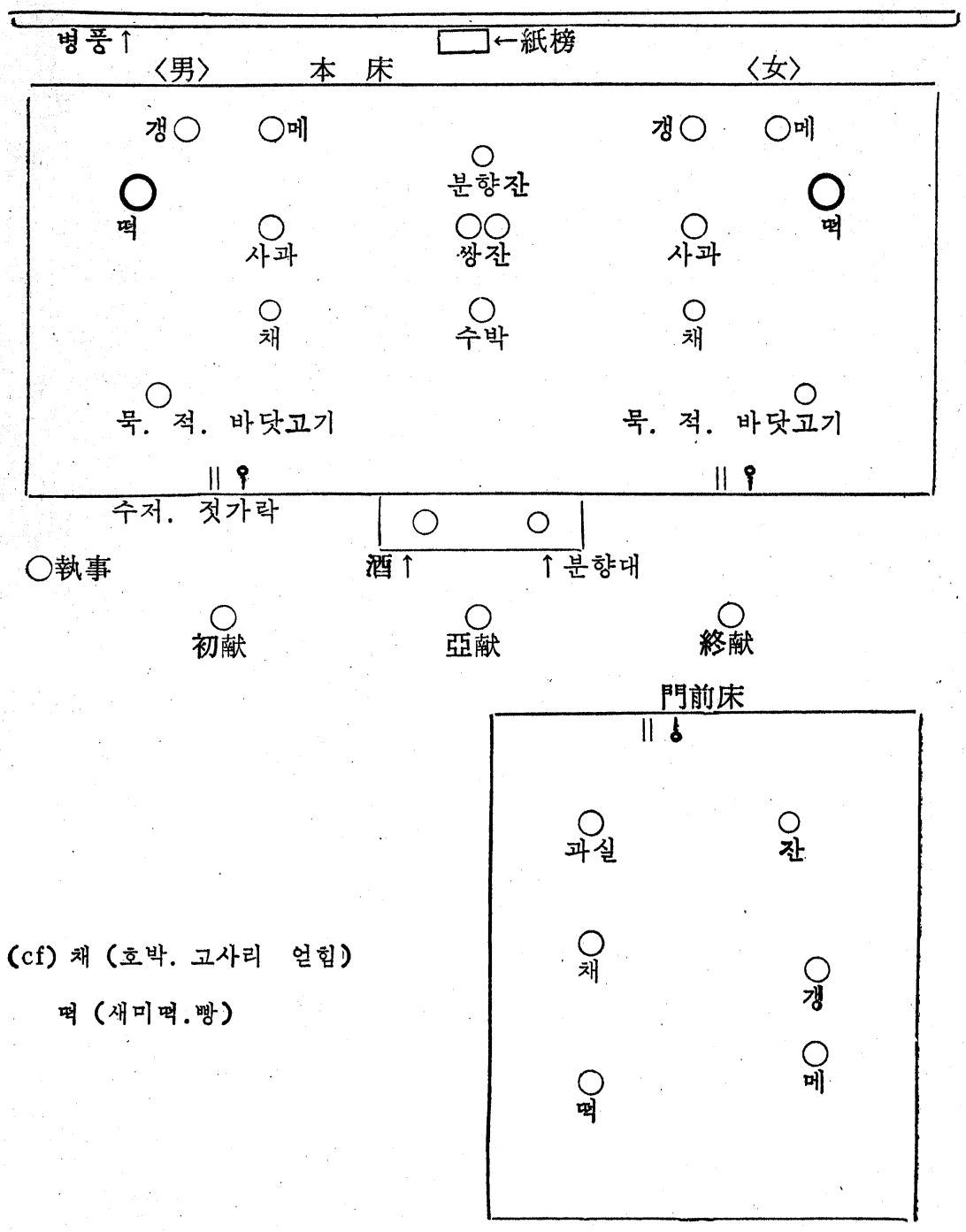
그 다음은 本祭를 지낸다.

여기에서도 他里와 다른 것만 말하기로 한다.

모사접시가 必要없다. 왜냐면 분향잔을 모사 위에 붓는 것이 아니라 祭床 위 原位置(陳設圖 參照)에 그대로 올리기 때문이다. 그리고 終獻 後 수저잎을 갱 속에 담그고, 밥그릇에 기대게 걸친다. 숭늉을 올려도 수저는 그대로 둔다. 또한 읍이 끝난 후에 執事는 일어서서 모든 祭物을 조금씩 움직인다. 그리고 메만 除外하고 숭늉그릇 2개에 各 祭物을 떠넣어 1개

로 統一하여 〈박숭늉〉을 하고 올래에 가서 던진다. 분향잔은 紙榜을 태워서 넣고 지붕위로 던진다.

〈표 2〉 祭 祀 陳 設 圖



(cf) 채 (호박. 고사리 얹힘)

떡 (새미떡. 빵)

Ⅳ 結　　語

以上 記述해 온 바를 綜合하면, 加波島民의 信仰은 두 가지 面에서 理解될 수 있다. 全島的 普遍性과 部落的 特殊性이 그것이다.

部落信仰이나 家庭信仰에 있어서 男性들은 儒教式 祭法에 依한 醮祭, 土神祭 等 獨自的 信仰構造를 만들고 있고, 女性들은 巫俗儀禮로 하여 獨自의 信仰構造를 갖고 있다는 점은 普遍的인 面이다.

反面, 儒式 祭儀나 巫式 儀禮들이 漁業과 有關한 것이 많은 바, 이것은 加波里民의 生業에서 울어나온 것으로, 이 섬의 特殊性이라 할 것이다.

傳承者 金昌化 (男·65)
박용호 (　　)
조기문 (　　)

海　　女

目　　次

1. 加波島와 海女
2. 作業과 採取物
3. 海女器具 및 收益
4. 潛水器船의 漁場侵入

1. 加波島와 海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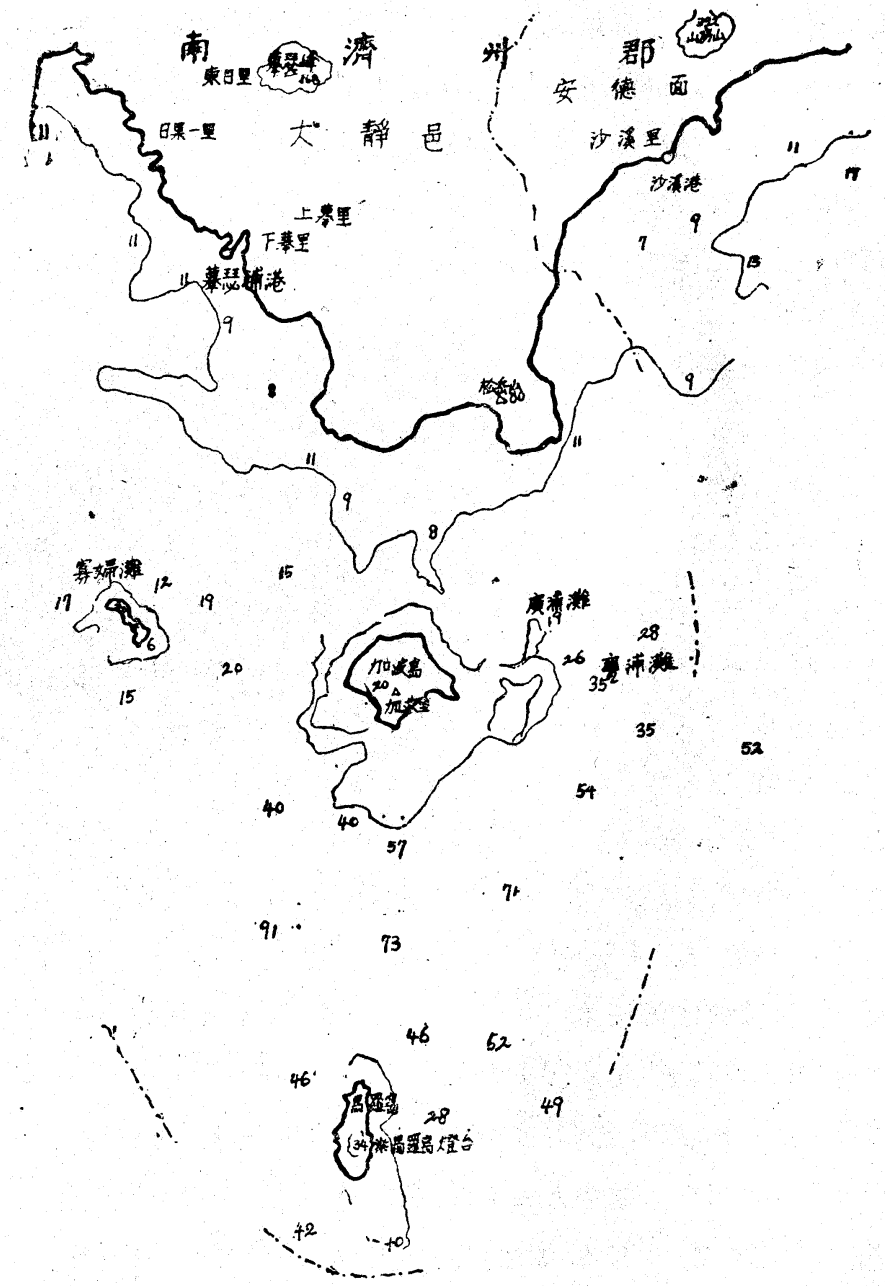
加波島는 海外作業이 極盛한 典型的 地域이다.

이곳 女子는 全部 海女라 하여도 지나친 말이 될 수 없다.

加波島 生活이 밑바탕이 되고 있는 주된 産業은 農業과 水産業이다. 그러나 農業은 農土 18萬坪에서 1年 食糧의 3분지1이 공급될 뿐, 그 나머지의 衣·食·住는 水産業에 依存된다. 加波島民의 生計依存度가 水産業에 기대는 율이 높다는 데서 이곳 海女의 位置는 클 뿐아니라, 加波島에 살고 있는 女子라면 海女作業에 從事함을 당연히 여긴다. 이들은 國民學校를 卒業하면서 專門的 海女作業에 들어간다. 이것은 加波島 女子가 高等學校에 進學하는 율이 0.1%밖에 안된다는 데에서도 알 수 있다.

이들은 進學을 한다는 것보다 당장에 現實生活을 위한 海女作業이 더 필요한 것이다. 간혹 海女作業을 그만두고 他地方으로 進學했던 女子라도 就職이 안되면 다시 故鄕에 돌아와 海女作業에 들어가는 예가 있다.

加波島 近海圖



加波島 海女들은, 加波島 全体 넓이 22萬평에서 農土가 18萬평, 즉 全体의 80%가 農土라는 점에서 海女作業外에 副業으로 農事를 짓는다. 그들의 農事일은 밭농사가 전부이니 곧, 主要生産物인 보리와 고구마를 거두어 들이는 일로서 김매기, 보리베기, 고구마심기 등을 밭에 나가 한다. 보통 農事일을 돌보는 時間은 한번 들에 나가면 3~4時間 정도다.

加波島 全体 海女는 加波國民學校 統計에 따르면 250名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全体 女子 人口數 455名의 54%에 해당하며 加波島 漁村契 統計에 따르면 組合에 加入된 海女數는 58名이 되고, 18才 以下나 老年의 海女는 組合에 加入시키지 않고 있다. 全体 海女가 250名으로 나타난 것 이외에도 未熟한 海女를 포함한 潛在海女가 있으리라 볼 때 實際 海女數는 훨씬 많으리라 본다.

加波島 海女들은 海女作業은 목숨을 걸고 하는 일이라 말한다. 그들은 바다를 집·밭보다 더 중요한 재산으로 여긴다.

또한 그들이 作業을 한다는 것은 돈을 번다는 강한 執念에서 어려운 作業이 계속 이어져 나가는 것이라 볼 수도 있다. 사실 加波島 海女의 收益은 他地方 어느 海女보다도 높다. 이들 海女收益이 높으므로 인해 家計 大部分을 이들이 꾸려 나가며, 濟州本島 男子가 이곳 海女한테 求婚을 하면 오히려 시골男子라고 거절을 당하는 일도 있다 한다. 이곳 海女의 권리는 어떤 면에서 男子의 권리를 압도한다.

加波島와 비슷한 與件을 가진 舊左面 牛島가 있으니 두 附屬島嶼는 裸潛漁業이 옛부터 盛行한다는 점에서 類似性이 짙다. 加波島와 牛島는 한결같이 "딸 많은 집 부자 된다"라는 말을 한다.

加波島의 海女裸潛漁業方法이 〈뱃물질〉·〈ᄀᆞᆺ물질〉 兼行인데 반해 牛島에선 전혀 〈뱃물질〉을 않고 〈ᄀᆞᆺ물질〉 뿐이다. 濟州本島나 牛島 등지에서는 여전 國內의 出稼가 每年 이루어지고 있는데 반해 加波島에는 出稼하는 海女가 거의 없다. 他地方으로 出稼를 했다면, 日帝時代를 前後하여 이루어졌다. 國外로는 日本 對馬島, 三宅島를 비롯하여 國內의 九龍浦, 黑山島, 統營 等으로 出稼했었다.

지금도 對馬島에는 加波島 住民들이 定着하여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1940年에 日本 對馬島에 出稼했던 한 海女를 예로 들면 對馬島까지의 交通路는 摹瑟浦港에서 부산을 거쳐 對馬島에 到着했었다. 그 당시에 出稼한 理由는 돈을 번다는 經濟的 理由와 摹瑟浦 飛行場이 두려움을 줘 家族全部를 데리고 出稼를 했다 한다.

지금에 와서 加波島 海女가 他地方으로 出稼가 이루어지지 않음은 他地方에 비해서 採取物이 풍부하다는 것과 出稼하여 벌어오는 收益이 加波島內에서 벌 수 있는 收益만 못하다는 사실에 緣由한다. 加波島가 他地方보다 採取物이 풍부한 가운데서도 소라, 전복은 濟州本島 어디보다도 많이 난다.

牛島에서는 4~7月 사이에는 소라·전복 採取作業을 하지 않지만 加波島는 1年내내 採取作業을 하고 있다는 데서도 알 수 있다. 이외의 다음 사실을 보더라도 加波島의 採取物 실정을 알 수 있다. 첫째 潛水器船이 第一種共同漁場에 침입, 不法漁撈를 1時間만 作業하면 일백만원을 거뜬히 벌어올린다는 것과, 둘째는 가격이 많이 나가는 소라, 전복을 중히 여길 뿐 海藻類를 크게 보지 않은 경향이다. 이것은 牛島, 吾照里등지에서 海藻類의 번성을 위하여 雜草除去作業(바당풀캐기)을 하는데 加波島에서는 당국의 雜草除去作業을 권장하여도 雜草를 除去하는 일이 없다는 점이다. 세째 加波島의 採取物을 탐내는 摹瑟浦의 海女나 他地方의 海女가 3年前만 해도 곧잘 찾아 들었다는 데서 알 수 있다.

10年前까지만 해도 西歸浦 居住 女巫 박성옥을 招致, 〈황계창〉에서 잠수굿을 했다 한다. 陰曆 正月末이나 2月이 되면 날을 받아서 連3日間 잠수굿이 치러진다. 이 날은 海女들이 좁씨를 가지고 바다에 나가 뿌리면서 그 해 미역을 많이 나게 해달라고 빌었다.

그러나 지금은 잠수굿을 하지 않은지도 10年이 지난다고 住民들은 말한다.

2. 作業과 採取物

加波島의 裸潛漁業方法은 〈뱃물질〉·〈ᄀᆞᆺ물질〉 兼行이다.

〈뱃물질〉이란 海女들이 배를 타서 作業場所까지 가서 作業하는 경우며 〈ᄀᆞᆺ물질〉이란 해녀가 직접 바닷가에서 헤엄쳐나가 作業함을 이른다.

加波島 附屬島嶼인 馬羅島에는 〈ᄀᆞᆺ물질〉만 한다.

加波島의 〈뱃물질〉은 陽曆 3~4月에 시작하는데 9月末이 되면서 일체 끝난다. 6年 前만 해도 〈뱃물질〉은 帆船을 이용하였다. 현재는 잠수배로 엔진 30馬力 4t級의 〈금양호〉라는 動力船을 잠수배로 사용한다.

따라서 帆船을 이용할 때에 불리워졌던 民謠도 차츰 불리워지는 경향이 없어지고 있다. 〈뱃물질〉은 大部分 上潛嫂들에 의하여 裸潛漁業의 盛期인 夏節에 이루어지고 있다. 이 때에 〈ᄀᆞᆺ물질〉하는 海女는 中潛嫂, 下潛嫂, 그렇지 않으면 몸이 불편한 海女들이다. 날씨가 추워지고 겨울철에 가까와져 가면 〈뱃물질〉하던 海女들은 〈ᄀᆞᆺ물질〉하러 〈덕〉으로 몰려든다. 이곳에서는 〈ᄀᆞᆺ물질〉을 〈덕물질〉이라 부르며 濟州本島의 많은 漁村에서 쓰이는 〈ᄀᆞᆺ물질〉이라는 말은 별로 사용하지 않는다.

〈덕물질〉 하는 海女를 〈덕좀네〉라 하여 作業나갈 때에도 〈배로 가게〉, 〈덕으로 가게〉라 말하듯 바닷가를 〈덕〉이라 일컫는다.

7~8月에 이르러 〈뱃물질〉이 활발해지면 1日, 30名 정도 作業에 나서던 海女가 60~70名으로 대폭 늘어나게 되면 잠수배가 아닌 動力船 4t級의 〈태만호〉까지도 고기잡이 作業을 쉬고 잠수배 역할을 한다. 이 때의 〈뱃물질〉 1日 海女 作業 기간은 아침 8時30分頃 作業場所를 향하면 하루 3回까지 潛水하기도 하며 보통 歸家時間은 저녁 5~6時가 된다.

加波島 第一種共同漁場에서 〈뱃물질〉 中心區域은 〈허성장걸여〉, 〈한여〉 〈암여〉, 〈서우여〉, 〈넙게우친여〉 등이다.

9月末이 되면서 裸潛漁業方法이 달라져 이제까지 해오던 〈뱃물질〉은 〈덕물질〉로 바뀌면 〈덕물질〉은 다음해 3月까지 이어진다. 모든 海女가 〈덕〉으로 몰려드는 겨울철이 되면 作業을 쉬는 海女가 생겨난다. 그들 말로

"어차우자 좁네 못공장에 태왁 걸어놓고 논다"라고 하여 下潛嫂, 中潛嫂 중에서 간혹 쉬는 海女가 있게 된다.

이 때의 〈어자우자 좁네〉란 上潛嫂를 除外한 中潛嫂, 下潛嫂中 시원치 못한 海女를 일컫는다. 上潛嫂일수록 作業에 極盛스럽고 1年 내내 作業하고 있음을 본다.

加波島에서 부르는 作業技倆上의 海女名稱은 보통 〈좁네〉, 〈좁수〉라 하고 있고, 作業技倆上, 上軍(혹은 〈상좁수〉, 〈큰좁네〉), 中軍(혹은 〈중좁수〉, 〈중좁네〉), 下軍(혹은 〈하좁수〉, 〈족은좁네〉)으로 區分 通稱된다. 加波島 一帶의 上軍海女 中에서 最高 潛水할 수 있는 水深은 12길이며, 12길 潛水하는 海女는 김 여옥氏外 10名이나 된다. 12~10길 사이 潛水하는 海女는 20名에 이른다.

물속에 한번 潛水함을 〈혼숨 숨빈다〉 혹은 〈혼번 들다〉라고 하며 作業하러 가자는 말을 〈물에질 글라〉·〈개ᄀᆞ 글 라〉라고 말하는가 하면 馬羅島에서는 〈ᄀᆞ이 글라〉로 표현한다.

다른 地方에서도 가끔 있는 일이긴 하지만 作業途中 不意의 事故에 直面할 때도 번번이 있다. 예들면 12年前 당시 26才의 한 海女가 전복을 캐다 숨졌고 6年前 金某 海女는 네째 子女를 分娩後 20日만에 작업에 나섰다가 모든 海女가 뭍으로 올라왔지만 그는 올라오지 않아, 사람이 없는 〈테왁〉만이 떠다니는 것을 이상히 생각한 동네 海女들이 그를 찾아 나서 보니, 〈도깨여〉에서 窒息死한 屍体를 찾아오기도 했다.

作業中에는 간혹 裸身을 해치는 魚類도 가끔 나타난다. 〈솔치〉·〈물쌔기〉·〈붕장어〉 등이다. 〈솔치〉는 가시를 갖고 있는 고기로 이것에 찔리면, 그곳이 부풀어 오르고 통증이 1日間 계속된다.

〈물쌔기〉는 8月이 되면서, 〈강낭쒜〉라는 게 생기면서부터 水中에 떠돌아다닌다. 作業中에 이것에 물리면 〈솔치〉에 찔린 때처럼 통증이 일고 물린 자국이 부풀어 오른다. 통증은 1時間 간다.

간혹 어린아이들도 〈물쌔기〉의 파란 비누거품 같은 아름다움에 속아 잡으려다 물리는 수도 있다. 이럴 경우 특별한 치료약은 없으며 진통제를

먹는 정도로 그냥 自然治療되도록 내버려둔다. 또한 이런 것에 물렸어도 作業은 中斷됨이 없는데, 作業中 副作用으로는 作業强行으로 말미암아 입맛을 잃거나 몸에 이상한 두드러기가 생기는 수가 있다.

두드러기는 보통, 海女 열명이면 한명꼴로 나타나 作業을 中斷하면 없어져 버린다. 採取物이 적고 추운 날은 農事를 짓거나 家事에 專念하는 것도 그들의 한갖 喜悅이다.

〈表1〉 加波島 및 牛島 月別 平均 作業日數 對比

加波島 海女. 1974年 8月 調査
牛 島 海女. 1973年 8月 調査

加波島			牛島		
月別	月間 平均 作業 日數	1日 平均 潛水 回數	月別	月間 平均 作業 日數	1日 平均 潛水 回數
1	6.5日	1.7回	1	4.4日	1.1回
2	8.6	1.8	2	6.3	1.2
3	12.6	2.0	3	7.3	1.8
4	14.6	2.3	4	10.2	2.0
5	13.5	2.4	5	12.5	1.9
6	16.8	2.6	6	13.7	2.1
7	16.5	2.8	7	16.5	2.2
8	16.5	2.8	8	15.0	1.9
9	14.2	2.2	9	14.0	1.7
10	12.1	2.1	10	9.7	1.7
11	8.7	1.8	11	4.7	1.3
12	6.2	1.7	12	6.6	1.3

〈表1〉의 月別 平均 作業日數 統計에서 보듯 加波島는 3月~10月 사이에 作業이 활발하다. 이 時期는 月別作業日數 平均 1個月에 12日을 넘고 있으며 潛水回數도 平均 2回 以上이다.

11月에서 다음 해 2月 사이에 作業이 줄어드는 現象은 寒波가 몰아치는 위에 〈뱃물질〉이 없어지고 〈덕물질〉만이 이어지는 데도 理由가 있다.

月別 作業日數 및 潛水回數 平均에서 보듯이 加波島 海女가 牛島 海女보다 作業이 활발함을 볼 수 있다. 그러나 月別 平均作業日數는 加波島와

牛島는 7月에 이르러 꼭같이 나타난다. 平均潛水回數에서 加波島가 平均 2回 以上이 大部分이라는 것은 물옷을 在來服 그대로 着用하고 있다는 데도 原因이 있다. 改良服일 경우는 대개 1回潛水에 그친다. 牛島 海女인 경우 大部分 改良服을 着用하고 있다.

加波島의 重要 採取物은 소라, 전복, 해삼, 미역, 성게다.

〈表2〉 **加波島 및 牛島 月別 重要 採取物**

加波島 海女. 1974年 8月 調査
牛 島 海女 1973年 8月 調査

加波島		牛島	
月別	重要採取物	月別	重要採取物
1	소라, 전복, 해삼	1	소라, 전복, 해삼, 톳
2	소라, 전복, 해삼	2	소라, 전복, 해삼, 톳
3	소라, 전복	3	소라, 전복, 해삼
4	소라, 전복, 미역	4	미역, 우뭇가사리
5	소라, 전복, 성게	5	미역, 우뭇가사리, 성게
6	소라, 전복, 성게	6	우뭇가사리, 넓미역, 성게
7	소라, 전복	7	넓미역, 우뭇가사리, 성게, 청각, 감태
8	소라, 전복	8	우뭇가사리, 성게, 소라, 전복, 청각, 감태
9	소라, 전복	9	소라, 전복, 해삼, 청각
10	소라, 전복	10	소라, 전복, 해삼, 성게
11	소라, 전복	11	소라, 전복, 해삼
12	소라, 전복	12	소라, 전복, 해삼

〈表2〉를 보면 1月~12月까지 소라, 전복은 계속 採取되고 있다.

加波島가 貝類에 치중한 採取라면 牛島는 海藻類에 더 力点 두고 있다.

加波島 海女들 사이에 採取物을 名稱에 따라서 區分하고 있는 것을 보면 소라를 〈조쿠재기〉, 〈문둥구재기〉, 〈쌀구재기〉等 大, 中, 小에 따라서 命名하고 있으며 전복을 〈암첨복〉, 〈숫첨복〉, 〈마드래〉로 구분한다. 〈암첨복〉은 색이 희미하고 얄팍하며 둥글다.

〈숫첨복〉은 검고 뭉뚝하고 껍질이 움펑하다. 또한 〈마드래〉는 〈암첨복〉

비슷하면서 길쭉하고 겉이 울퉁불퉁한 것을 이른다.

미역은 자라는 時期에 따라서 〈조각미역〉, 〈만각미역〉, 크기에 따라서 〈소곽미역〉, 〈넙곽미역〉으로 나눈다.

성게는 〈귀살〉이라 하며, 해삼을 〈미〉, 문어는 〈물구럭〉이라 부른다.

加波島 海女 作業始作 年令平均은 牛島 海女 作業始作 年令平均과 比較하여 볼 때 牛島의 15.2才보다 높은 18歲로 나타나 거의 3歲 差異가 생긴다.

〈表3〉 **加波島 海女 作業 시작 年令**

對象：加波島 海女
1974年 8月 調査

作業始作年令	12歲	14歲	15歲	17歲	18歲	20歲	비 고
人 員	6	1	3	4	6	8	평균연령 18歲

〈表4〉 **牛島 海女 作業 시작 年令**

對 象：牛島 海女
1973年 8月 調査

作業始作年令	10歲	11歲	12歲	13歲	14歲	15歲	16歲	17歲	18歲	19歲	20歲	비 고
人 員	2	1	1	0	2	14	7	1	6	6	1	평균연령 15.2歲

그 異差는 〈表3, 4〉를 통해 알 수 있다.

그 이유로는 牛島보다 加波島가 水深이 깊고 波浪이 거칠어 裸潛漁業이 꽤 힘들다는 데 있을 것이다. 따라서 加波島에는 18세 前後해서 上潛嫂는 거의 없다.

主要海藻類의 禁採期間은 陰曆으로 보아 미역이 1月~3月, 가시리가 1月~2月, 톳이 9月~12月 사이인게 常例다. 가시리, 미역, 톳은 一定期間 禁採했다가 適定時期에 許採되는데 그 許採日은 漁村契長, 里長, 海女會長, 漁村契幹事, 部落財務, 里書記가 모여서 定한다.

許採日字는 〈상동〉, 〈하동〉에 한 군데씩 미리 公告한다.



〈감태가 쌓인 모습〉

전복은 7cm 以下, 소라는 5cm 以下는 採取를 금한다는 水產業法에 엄격히 따르고 있다. 水產保護令 第10條 1項에 소라 7cm 以下, 소라 5cm 以下는 採取를 禁止하고 있다. 加波島는 4개 區域에 소라양식장을 두고 있다. 그 區域은 〈서바당〉, 〈ㅁ시리〉, 〈황계〉, 〈동바당〉이며 이 地域은 겨울철 4個月間 금했다 봄이 되면 許採시킨다. 가끔 어린애들이나 海女가 잔소라를 잡았을 경우, 漁村契에서 돈을 주고 사서 소라양식장에 집어 놓는다.

미역이 許採되는 날은 집안식구가 온통 作業을 하러 바다로 몰리는데 집안의 海女가 미역을 採取하면 나머지 집안 식구가 뒷일을 거두는 것은 海女作業이 極盛한 牛島, 金寧等地 미역許採時와 비슷하다. 上潛嫂는 許採後 보통 2~3日이면 미역 採取作業을 일단 끝낸다. 下潛嫂, 老婆海女等이 1個月間 採取作業을 이어갈 뿐이다. 上潛嫂는 2~3日 사이에 그들의 採取할 만큼의 미역 採取作業이 끝나면 곧 소라, 전복등 貝類 採取에 들어가 버린다. 미역이 풍부한 〈오끈여〉, 〈도깨알여〉, 〈넙게〉, 〈넙게우친여〉는 마을 鄕會에서 年年 決定되는 價格에 따라 加波島民 個人에게 採取權을 팔고 里長, 里書記 月給과 마을 經費로 쓰인다. 말하자면 第一種共同

漁場 중에는 里長專用 採取漁場이 옛부터 慣行上 마련되었던 듯, 〈이장통〉이란 漁場區域名이 尙存한다.

馬羅島에서도 高令老婆海女와 廢疾者를 爲한 〈할망바당〉(성ᄆᆞ을)과 班長專用의 〈반장바당〉(살레덕)이 별도로 劃定되어 흥미로왔다.

가시리는 前言한대로 가시리가 發育하는 1月에 禁採했다가 3月이 되어다 자라면 許採하여 一般海女는 1日作業으로 끝나며 할머니들만이 10餘日동안 作業할 뿐이다.

예전에 톳은 個人의 마음대로 採取할 수 있었을 뿐아니라 톳區域을 돌보는 이를 加波島에서 2~3名 두어서 수고비로 1人當 15,000원씩 마을에서 지불했었다. 따라서 個人의 採取物販賣金에서 15%를 떼어 漁村契에 납부하기만 하면 되었다. 그러나 1974年度부터는 마을 共同採取物로 指定, 톳區域을 15個班別로 나누어, 班別로 돌본다.

따라 共同採取作業을 하여 새마을 資金으로 쓸 수 있게 되었다.

加波島에서의 海藻類, 貝類 採取權은 加波島 居住海女라면 누구나마 지닐 수 있지만 加波島에서 他地方으로 出稼한 海女는 即刻 採取權이 없어진다. 臨時 1年間 他里로 出他하여 거주하다. 還鄕했어도 그 採取權을 둘러싸고 말썽이 된다. 一但 出他하면 그 採取權은 剝奪되어 復權되지 않는게 慣例로 되어 있다. 그러나 他里로 出稼하여 살다가도 完全히 離婚한 다음 故鄕에 돌아왔을 경우는 예전대로 採取權은 부활된다.

이에 反하여 加波島로 出稼하여 올 경우는 그날부터 採取權이 발생한다.

또한 他里에서 移住해 왔을 때는 6個月後부터 採取物이 認定된다. 톳 採取權은 他里에서 移住해 오기 이전, 이미 그해 톳이 돌보아 자랐을 경우는 그해 톳採取權은 없다. 이것은 톳의 收獲量 및 收獲高가 미역보다 높기 때문이다.

3. 海女器具 및 收益

加波島에서 現用되는 海女器具는 濟州本島와 비슷하면서도 더러 相異하다.

이 相異点은 濟州本島의 어느 漁村에서 거의 볼 수 없는 特異性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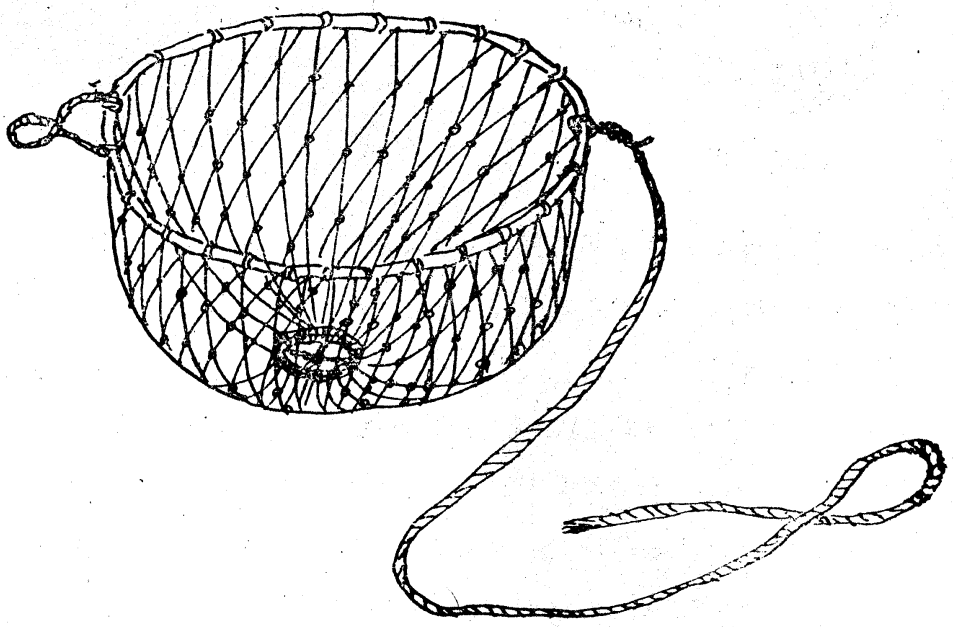
〈表5〉 現用海女服 및 해녀기구

對象：加波島 海女
1974年 8月 調査

종 류	海女服		水鏡		繩網袋		浮	
	在來服	改良服	在來水鏡	改良水鏡	在來망사리	改良망사리	在來태왁	改良태왁
인 원	20	0	2	18	2	18	4	16

〈表5〉를 통하여 在來器具에서 改良되고 있는 器具를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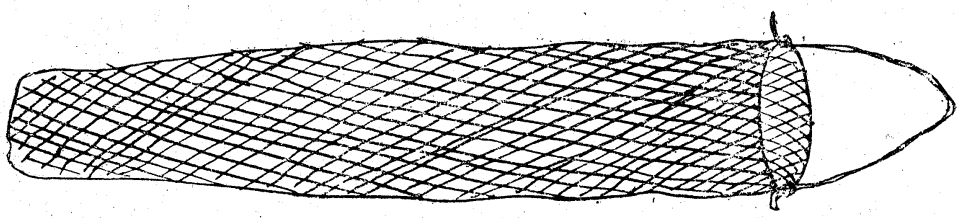
繩網袋를 〈망사리〉,〈망시리〉라 부르며 예전의 〈망사리〉 材料로는 〈신사라〉·〈도와이노〉·〈남총〉을 사용하여 왔지만 지금은 大部分, 在來망사리 使用者는 없어져 가, 간혹 사용하는 海女가 있을 뿐 나이롱실로 짜여진 나이롱망사리를 쓰는 海女가 많다. 〈망사리〉에는 〈그림1〉에서 보는 바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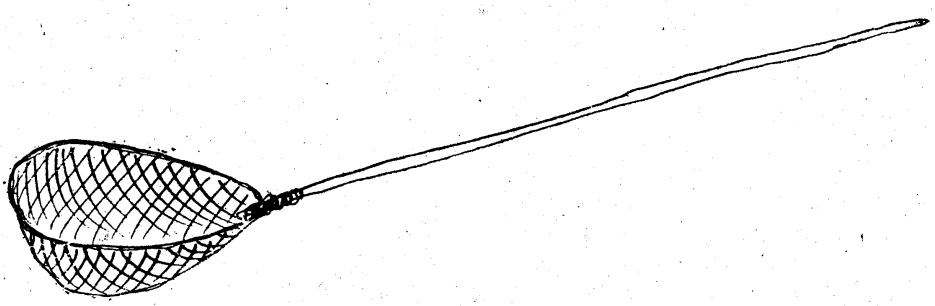
〈그림1〉 좀 망 사 리

같이 〈좀망사리〉가 있어 〈좀망사리〉가 腹部에 닿도록 허리에 동여 묶어서 水中에서 採取한 소라, 전복을 〈좀망사리〉에 넣고 물밖으로 헤엄쳐 올라온다. 濟州本島에서는 대개 손에 소라, 전복을 잡고 水面으로 올라오지만 加波島의 경우는 波浪이 거세고 水深이 유난히 깊다는 데서 두 손을 自在롭게 쓸 수 있는 器具가 생긴 듯하다.

또한 〈망사리〉에 딸리어 우뭇가사리, 떡조개 따위를 넣는데 사용되는 〈바르촐리〉(全長 45*cm*, 어음 直徑 18*cm*)도 있다. 〈그림 2 參照〉



〈그림 2〉 바 르 촐 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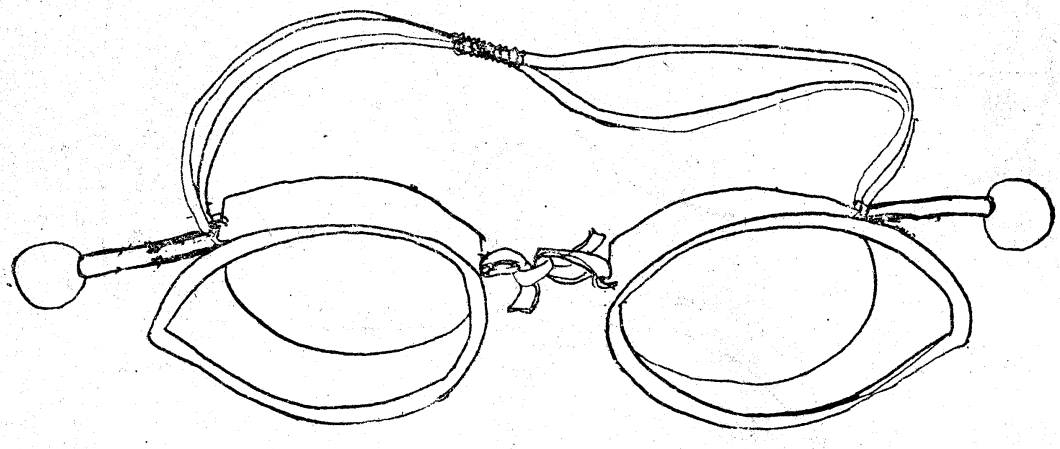
〈그림 3〉 가시리족채

〈그림3〉은 〈가시리족채〉(全長 85*cm*, 直徑 24*cm*)인데, 이것은 水中 바윗돌에 나는 가시리를 전복껍데기로 긁으면 물에 떠오르는 가시리를 건져 담그는데 사용된다.

〈태왁〉은 〈두렁박〉이라고도 하는데 박으로 만든 것은 〈콜락태왁〉 혹은 〈크태왁〉이라 불리우며 〈콕태왁〉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은 100名중 5名 정도다. 大部分 〈나이롱태왁〉을 사용하며 在來 〈태왁〉보다 改良된 〈태왁〉 사용자가 많은데 이것이 사용되기는 5年前부터이다.

水鏡은 小型雙眼鏡을 흔히 〈소안경, 쌍안경〉이라 일컫는데 오늘날 이로

써 作業하는 海女는 少女들뿐이다. 이 小型雙眼鏡 비슷하면서도 〈후싱안경〉이라는, 事實與否는 알 수 없지만 日本 三宅島에 出稼했던 海女들에 依하여 輸入되었다고 傳해진다. (그림 4 參照)



〈그림4〉 후 싱 안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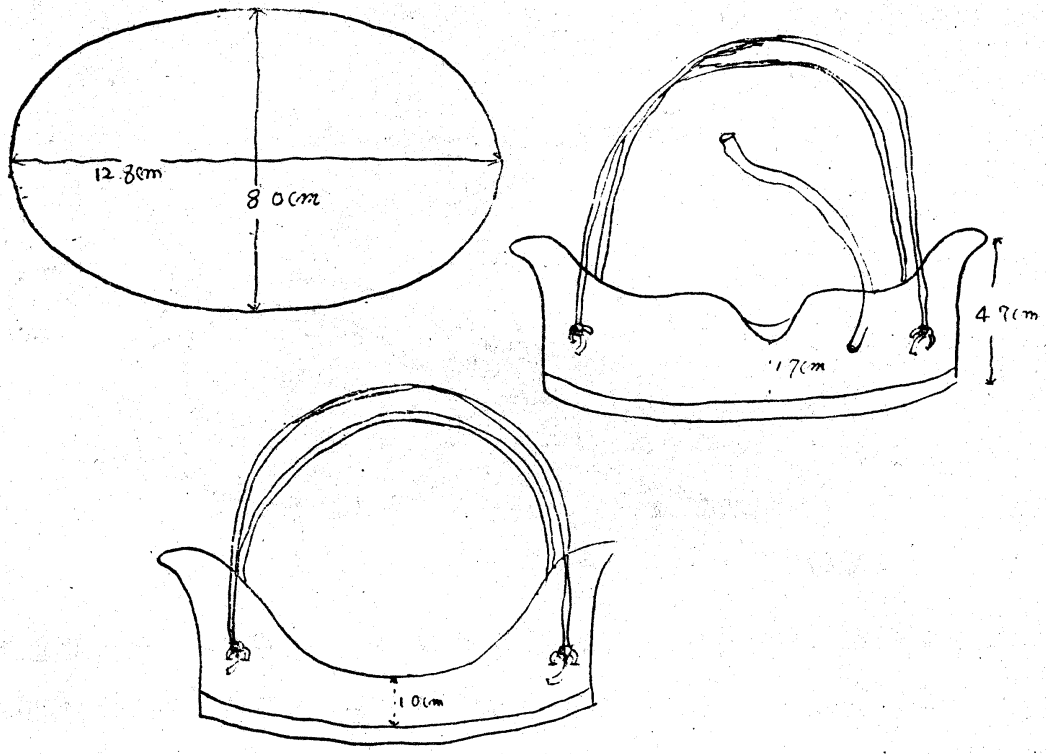
〈후싱안경〉에는 〈후싱줄〉과 〈부레〉가 달려 있어 水深깊이 들어갔을 때 눈에 미치는 水壓을 제거하기 위한 水鏡인데 곧 水壓이 〈후싱줄〉이라는 管을 통하여 고무풍선 같은 〈부레〉속에 들어가게 된다. 55세의 한 海女는 25세 때 日本에 出稼했을 때 이것을 사다 사용하여, 33세에 〈코우에 쓰는 안경〉 곧 一種의 大型單眼鏡을 사용하기前까지 썼었다고 말한다.

大型單眼鏡은 濟州本島에 사용되는 것과 形態가 多少 다르다. 濟州本島에서 사용되는 大型單眼鏡을 加波島에선 〈통안경〉이라 하여 나이든 海女가 가끔 사용할 뿐인데, 加波島에 現用 水鏡은 특별한 이름이 없이 〈코우에 쓰는 안경〉이라 하여 水鏡의 테가 구리로 되어 있고 管이 달려 있다.

〈그림5〉가 〈코우에 쓰는 안경〉〈가로 直徑 12.8cm, 세로 直徑 8cm, 앞면 높이 4.7cm 뒷면 높이 1cm)이다. 濟州本島에서 사용되는 데는 安德面 大坪里 等地다.

그 形態를 보면 水鏡의 코 옆部分에 管이 달려 있어 管을 입에 물고 깊은 海底에 들어갔을 때, 管을 통하여 숨을 불어 넣으면 水壓에 依하여 水鏡이 顔面에 지나치게 密着되는 것을 조절하게 되어 있다. 여름철에 沙溪

里 出身 工匠이 찾아오면 個個人이 顔面에 맞도록 마췄었는 데 지금은 오히려 이곳 海女가 일부러 沙溪里에 나가 만들어 오고 있다.



〈그림 5〉 코우에 쓰는 안경

海女服은 改良服을 着用하는 海女는 한명도 없고. 모두 在來服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들이 濟州本島의 여러곳에 개량복을 입고 있지만 아직도 在來服을 固守하고 있음은 海女共同의 合意아래 作業能率의 平衡化를 위해서다.

머리에 쓰는 모자처럼 만든 머리수건, 〈까바리〉를 1973年度부터 사용하고 있다.

〈表 6〉을 통하여 月別 1日 平均 收益을 알고 있지만 이것이 정확한 月別 1日平均收益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본다. 1974年 8月 下旬일 경우 海女 一人當 놀랍게도, 15,600원을 올리는 사례를 목격했다. 말하자면 海女 1人이 전복 12kg(1kg당 1,300원)을 採取했을 때다. 1973年 加波國民學校 統計에 따르면 1人 海女가 最高收益 25,000원이 되며 1年收益

〈表6〉 1日 平均 收益

對象：加波島 海女
1974年 8月 調査

月別	1日 平均 收益	비 고
1	1,131	1人當 收益
2	1,231	
3	1,726	
4	2,975	
5	2,131	
6	3,263	
7	2,368	
8.	3,815	
9	2,578	
10	1,800	
11	1,121	
12	900	

5～6십만원은 보통이며 거의 1백만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表7〉은 加波島 海女들의 漁獲高다. 전복의 販路는 漁村契長 立會下에 漁村契員들 몇몇이 이를 買收하고 그물에 담아 저녁에 港口內에 잠겨 두었다가 다음날 渡航船을 이용하여 摹瑟浦 所在 貿易會社 代行店으로 내다가 팔고 있다.

여름날 모든 與件이 들어맞을 무렵의 海女들의 收益은 1日 男子 收益의 3～4배에 달하기도 한다. 加波島 漁獲現況을 봐서도 알 수 있다. (表8 參照)

〈表7〉 1973年度 漁 獲 高

加波島 國民學校 統計
1973年 8月 調査

種 類	年間收獲量	收 入 金	備 考
미 역	6,000Kg	1,200,000원	加波島 海女 採取物
톳	30,000Kg	9,000,000원	
전 복	6,375Kg	15,000,000원	
소 라	80,000Kg	24,000,000원	
해 삼	3,000Kg	1,800,000원	
감태·해초류	1,000Kg	3,000,000원	
성 게	1,000Kg	10,000,000원	
計		97,600,000원	

加波島內 農耕地에서의 穀物所得으로써 住民들 年間 食糧의 3분지 1이 자급자족이 된다 치더라도(表9 參照) 그 나머지 糧穀充當은 해마다 切實

〈表8〉 **加波島 漁村契 漁獲現況**

1973年度 統計
단위 Kg

月別	소라	전복	선어	갓돔	방어	자리	해삼	성게	톳	감태	미역
1	5,500	100	400	15	700		30				
2	6,200	150	300	20	1,000		30		25,000		
3	6,400	200	260	20	900		45				
4	7,000	200	800	40			35				
5	4,600	500	800	35				150			1,500
6	6,400	500	430	25				250			
7	8,000	900	600					400			
8	1,000	10,000	550					350			
9	7,000	1,200	500	30	300						
10	5,000	800	300	24	3,500					9,000	
11	5,000	400	300	20	1,500		40				
12	3,000		250	10	200		35				

〈表9〉 **加波島 및 馬羅島 農產物 現況**

1974年 3月 調査
加波島民學校 統計

구 분	농토넓이	보리생산량	고구마생산량	인구	비 고
가파도	18만평	1,000석	18만관	950	식량 3분지1 자급
마라도	5천평	50석	2천관	132	식량 5분지1 자급

한 課題인데 어느 마을에 비해서도 극성스런 이곳 海女들의 裸潛漁業 收益에 의해 食糧을 補充하고 子女를 教育하며 生計를 유지한다.

4. 潛水器船의 漁場侵入

有史以來 오늘날까지 줄곧 加波島 沿岸 第一種共同漁場을 侵犯하는 潛水器業者는 加波島民들의 大敵이다. 加波島 沿海 漁場은 加波島民들의 至上至大한 生命源이기 때문이다.

전복·소라를 비롯한 各種 貝類·海藻類가 풍부한 黃金漁場을 이루고 있으므로 古來로 國內外 潛水器業者들에게도 한결같이 노려 마지않은 標的이었다.

日本 漁民들의 半漁半賊的 漁業은 일찌기 高麗時代부터 韓國南海岸 및 濟州島 沿岸까지 미쳤었는데 李朝全期를 통틀어 더욱 그 橫暴가 極甚해질 뿐이었다. 곧 그들의 半漁半賊的 漁業은 麗末의 主賊從漁的 形態에서 鮮初에 이르러서는 主漁從賊的 形態로 改變되어 갔다.

李朝朝廷에서는 一部水域에서의 倭人의 漁業을 許可해 주었을 뿐더러 違約倭漁船을 團束함에 있어 지나치게 愼重을 기했는가 하면 恒常 寬大했었음에도 그 禍因이 있었다. 長久한 歲月 이들의 半漁半賊的 橫暴는 韓國人의 漁業生產에 커다란 타격을 주었었다.

1876年(高宗 13年) 江華島條約 締結 이후, 日本 漁民의 韓海出漁는 더욱 증가했다. 드디어 1883年 日本 漁民은 韓海通漁權을 獲得하기에 이르렀고, 日本 潛水器業者들은 濟州島 沿岸에 來漁, 퍽 能率的인 漁法으로 전복 採取를 敢行하자 生業을 빼앗기게 된 濟州島漁民들은 목숨 걸고 그들을 阻止하며 싸웠다.

거의 長崎縣 出身인 이들 潛水器業者는 濟州島漁民, 특히 海女들에게는 大敵이 아닐 수 없었다. 그들의 전복 採取能率은 제주도민의 10倍에 달했는가 하면 長崎縣에만 해도 20餘台의 潛水器漁業者가 있어 주로 加波·馬羅島 漁場 一帶를 폭풍우처럼 휩쓸며 採鰒과 殺人掠奪을 敢行했었다. 그 實態가 얼마나 暴惡했었는가는 이 報告書 "社會背景"중 "史的背景"에서 例示한 바 있다. (朝鮮史, 高宗 24年 6月 17日條)

이들의 極烈한 橫暴는 20世紀 前半期에도 줄곧 계속되었고 解放後에 역시 國內 潛水器業者들이 間斷없이 말썽을 부려온다. 참고로 事例 몇 가지를 신문기사에서 간추려 본다.

지난 7일, 수산업법에 의해 설정된 나잠어장인 제1종 공동어장 안에서 불법 취업중인 4~5척의 잠수기선을 발견한 이곳 주민들이 4척의 어선을 풀어 추격

한 끝에 그중 〈○○호〉 (5톤, 제주시 김 ○○씨 소유)를 나포, 마구 선체를 뒤엎어 버렸던 일이 있었던 바로 이틀후인 2월 29일 다시금 어장을 침범한 잠수기선을 잡아다가 뭍으로 끌어올린 주민들은 마치 폭풍우를 방불케 하는 무서운 폭력을 빚어냄으로써 그들의 오랜 울분을 행동으로 표현하고 만 것이다.

이날 아침 9시 30분경 가파도 서남방 속칭 〈간바리여〉 동쪽 공동어장 안에서 정선 취업중인 잠수기선을 목격한 이곳 주민들은 〈동양호〉 (8톤, 가파리 도항선)·〈해운호〉(6톤)·〈등해호〉(6톤) 3척의 어선을 긴급 출동, 문제의 잠수기선 〈○○호〉를 포위, 강제 예인하여 왔는데……

이곳 주민들에 의하여 뭍으로 끌어 올려간 〈○○호〉는 "죽여라 때려 부수어라"라는 흥분된 함성을 지르는 도끼·곡괭이·망치·지렛대·돌멩이등을 든 2백여 주민들에 의하여 선체는 물론 수십종의 잠수기구와 선내 비품을 닥치는 대로 파괴, 싯가 2백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히는 난동을 부렸는가 하면, "나를 죽이더라도 기계만은 살려달라"면서 원동기 (12마력)를 감싸안은 〈○○호〉 최 ○○ (51·하모리)에게 도끼를 휘둘러 어깨와 팔에 전치 2주를 요하는 상처를 입혔으며……〈후략〉

〈제남신문 1968. 2. 19〉

이 기사에서 보는 바와 같이 加波島 住民의 울분은 거의 必死的이었다 할 것이다.

1967년 〈허성장걸여〉에 潛水器船 7~8隻이 侵入, 울분을 참지 못한 加波島 住民들은 摹瑟浦 漁協에 몰려가서 항의를 했지만 조합원들이 숨어버리자 住民들이 조합사무실을 뒤엎어 버려 西歸浦 警察에까지 연행되기도 했다.

1974年度 陰曆 2月에는 〈뒷게머리〉에 잠수기선 1隻이 侵入, 〈금양호〉와 〈태만호〉가 접근해도 태연히 작업, 이곳에서 접근하는 〈태만호〉와 충돌, 潛水夫의 팔이 부러지고 〈태만호〉 기관장 김 ○○씨가 일개월간 경찰에 입건되기도 했다.

潛水器船의 침입은 馬羅島 住民 또한 괴롭히고 있으니,

南濟州郡 大靜邑 加波里

"大靜邑 馬羅島 해녀 공동어장에는 요즘 잠수기선들이 침범, 소라와 전복을 마구 따내고 있다. 18일 馬羅島 海女會長 김 윤희씨등 21명의 해녀들은 이같은 사실을 밝히면서 李 昇澤지사에게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르면 잠수기선들은 船名과 번호판을 가려놓고 밑에서 50m 해상까지 침범하고 있으며 "물러가라" 소리를 질러도 태연히 작업을 계속한다는 것이다. 이들 잠수기선은 고무엔진을 달고 있어 웬만한 배로는 따라갈 수도 없거니와 단속에 나설 선박조차 없어 발만 구르는 실정이므로 당국에 보고를 해도 단속하겠다는 말뿐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잠수기선은 1일 1척이 소라 전복 1백여kg을 따내고 1백40여kg(1인당 7Kg)과 맞먹는다는 것이다."

〈제주신문 1973. 3. 19〉